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 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지급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1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길어집니다.
국민은행

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9월 17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143 호

젊은 시절의 나는 자신만만한 육군장교였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어느덧 오만과 아집으로 변하여 쥐 꼬리만한 지식으로 남을 비관했고, 지도한다는 구실로 아직 미숙한 부하들을 질책했으며 심지어 "합리"와 "소신"이란 이유로 상관에게 대들기 일쑤 였다.

오만한 나의 눈엔 벌로 아는 것도 소신도 포용력도 없어 보이는 (일부) 상관들이 왜소해 보이기 조차 했다.

그런데 한번은 나도 애송이 부하에게서 곡 같은 수모를 당했다. 이미 중년의 지휘관인 내가 예하부대를 공식방문한 자리에서 나에게 브리핑하는 젊은 장교에게 뭐 좀 아는체 하며 말한 마디 했다가 그 애송이 장교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핀잔을 들었다. "그건 모르시는 말씀입니다!"라고.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민 병 돈

순간 그 자리는 얼어 붙은듯 싸늘한 침묵이 흘렀고 나는 온 몸의 피가 역류하듯이 분노와 수치심이 울컥 솟아 오름을 느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 말을 못들은 체 하고 태연히 그 순간을 넘겨 버렸다.

그리고 그후 창피하여 말도 못하고 혼자서 하루종일 분을 삭이며, 밤이되어 잠 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중에 문득 나의 머리속에 떠 오른, 오늘 낮의 그 오만방자한 애송이 장교의 모습이 바로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지난날 내모습 보여준 후배

업보로다! 그와 함께 지난날 그렇게도 왜소해 보였던 나의 (일부) 상관들이 이제는 거인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 아차, 그렇구나!

그 분들은 지난날 나의 오만방자함을 묵묵히 용서하고 나를 포용하여 키워 주셨다. 그분들의 아량이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도태되어 오늘날과 같은 나의 성장과 건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혼자 잘난체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돌이켜 보면 한편 부끄럽고 한편 복 받은 나의 지난날들이며 고마운 인연들이었다. 특히 나를 모욕한, 그 오만불손한 애송이 장교야 말로 나의 고마운 스승이었다.

이순(耳順)이 넘은 나이에도 나는 참회하고 또 참회하며 살고 있다.

〈前 육사교장 · 예비역 중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평생을 참선수행과 선풍진작에 정진했던 월산스님이 6일 열반에 들었다. 영결식은 조계종원로회장으로 엄수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일생을 돌고 돌았으나 한걸음 옮긴바 없네"

월산스님 원적

10일 불국사 영결다비식 1만여 사부대중 '애도'



"일생을 돌고 돌았으나 한 걸음도 옮긴 바 없나니, 본래 그 자리는 하늘 땅 보다 먼저 이니라(盤盤一生 未移一步 本來其位 天地以前)."

한국불교 선종사의 큰 선맥인 경허-만공-금오스님의 법을 이은 조계종 前원로회의 의장 성림(聖林)당 월산(月山)대종사(불국사 조실)가 6일 오후 8시30분 이같은 임종게를 남기고 불국선원 염화실에서 40여명의 상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홀연히 원적에 들었다. 세수 85세 법랍54세.

〈관련기사 10 · 11 · 18면〉

독경소리와 향내, 경내를 둘러싼 조화의 국화향기가 토함산 불국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월산스님의 영결식이 10일 오전11시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앞 법요식장에서 1만여 사부대중의 애도속에서 원로회의 장으로 엄수됐다.

다섯 번의 명종과 함께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스님의 혼을 모시는 창혼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백암스님(원로회의 부의장)의 행장소개, 추모입정후 월산스님의 육성법문을 다시 듣는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봉도사 방장)은 법어에서 "산(山)위의 달이신가 달밑에 산이신가, 본래 산과 달이 둘이 아니니 어찌 분별이 있으시겠습니까. 거래가 없고 생멸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시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며 "토함산 위에 달이 밝으니 불국정토에 만인이 춤을 춥니다"고 설했다.

이어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은 "중생교화 방편을 위하여 생로병사의 비극을 일장춘몽처럼 일막극으로 멋지게 하시었습니다"고 영결사를 통해 기렸다.

이어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이사(理事)가 분명하고 취사(取捨)에 걸림이 없었으며 항상 원융의 일미로 중생의 미혹을 깨우쳐 주셨다"고 추모한 것을 비롯 종회의장 설정스님, 서석재 정각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송건호중앙신도회장, 이의근 경북도지사의 조사가 있었고 고은 시인이 조시를 낭송했다.

영결식에 이어 월산스님의 법구는 불국사에서는 최초로 설치된 다비장으로 이운됐다. 불국선원 서쪽 2Km 지점의 토함산 자락에 설치된 다비장을 향해 1백여개의 만장과 번과 위패가 앞장섰다. 법구가 연꽃으로 장엄된 다비대에 이르자 하늘에서는 5분여 가는 빗줄기가 내렸다. 신도들은 "큰스님께서 뭔가 한 소식을 보내시고 있다"며 환희심을 냈고 아미타불을 외는 염불소리는 더욱 커졌다.

오후2시, 거화신호에 맞춰 월산스님 문중 10여명의 스님이 솜방망이에 불을 붙였다.

"큰스님, 불들어갑니다." 다비대에 불이붙었다. 월산스님의 49재는 불국사 무설전에서 봉행된다. 〈경주=위영란 기자〉

北에 '자비의 국수공장' 건립

평불협 미주본부, 황해도 은파에 10월가동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지역에 10월말 불교계가 지원하는 국수공장이 건립, 가동될 전망이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스님)는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과의 협의를 통해 황해도 은파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자비의 국수공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도안스님은 9일 서울 평불협에서 기지회견을 갖고 "국수공장 건립은 절차상, 시간상 경비절감을 통한 실질적 구호활동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9월말 북한을 방문, 부지확보와 건립상의 문제를 완결짓고 10월말 국수생산이 가능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구입비를 포함 총 2만5천불(한화 2천2백만원)이 투자되는 '자비의 국수공장'은 하루평균 9천그릇의 국수를 생산, 은파군 행정위원회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배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사찰 '분리징수 반대' 현수막

조계종, 입장료 폐지 홍보전단도 배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내 일부 문화재관람료 징수사찰에 대해 분리징수를 강행한데 따른 조계종의 강경 대응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조계종은 9일 내무부장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1990년 내무부 문화부 총무처 조계종이 합의한 '합동징수 행정지침'은 유효한가 △동일장소에서의 분리매표가 합동징수로 규명될 수 있는가 △내무부와의 협의없이 관리공단이 분리징수를 강행한데 대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총무원은 또 전국 본사와 관람료사찰에 공문을 보내 관람료위원회와 합동징수사찰주지회의가 결의한대로 '공원입장료 철폐' '공원구역서 사찰토지 제외' '수행환경권과 사찰재산권 침해 중지' 등을 담은 현수막을 본사 6개 이상 말사 3개이상을 즉각 부착토록 지시했다.

공원입장료 폐지의 당위성과 사찰재산권 행사의 정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단 20만장을 작성한 총무원은 11일부터 전국 본사와 관광사찰에 전단을 보내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불교예산 44억3천만원

재경원 문화재 보수비 1억5천만원 줄어

내년도 정부예산 가운데 전통사찰문화재보수지원비 성보박물관 건립보조비등 불교관련 예산은 44억3천만원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전통사찰 문화재보수지원비는 올해의 17억8천만원에 비해 1억5천만원이 줄어든 규모다. 성보박물관 건립과 대장경 한글화·전산화 보조금도 조계종이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경제원이 제185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전통사찰 문화재보수지원비 16억3천만원 성보박물관 건립보조비 20억원 대장경한글화 지원비 4억원 고려대장경전산화 지원비 4억원등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총무원은 지난7월 재경원에 보낸 98년도 예산반영 요청공문을 통해 괴산 채운암등 30개 사찰 정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8억1천만원과 지방보조금 8억2천만원을 비롯 쌍계사 범어사 백양사 동화사 등 4개 본사의 성보박물관 건립보조금 100억원과 대장경 한글화와 전산화 보조금 17억9천5백만원등 모두 1백34억2천5백만원을 요청했었다.

추석연휴 관계로 9월 24일자 쉽니다

열린마당-산문폐쇄 2면 · 월산스님 추모 수행한담 10 · 11면 · 법안정사 법회중단 '위기' 19면 · 도심사찰도서관 턱없이 부족 14면

- 대한불교 조계종 승가대학원(전문과정) -

公 승가대학원 학인모집 告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은 한국불교의 강학전통을 계승하고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전문교수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대학원을 설립하였으며, 제2기 신입학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9명 내외
2. 모집기간 : 불기 2541년 10월 25일까지
3. 응시자격 : 1) 조계종 승려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학림졸업자
   나)강원 사집과목 중강 경력 2년 이상자
   다)불교학 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
   라)중앙승가대학과 승가대학(강원), 동국대 불교대학과 승가대학(강원)을 졸업한 자
   2) 종헌 제9조 제3항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 1) 본 승가대학원 소정 응시원서 1부
   2) 승적증명서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승가학력) 1부
   4) 경력 증명서 1부
   5) 사진(반명함판) 3매
5. 전 형 방 법 : 서류심사 및 면접
6. 전형일자 및 장소 : 불기 2541년 10월 29일 오전 10시 교육원 회의실
7.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8. 입학식 및 개강 : 불기 2541년 11월 17일 예정
9. 교 육 기 간 : 3년
10. 교 육 장 소 : 제 10교구 본사 은해사
11. 원서 접수 및 문의 :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전화 : 02)732-4923~4 FAX : 732-4926
12. 기타 : 가) 본 교육기관 졸업자는 승가대학(강원)과 학림의 교수자격을 부여함.
    나) 연구비 지급

불기 2541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가대학원장 무 비
대한불교조계종 교 육 원 장 암 도

사 설

불자교사들의 역할

전국규모의 불자교사모임이 결성된다. 지난 7월 직지사에서 사흘간 열렸던 교사불자연수회가 계기가 되었다. 연수에 참여했던 전국의 교사 70여명이 서울 경기 등 주요 시도에 간사를 선임하여 지방조직을 다진 다음, 이를 토대로 전국적 규모의 단체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서울지역은 29일 발기인대회를 겸한 준비모임을 연다고 한다. 취지는 물론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하고 교사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하기 위한 것이다.

교사들은 처음 이 모임의 결성을 조계종 포교원에 의뢰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종단이 주체가 되면 공신력 있게 일을 추진할 수 있고 회원들의 참여율도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위로부터의 주도보다 아래로부터의 교사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포교원측은 모임이 결성되면 이를 불교청소년연합단체 '파라미타'와 연계하는 등 측면지원과 협조를 약속했다. 또 다른 불자단체도 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불교연구원 산하 전국교사불자회는 "같은 취지를 가진 모임이 더 생겨야하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 청소년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한다"고 환영했다.

모든 교육은 사실 유치원 이전에 이루어진다. 가정이야말로 평생의 교육을 결정하는 기관 아닌 기관이다. 일차적 애정으로 자아의 중심을 형성한 아이는 공적공간의 질서를 익히는 사회화의 시련을 겪는다. 이 이차적 훈련에 실패하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할 수 없다. 그 첫 공간이 학교이다. 학교는 단순히 지식만을 기계적으로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과 감정, 그리고 세계관과 종교관까지 더불어 전달되고 훈련되는 곳이다. 교사 자신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린 학생들은 그 영향력에 깊숙이 감염되고 훈습된다. 교사불자들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화해와 안정을 가르치고, 자신을 넘어선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심어준다. 그런 점에서 백명의 포교사보다 한 명의 교사가 더 위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은 그래서 일찍부터 교사들의 신심을 돈독히하고 함께 모여 수련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이런 종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불자들간의 횡적인 연대와 결속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교사불자들의 자발적 제의를 계기로 조계종은 종단차원의 전국불자교사모임을 올해 안에 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 모임이 앞으로 청소년포교의 경험을 나누고 실상을 짚어보며, 이를 토대로 학교에서 가능한 불교행사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갔으면 한다. 한 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우선 각 지역단위의 소규모 교사모임을 활성화해나가는 것이 순서인 듯하다. 이웃들끼리 함께 만나 경전도 읽고 불교의례도 실습하며, 도량에서 심신을 닦는 등, 도반으로서의 동류의식을 확인해 나가다 보면 신심은 깊어지고 포교에의 열의도 함께 자라날 것이다.

이 일에는 종단의 적극적 지원, 그리고 지역본사와 말사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각 지역불자교사모임을 각 본말사와 연대시키고 결연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봄직하다. 시설이나 교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불자교사들의 경전이해나 불교이해를 높이는 기초교육을 종단과 강원, 선원이 협력하여 감당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불교계는 교수와 포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사불자들은 그런 점에서도 다시 없이 소중한 인력이다.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이들에게 전 불자들의 아낌없는 축복과 지원을 당부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남남북녀 좋은일 많이 생겨라

열린마당

산문(山門)은 닫힐 것인가. 조계종은 관리공단이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일방적으로 분리징수한데 따른 강경조치로 산문폐쇄를 결의 했다. 10월 15일이전 정부측에서 종단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곧바로 국립공원내 모든 관광사찰이 산문폐쇄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이다. 이와관련 교계 안팎에서는 산문폐쇄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산문폐쇄를 둘러싼 각계 의견을 들어 보고 해외사례를 알아본다. 〈편집자 주〉

산문폐쇄

'교권수호 위한 결단' 당위성 홍보절실

혜광 〈법주사 주지〉



국립공원내 관광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 산문폐쇄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0년에도 지금과 유사한 상황에서 화엄사가 잠시 산문을 폐쇄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반국민들과 공원 탐방객들의 여론이 사찰측에 상당히 불리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 상황은 8월 29일 6시간동안 실시된 법주사의 산문폐쇄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언론등이 법주사의 상황은 무시된채 탐방객의 입장에서만 산문폐쇄를 다루었던 것이다. 사찰이 돈을 위해 공단과 부딪히고 있고 급기야 문까지 닫았다는 편협적인 여론을 감당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물론 공원입장료가 폐지되거나 합동징수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는한 이런 어려움은 계속될 것이다. 사찰측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파기에 대한 응분의 조처로 산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내용을 모르는 탐방객으로서는 당장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에만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지금처럼 사찰의 재산과 권익이 무시당하는 사태가 계속된다면 산문폐쇄는 강행되어야 한다. 현재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정서적 물리적 비중을 감안할때 산문폐쇄는 강도높은 교권수호의 길일 수 있다. 다만 그와관련 사찰의 입장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민정서 고려 사후대책 등 신중해야

성문 〈조계종 종회의원〉



산문폐쇄는 쉽기 거론 되어서는 안된다. 불교계 내부적으로 권익보호나 재산권행사등 불가분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찰이 갖는 공공성과 개방을 원하는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산문폐쇄는 불자는 물론 대다수의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는 중대사안을 두고 행해질때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대정부 협박용으로 자주 들고 나서는 것은 오히려 산문폐쇄라는 특단의 조치에 대한 권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산문이 폐쇄되면 우선 불편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도 생각해야 한다. 일단 산문이 닫히면 신도와 일반 탐방객으로 나눠서 선별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산문의 폐쇄는 승려들의 출입마저 통제하는 철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폐쇄의 원인이 소진되기 전에 다시 해제할 수도 없다. 장기화될 수도 있는 산문폐쇄의 단행은 철저한 대응전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종단은 산문을 닫는다는 전제하에서 상당히 신중한 사후관리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번 입장료문제와 관련 종단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산문폐쇄 이외의 조치는 없는지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 산문폐쇄 사례

1964년부터 4년간 경도시 세금징수 대응 문 닫아걸고 사찰정비

1964년 일본 경도시의 모든 관광사찰이 출입문을 닫아 걸고 단 한명의 관광객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도시 관광사찰의 산문폐쇄는 놀랍게도 4년이나 지속됐다.

8백여개에 이르는 경도시내 관광사찰의 산문폐쇄는 이마가와(今川) 경도시장이 시의 세수확대를 위해 시내관광사찰들이 받고 있는 입장료에 50엔을 추가해 받겠다고 나선데서 비롯됐다. 불교계의 지원으로 시장에 당선됐던 이마가와 시장은 "기존의 입장료를 그대로 유지하며 50엔을 올리고 그 인상분을 재원으로해 사찰 진입로 확장포장공사도 하면 서로 좋지 않느냐"며 사찰들을 접촉했다. 사찰측으로서는 전혀 부담스러울 것이 없는 제안이었다.

그러나 사찰측은 격렬히 반대했다. 이유는 경도시가 사찰입장료의 인상에 대한 주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세금명목으로 인상분(50엔)을 시가 가져가는 것은 종교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부과의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입장을 정리한 경도불교연합회는 시에 "차라리 불교계가 시의 발전을 위한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놓겠다"는 제안까지 했으나 시는 "뚜렷한 명분없이 기부받지 않겠다"며 듣지 않았다.

결국 소장층 승려들의 강한 의지에 따라 산문폐쇄에 돌입했으나 초기의 여론은 사찰측에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그러나 악평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 사실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연간 2천만명에 달하던 수학여행단이나 관광단이 경도시를 찾지 않게 되었고 호텔이나 택시업계등이 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경도시의 경제구조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던 시가 결국 4년간의 싸움에서 초라한 백기를 들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시가 추진하던 입장료 인상을 빌미로 한 세금징수는 수포로 돌아갔고 경도불교연합회가 매년 일정량의 시발전 기금을 기부하게 됐다.

그렇다면 경도시내 관광사찰은 4년간 어떻게 살았을까?

굳게 문을 닫아 걸고 일제히 사찰을 정비했다. 각 사찰마다 문화재 개보수와 각종불사를 위한 재정을 꼼꼼히 모아두기 때문에 4년이라는 기간동안 시주를 받지 않아도 모든 불사가 가능했던 것이다. 금각사의 경우 4년 내내 개금불사를 했는데 산문폐쇄가 끝난 직후 관광객이 4㎞씩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되어 한달만에 4년간의 산문폐쇄로 인한 '적자'를 회복했다.

임연태 기자

PC통신 의견들

반불교적 언론공세 자제해야

○… 국립공원 관람료 문제 때문에 산문폐쇄까지 하는데 언론에서는 마치 불교가 잘못한 것같이 떠들고…, 이 문제에 대해 수 많은 불교단체들은 왜 침묵만 하고 있죠? (ADA MANTO)

남의 대문앞서 돈받는 처사

○… 국립공원 지역의 사찰이 소유하고있는 토지는 매우 많은데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입장료를 받는 것은 정부가 불교를 이용하여 돈을 버는 형식이 되어 왔다. 이제는 입장료만 따로 징수한다니 말도 안된다. 남의집 대문 앞에 또 문을 만들고 돈을 받겠다는 발상은 이제 용인될 수 없다. 절에만 가는 불자들이 입산요금을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말이다. 불교를 이용하면서 한편으로는 불교를 탄압하려는 시점에서 산문폐쇄 같은 강경 조치가 나온 것이니 정부가 사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내 놓아야 한다. (PBOBJANG)

YMCA '분리징수' 주제토론

"문화재관리 국가차원 지원해야"

산문폐쇄라는 강경조치가 10월 15일이라는 한시적 간격 속에 유보돼고 있는 가운데 서울YMCA가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을 8일 가졌다. 이 토론에서는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는 분리징수 되어야 하며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소비자보호원의 신용묵 팀장은 "현재의 합동징수는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에 위배되고, 정부와 종단간의 합동징수 합의는 공급지와 수요자간의 합의로 전환되어야 하며 공원입장료중 10~30%의 문화재 보존비 지급도 2중징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존가치가 큰 문화재의 보호재원은 수익자 부담만으로 부족하므로 국가적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관광연구원 김향자연구원도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는 '세금과 이용료'의 측면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에따라 분리징수가 마땅하다고 전제하고 "분리징수에 따른 문화재 관리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임성변호사는 "산문폐쇄는 법률적으로 불법적일 수 있다"며 "그러나 사찰이 가져온 여러 권리가 국립공원 제정 이후 제약되기 시작했고 공원관리 정책상 사찰이 문화재 보전에 충실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인만큼 분리징수가 타당하다 하더라도 문화재 보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을 주재한 YMCA는 토론의 결론을 △분리징수 정착과 문화재 보호 세원의 확대 △관람료 책정과 사용의 투명성 확보로 요약하고 문체부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등 관계 당사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이 토론이 "조계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점 등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訃 告

大韓佛教曹溪宗 聖林堂 月山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1년 九월 六일 (陰 8月 5日) 20시 30분 토함산 불국사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永訣日時 : 불기 2541년 9월 10일(음 8월 9일) 오전 11시 ■永訣式場 : 토함산 불국사 대도량 ■茶毘場 : 토함산 불국사 다비장

大韓佛教 曹溪宗 元老會議 議長 慧菴 合掌

聖林堂 月山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증명 : 월하, 서옹 장의 위원장 : 혜암 부위원장 : 원담

위 원 : 관응 고송 석주 서암 비룡 응담 도천 지종 운경 일타 청하 성수 도견 송담 지유 진제 숭산 범룡 정영 녹원

호 상 : 벽 암
지도위원장 : 월 주
부위원장 : 설정 암도
지도위원 : 정락 도후 현해 철웅 법장 무공 법타 보광 철형 성오 월파 법조 지선 종열 현고 천운 지형 혜산 밀운 지관 초우 능가 고산 법안 보성 도성 덕명 법홍 화엄 정관 월운 종원 학능 벽파 지하 태응 혜창 능엄 태허 명선 지성 태응 광덕 무진장 도원 혜성 법정 선용 능관 원융 연관 지안 대각 현성 현근 종림 수완 광복 정대 세영 무산 청화 원행 부동 무상 덕상 장곡 지운 인행 법등 정우 선봉 성덕 현소 법일 무착 원명 영담 영환 석호 정우 영배 지운 명관 진만 지원 영조 보선 혜관 종하 진아 대원 정휴 종명 일명 화범 성우 명진 현봉 법성 진관 지만 송산 여연 효림 장윤 해주 홍륜 현응 원우 향적 원혜 도문 능혜 진철 동춘 적명 고우 무비 혜국 무여 인각 지환 진허 무문 인환 성운 정현 지은 현로 현관 재곤 삼지 자우 지원 대우 천제 법성 삼보 법철 혜총 태연 혜춘 상륜 광우 명성 묘업 태경 자민 명문 현문 제원 일초 원학 덕민 선용 정념(무순)
서돈각 권익현 서석재 박완일 김태호 황수영 최재구 엄상호 송석구 명호근 송재건 안동일(무순)
총무원·교육원·포교원임직원일동, 초·재심호계위원일동 소청심사위원 일동, 법규위원 일동, 선거 관리위원일동, 직능대표 선출위원 일동, 교육 위원회 일동, 전국 포교사 일동, 군종법사단 일동, 전국 경승 일동, 중앙 신도회 임직원 일동, 전국 사찰 신행단체장 일동, 전국 향승 일동, 교재편찬 위원회, 각 종립학교 임직원 일동, 역경위원회 일동, 제11교구 말사 주지 일동, 제11교구 신도회 일동

집행위원장 : 설조
도 감 : 월성 성천 병 법 : 명진 현일
의 전 : 지명 도법 지욱 수경 성본 성비 진원
지 객 : 각현 법일 향공 선원대중 강원대중 일동
재 무 : 혜원 현장 홍 보 : 정휴 종광 섭 외 : 혜광 도영 무상
경 호 : 진광 태일 중후 성대 현중 치 산 : 함주 도공 정관
시 자 : 종봉 성조 원 주 : 정견
師 弟 : 법행 탄성 이두 혜정 월성 월주 월서 월탄 정일 설조 월룡 천룡 함주 월은 삼덕 월나 월선 월국
上 佐 : 성타 활안 법달 장주 관우 종상 종인 정휴 철안 종우 서인 종철 종광 종문 정명 기연 종성 종수 성윤 종연 일여 자성 종법 종근 현성 종현 진일 운성 진현 종후 종천 초삼 종덕 종봉 태원 평심(무순)
法上佐 : 시언 상묵 법현 마근 지현
孫上佐 : 혜운 정문 삼현 성형 정묵 성조 탄공 각천 혜원 고경 향오 지정 지혜 외 72명
在家弟子 : 崔宗大 朴報恩 朴一乘 李東豪 朴熙善 林圭成 邊永宇 裵星旭 邊永宙 李東喆 金元鎭 權寧郁 沈中玄 李龍儀 李淙元

大韓佛教曹溪宗 聖林堂 月山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전문안내인 배치
사찰별 책자 발간

문화서비스 강화

조계종 포교원 '문화재사찰 포교방안' 발표

사찰문화재 관람료를 내는만큼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람료 징수 저항감을 감소시킴은 물론 나아가 입장객에 대한 포교방안이 제안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실장 효종)이 3일 관람료사찰주지회의에 제출한 '문화재사찰 포교방안'에는 입장료 저항감 해소와 사찰의 수행분위기 유지, 나아가 입장객 상대의 포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포교연구실이 제안한 여러 방안의 주요내용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다가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불교의식에 참여하는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관람객 안내시스템의 도입, 실시 및 전문안내인 배치에 비중을 두고 있다. 아울러 비불자 관람객 대상의 포교법회를 개설, 직접 불교행사에 참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입장권에 사찰의 연혁과 창건 설화, 당우의 배치, 문화재 설명, 불교상식, 사찰예절 등 사찰과 불교관련 기본정보를 수록한 소책자로 개발하자는 아이디어도 담았다. 비용은 관람객의 편의시설 이용 수익금과 기업체 광고유치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포교원의 이같은 제안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싸움'에서는 이기더라도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불교가 될 경우 결국 '이기고도 진 싸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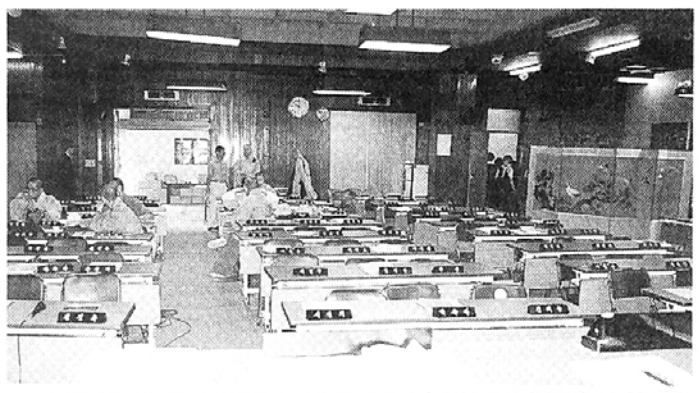
포교연구실장 효종스님은 "'방안'은 포교원에서 제출했지만 총무원은 물론 각 관람료사찰과 관람료위원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인 사업으로 종단전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교연구실의 제안은 국민들의 불만을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해소하겠다는 적극적인 대처가 될 수도 있다.

분리징수 사태가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든 이미 이 사태는 사회이슈화되었고, 국민들의 대체적인 여론은 불교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불교와 국민들의 거리좁히기 방안의 하나로 포교연구실의 제안은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찰 참배객들에게 스님이 가람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조계종 128회 임시 중앙종회가 6일부터 성원미달되며 자동 폐회됐다. 사진은 8일 오전10시 현재 텅빈 종회의장.

중요안건 토의 못한 '부실종회'

조계종종회 유회거듭 폐회

조계종 제128회 임시중앙종회가 유회를 거듭하다 회기 마지막날인 9일오전 10시 자동폐회 됨에 따라 당초 상정된 17건의 안건중 6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11건은 11월 정기종회로 이월됐다.

회기 이틀째인 5일 속개된 종회는 '중앙승가대 이전에 관한 건'과 관련 용마건설의 부도에서 중림건설의 계약체결까지의 과정과 책임을 따지고 종무감사에서 교육분과위와 종정감사 특위가 정밀감사해 정기종회에서 보고키로 했다. 또 사찰방화와 수행환경권 침해와 관련된 집행부의 종합보고서를 요구 정기종회에서 대책을 강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종헌개정특위' 의견 양분
의도적 성원미달 '의혹'

그러나 종회는 제7안건인 '종헌 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둘러싸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일부 의원스님들의 퇴장으로 유회됐다. 이날 종회에서는 "개혁회의 이후 3년여간 시행되어 온 종헌에는 현실적으로 손질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스님들과 "개혁정신의 지주인 종헌이 집행부의 한 만기도 넘기지 않고 고쳐진다는 것은 개혁정신의 후퇴라 볼 수 있다"며 종헌 개헌 논의를 반대하는 스님들의 팽팽한 논쟁으로 가열되기 시작했다. 종헌 개정의 초점은 총무원장의 겸지금지 조항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헌 개헌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토의가 끝난후 의장단이 표결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하기로 함에 따라 10여명의 의원스님들이 종회석을 퇴장해 종회는 6일 속개키로 했다. 그러나 6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정족수의 과반수인 42명에서 7명이 모자라는 35명만이 참석 유회가 불가피해졌다. 이날의 유회는 8일과 9일에도 그대로 이어 졌다. 제128회 종회의 유회에 따른 자동폐회로 관심을 모았던 '불교방송사태 진상조사 특위 활동 보고의 건'과 '불교중앙교원 5천만원무통장 입금 진상조사위 보고의 건' '선본사 직영사찰 해제 요청의 건' '보리수 마을 지원요청및 활성화 방안의 건'등은 입도 못 떼어 본채 차기 정기종회로 넘어갔다. 때문에 이번 종회의 유회가 '종헌 개정특위 구성'과 관련한 의견차이에서 온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조심스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종회의 유회는 미묘한 사안을 앞두고 '시간벌기'를 위해 의도적으로 성원미달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방편이었다는 비난이 거세다. 종회는 산적된 종단현안과 개혁의지의 지속이라는 목전의 과제가 장기적으로 낮잠을 자게 된데 대한 종도들의 실망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연태 기자

지난 8년간 청주불교실업인회(회장 김현배) 주최로 봉행되어 온 '기허당 영규대사 추모제'가 올해 처음 청주시민 차원의 추모대제로 성황리에 봉행됐다(관련기사 5면). 6일 '청주성 탈환 405주년 추모대제'가 열린 청주중앙공원에서 청주성탈환추모사업회 초대회장을 맡은 김현배(중부건설 회장·50)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수요 인터뷰

청주불교실업인회 김 현 배 회장

영규대사 추모제 시민축제로 승화

"호국불교 인식제고 노력 결실"

- 올해 처음 영규대사 추모제가 학술제 연등대법회 기념공연 사진전시회 등 시민문화행사로 확대됨으로써 지역사회에 호국불교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고 봅니다.

▲청주불교실업인회와 청주청원불교연합회(회장 원봉)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자발적인 성금모금으로 올 405주년 기념행사를 대대적인 문화행사로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호국불교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불교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었다고 자평합니다.

- 지난 90년 9월 7일 '영규대사 추모사업회'를 발족시킨 이래 매년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추모제의 의의는.

▲영규대사가 이끈 의승군 1천명과 의병에 의한 청주성탈환(1592)이 임란 최초의 승전으로서 가히 기념비적인 전투임에도 불구, 불자들은 물론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인식치 못하고 임란전사(戰史)에서 조차 소홀히 취급되고 있어 이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청주성탈환 기념일 행사는 그간 영규대사 추모제 등 교계의 단순한 의식행사로 치러져 오다 청주성 탈환정신을 시민정신으로 부각시키자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행사를 다양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계도 승병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 청주불교실업인회의 주요활동은.

▲지난 88년 9월 10일 창립이래 매달 구역별로 가족법회와 사찰 순례법회를 열면서 신행을 다지는 한편 10여개 지역 신행단체와 함께 거사불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영규대사 추모제는 80여명의 회원들이 매년 약 1,500만원의 예산을 마련, 심혈을 기울여 봉행해 왔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은.

▲보다 적극적인 신행을 펼칠 젊은 실업인들로 청년부를 조직,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등의 봉사활동을 펼칠 생각입니다. 청주성탈환 기념사업에도 더욱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해 청주시 최대의 시민 문화행사로 가꿀 예정입니다.

청주=김재경 기자

목어

테레사 보살

"더 이상 숨을 쉴수 없어…"

테레사 수녀가 타계하던 5일 밤 캘커타에는 장대비가 내렸다.

하늘이 울었듯 땅에서도 슬퍼했다.

우리는 왜 나라와 종교를 초월하여 테레사 수녀의 별세 소식에 옷깃을 여미며 애도하는가.

'빈자의 어머니' '자비의 천사' '위대한 어머니' '시들지 않는 예수의 작은 꽃' '사랑의 천사' '사랑의 표본' '영원한 성모' '20세기의 성녀' 테레사 수녀를 지칭하는 이 말에서 우리는 그 답을 볼 수 있다.

그는 이 세상 모든것을 초월하여 걸림없이 살았다. 오직 사랑을 실천하는 자비의 화신이었을 뿐이다. 그는 보살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무소유였으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생명의 감로수 였다.

"어느날 꿈에서 내가 천국의 문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내게 지상으로 돌아가라. 여기에는 빈민굴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 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봅니다. 내가 나환자의 상처를 씻을때 예수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하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의 말은 빈말이 아니라 체험에서 나온 결실의 열매였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면서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었고 천수천안을 지닌 관음보살이었다.

그는 부상군인을 치료하는 간호사였고 고아의 어머니였다. 장애인과 에이즈환자 미혼모 매춘여성의 친구였다. 이러한 그의 사랑은 126개국 6백여곳에서 실천되고 있다.

테레사 수녀는 나를 내세우는 '상'이 없었다. 그래서 여래를 친견하듯 예수를 느꼈으리라. 그는 진정한 종교인은 둘이 아닌 하나의 통로에서 만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해질대로 해져 구멍이 보이는 사리를 입고 보살의 삶을 마감한 성녀 테레사. 그는 우리의 가슴에 살아있다.

자기종교를 내세우고 싶을때, 많이 소유하고 싶을때, 권력이 탐날때, 나누는 일에 망설여질때, 테레사 수녀를 떠올리자.

'97 문화유산의 해

'불교문화 테마여행'

9월 테마여행 - 무량사 · 성주사지

무량으로 이어지는 백제불심

부여 무량사는 신라말 범일국사가 창건한 사찰이며, 보령 성주사(지)는 선문구산(禪門九山) 중의 하나입니다. 모두 신라때 이름난 고찰이지만 여기에는 백제불교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무량사 5층석탑(보물 제185호)은 백제탑인 미륵사지 석탑과 정림사지 5층석탑을 본따 만든 백제계 석탑입니다. 백제가 멸망하고도 수백년이 지난 고려때 백제의 옛 땅에 세워져 백제인들의 문화와 불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사지는 백제 법왕 때 창건된 오합사(烏合寺)로 백제 멸망 직전에 붉은 말이 나타나 울면서 백제의 멸망을 예시할 정도로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현재 무량사에는 보물 제356호로 지정된 극락전에 모셔져 있는 동양최대의 아미타삼존불을 비롯 석등, 당간지주, 김시습 부도 등이 남아 있으며, 성주사지에는 최치원의 사산비명(四山碑銘) 중의 하나인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국보 제8호)를 비롯 석탑 4기, 석불, 석불대좌 등이 번성했던 옛 모습을 짐작케 합니다.

하늘은 높고 길가의 코스모스와 누렇게 익은 벼이삭이 춤추는 가을의 한가운데에서 우아하고 격조높은 백제미를 창조했던 백제인의 불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참가 안내

◇출 발: 9월 28일(일) 오전7시 · 조계사 앞
◇회 비: 3만원(도시락 각자 지참)
◇안 내: 임병고(백제사적연구회장)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선정호)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주관: (주)한푸여행사 후원: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 협찬: 일양약품

인 사 말 씀

大韓佛敎 曹溪宗 名譽元老이신 聖林堂 月山大宗師 永訣式을 佛紀 2541年 9月 10日(陰 8月 9日) 宗正猊下께서 친히 參席하신 자리에서 敎團의 元老會議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 하심에도 不具하시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뵈옵고 人事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지면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四十九齊 案內 ◆

■ 일 시 : 불기 2541년 10월 24일(음9월 23일) 10시 30분
■ 장 소 : 토함산 불국사
■ 문의전화 : (0561)746-9912~3

불기 2541년 9월 12일

聖林堂 月山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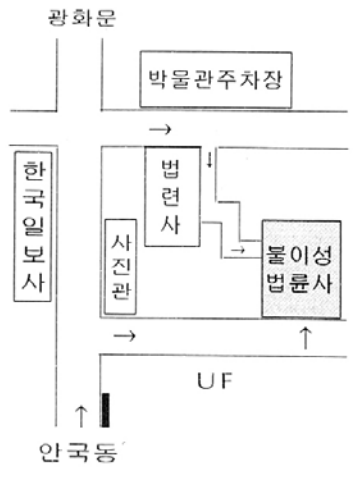
장의위원장	혜 암	합장
호 상	벽 암	합장
지도위원장	월 주	합장
집행위원장	설 조	합장
문중대표	범 행	합장
문도대표	성 타	합장

덕 암 대 선 사
고승평전 「원융불교의 실천」 출판기념 법회

- 초대의 말씀 -

귀의 삼보하옵고
덕암 안홍덕 큰스님의 사상의 핵심이 담긴 「원융불교의 실천」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덕암 큰스님의 출가 70년 및 탄생 85년의 생애를 되돌아 보는 이 뜻 깊은 법회에
다같이 동참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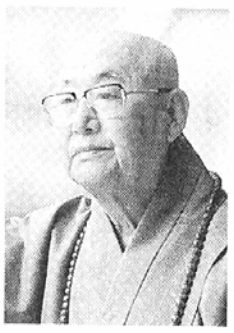
● 일 시 : 1997년 9월 28일 (음 8월 27일) 오전 10시
● 장 소 : 서울 종로구 사간동 112, 불이성 법륜사 큰법당
● 탄생 85년 및 고승평전 출판 기념 법회 (10:30 ~ 13:00)
◇ 출판내용 : 원융불교의 실천(덕암 대선사 출가 70년 및 탄생 85년을 총정리한 고승평전 425쪽)
◇ 특 강 : 대승사상과 원융불교, 오형근 교수 (전 동국대 불교대학장)
: 현대포교와 사찰운영법, 한정섭 법사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이사장)
▣ 기념품 증정(참석자 전원)
1. 원융불교의 실천 1권
1. 불교춘추 7호, 1권(태고보우국사 선차 탐방기)
1. 특강 자료집 1권



(사) 대륜불교 문화연구원
덕 암 화 상 문 도 회
원장 · 회장 무공 서갑생

"아직도 부처님 닮지 못했어요"

출가 70년 맞은 덕 암 스님



'원융불교' 외길…'효·호국안민' 강조

"글쎄요, 별다른 느낌은 없어요. 다만 인연이 닿아 지금까지 왔고 부처님 공덕으로 살아왔으니 부처님 은혜에 감사드릴 밖에요."

올해로 출가 70년을 맞은 덕암스님(85·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이를 기념해 대륜불교문화연구원(원장 무공)은 28일 오전 10시 법륜사에서 고승평전시리즈⑩ 〈원융불교의 실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16세에 출가해 태고종 총무원장과 종정을 거쳐 현 위치에까지 온 것에 대해 스님은 모든것을 부처님의 뜻으로 여기고 있다.

스님은 31세에 포교일선에 나섰다. 선교겸수를 통해 불법을 궐쳐보겠다는 원력을 실현시키고자 함이었다. 스님의 사상적 기반인 '원융불교'도 여기서 비롯됐다.

"종교종파를 초월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불국토를 이룩하자는 것이 태고 보우국사의 원융불교사상입니다. 대륜불교문화연구원을 만들어 지금까지 태고보우 현창사업을 추진해 온 이유도 이를 실현시키기 위함입니다."

1954년 비구·대처 분규때 현 조계종에 맞서 태고종 창종의 주역이 된 이유도 한국불교가 태고보우 스님의 정법을 이어야 한다는 굳은 신념에서였다.

"대처승이라고 해서 비구승과 다를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수행하고 부처님 뜻을 잘 받들면 그같은 경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비구·대처승단인 태고종에서 비구승으로 남아 있는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신껏 부처님을 공양해왔다는 이유 외에는.

"나는 부처님 곁에서 70평생을 살아왔는데도 아직 부처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도를 깨닫고 성불하는 것은 결국 부모, 국가, 스승, 중생의 네 가지 은혜를 갚는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가상은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출가자라 해도 효행과 호국안민 실천이 기본이라는 스님은 "끊임없이 정진하라"는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후학들에게 당부했다.

덕암스님의 평전인 이 책은 덕암문도회가 1년간의 준비끝에 출간하는 것으로 생애·사상·법어·대담·내가 만난 큰스님·부록 등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한명우 기자

중앙박물관 마당 석불에 예불



Focus

불상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닌 예배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9일 오후 2시 대각사 청청스님을 비롯 불자 10여명이 국립중앙박물관 마당에 놓여있는 석불입상에 예불을 올렸다. 향을 사루고 〈반야심경〉을 외며 예불을 올리는 사부대중의 얼굴은 물론 부처님의 얼굴에도 환희의 법열이 가득차 있는 듯 보였다.

불자를 비롯 전국민이 성보에 대한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청청스님은 앞으로 매달 둘째주 화요일 이곳에서 예불을 올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물관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박물관을 관람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좋은 불교의식을 보여주는 포교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기석 기자

교차로

광주 나눔의 집 위문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12일 추석을 맞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하고 "정신대 문제가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종단차원에서 지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정신대 할머니들을 위로했다.

57명에 신흥장학금 전달



도후 속초 신흥사 주지는 6일 '97년도 하반기 '신흥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중·고·대학생 등 총 57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선원사 복원 2백일 영가천도



법산 동국대 불교대학원장 스님은 12일 강화도 선원사 '팔만대장경 판각성지 복원 2백일 영가천도재'에 참석, 법문했다.

北 돕기성금 263만원 전달

지선 백양사 주지는 4일 '민족문화수호교구본사주지모임'과 백양사 승가대에서 각각 모금한 성금 2백63만원을 북녘동포돕기불교추진위에 전달했다.

환경미화원 초청 위안

홍관 청도사암연합회 회장(적천사 주지)은 9일 적천사에 청도군내 환경미화원을 초청, 점심 및 다과를 베풀고 경전과 내복 등을 선물했다.

해인사 구광루서 초대전

향훈 도감사 스님은 29일까지 해인사 구광루 2층 전시실에서 '화엄법계도-우담발화의 꽃은 피고' 초대전을 갖는다. 이번 초대전에는 스님의 작품 '무량광탑' 등 72점이 전시되고 있다.

무의탁노인돕기 지장기도

조연 부산 법연사 주지스님은 11일 대웅전에서 부곡·장전·구서동 거주 무의탁 노인 30여명을 초청, 제1회 무의탁 노인돕기 지장기도법회를 개최했다.

동원학술상 논문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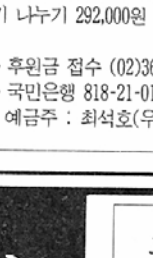
이강근 경주대 교수는 9일 '17세기 불전(佛殿)의 재건축'으로 제13회 동원학술상 논문상을 수상했다.

소년교도소서 생일법회

정관수 대한불과회 회장은 11일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법장스님(수덕사 주지)을 초청, 생일법회를 봉행하고 충의 소년단 불자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도심포교당 교양교육 산실돼야"

지도스님 전법세미나서 주장



우리 사회 전체가 안팎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불교도 예외가 아니다. 불자들의 신앙행태도 변하고 있다. 9일 조계종 전법의 해 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법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다섯번째 세미나에서 지도스님(대구 관오사 주지)은 '사찰의 기능과 신행방법' 주제발표를 통해 "예전처럼 맹목적인 믿음이나 전통에 대한 순응 등 추상적인 명분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종교인들의 태도변화를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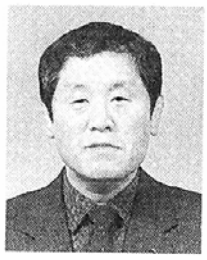
이에따라 종단차원에서는 북한동포돕기, 동성동본결혼, 낙태, 지역갈등, 환경, 청소년, 성(性) 등 사회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불교적 해석을 꾀하고, 신도들에게 실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불교적 규범을 제시해야 하는 역할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인들이 불교를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포교당의 역할도 종교교육의 장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양교육의 제공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스님의 주장. "심리교육이나 인성교육, 인간관계교육 등을 유치하여 지역민이나 신도들을 유도, 포교는 물론 지역민의 '광장'으로 역할해야 합니다."

지도스님은 그 예로 무공해 비누 만들기, 재활용장터, 고향 농산물 사주기, 소년소녀가장 후원, 독거노인 방문 등의 프로그램 실시를 제안했다.

정성운 기자

"불교는 인생 철학입니다"

창립 20돌 부산구도회 한동대 회장



"그동안 한 일보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생활속에서 정법을 실천하고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도회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77년 창립이래 스무해 성년을 맞이한 부산불교구도회 9대 회장 한동대(62·한동대신경정신과 원장)씨의 소감이다. 부산구도회는 故 이기영박사가 창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을 모태로 서울·대구에 이어 세번째로 창립, 2백50여명에 이르는 회원이 매주 목요법회를 통한 경전연구와 연 2회 불교사상 강좌, 어린이 불자교실, 불적지 탐방교실 등을 마련해 정법의 깃발을 펄럭이고 있다. 특히 25~26일 양일간은 20주년 활동을 돌아보는 기념행사로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정병조(동국대 부총장·한국불교교육원 2대 원장)박사를 초청 '불교의 향기', '한국불교 어디로 갈것인가'라는 주제의 불교사상 강연회를 열어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불교 신행은 기복의 차원에서 벗어나 인생에 대한 철학으로 인식돼야 합니다. 그 인식을 바탕으로 각자가 보살이라는 자각아래 자기가 처한 곳에서 모든 일을 정법에 맞게 실천할 때 포교도 가능한 거죠." 한회장의 다짐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게시판

♣ 모집

△영화 '동승' 출연자=스퀘트럽필름코리아(대표 성곤스님)는 영화 '동승'에 우정출연할 108등자와 108보살을 모집한다. 자격은 6~10세 남아 및 25~50세 여성. 모자동반 출연자는 해외불교성지순례의 혜택도 주어진다. 30일까지.
(02)754-4422

△장학금수혜자=개금사회복지관(관장 법산스님)은 장학금 수혜자를 모집한다. 자격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성적증명서 등이다. 25일마감. (051)893-5034

△수덕사강원=수덕사 승가대학(학장 법장)은 치문반 20명, 사집반 약간명 등 학인을 모집한다. 원서접수 24일까지.
(0458)37-6565

△대졸여직원=대불련총동문회 대불(이사장 명호근)은 일반업무와 회원관리를 담당할 대졸여직원을 모집한다. 근무시간은 9시~5시30분이며 주5일근무. (02)723-9811

♣ 알림

△한복기증받아=소쩍새마을(원장 보각스님)에서는 추석을 맞아 원생들에게 제공할 한복을 기증받고 있다. 어린이용부터 성인용까지 남녀한복 모두 가능하다. (0371)762-9870

△봉정암순례=전국불교신도단체협의회(회장 김용직)는 26~28일 설악산 봉정암에서 제6차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오전 7시 조계사앞 출발, 봉정암 오세암 백담사를 참배한다. 동참금 5만원. (02)3672-8391

△백내장 무료시술=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도후스님)은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백내장 무료시술을 실시한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 1통이며 접수마감은 30일.
(02)852-0525

△자원봉사자교육=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스님)은 병원 및 복지시설에서 무의탁노인들과 환자들의 간호를 담당할 자원봉사자교육을 실시한다. 기간은 23일부터 한달간이며 교육은 매주 화·수요일 오전10시~오후2시30분.
(02)723-5101

△일요법회=탄허불교문화재단(이사장 전창렬)은 21일 오전10시30분 삼일선원에서 '불교의 체계적 이해'라는 주제로 9월 일요정기법회를 개최한다. 초청법사는 권기종교수(동국대).
(02)237-4437

♣ 모집

△교리반=부산 금화사 불교대학은 6개월과정 주·야간 교리반을 모집한다.

주간반은 매주월요일 오후2시, 야간반은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강의가 진행되며 개강은 22일. (051)582-3042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부산정토법당 청년회 1,108,000원 △서초정토법당 237,000원 △서울대사회대 자치회 130,000원 △박명기 600,000원 △범능스님 300,000원 △박 석 300,000원 △류희원 150,000원 △박정우 150,000원 △최재호 150,000원 △김복순 100,000원 △유성현 100,000원 △윤옥희 100,000원 △임미자 100,000원 △최남식 100,000원 △하선아 100,000원 △한기화 100,000원 외 △밥 한 공기 나누기 292,000원 △한 끼 굶기운동 1,210,000원

〈10일 현재 총 813,649,20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 최석호(우리민족 불교운동)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 '97년도 제2기 연구과정 교육안내

한국불교학의 진흥을 목적으로 교육,학술,출판,교화,불교대사전 편찬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산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불교학의 균형있는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위해 불교원전전문학림 삼학원에서는 불교원전연구과정 및 불교어학연수과정과 기초학습과정을 개설하고 다음과 같이 '97년도 제2기 강좌에 연구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이에 관심있는 연구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 관 스 님 특 별 강 좌

구 분	코드	강좌명	교 재	강 사	강의시간
한국불교 문헌강독	K-11	한국불교 금석학	역대고승비문 (고려후기편)	지관 스님 (본원 원장)	격 주 목 19:30~21:00
불교논서 연 찬	H-11	한 문 원 전	원효 술, 大乘起信論疏	지관 스님 (본원 원장)	매 주 금 19:30~21:00

■ 기 초 학 습 과 정

구 분	코드	강 좌 명	강 사	강의시간
기초 학습 과정	1-01	불교문헌의 체계 (唯識學槪論)	이 지 수 (동국대학교수 본원 전임교수)	매 주 (後6주) 토 14:30~16:00
	1-03-2	중국 불교 사상사 (禪 宗 史)	김 영 욱 (고려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매 주 (前6주) 토 14:30~16:00

■ 불 교 어 학 및 원 전 연 구 과 정

구 분	코드	강좌명	교 재	강 사	강의시간
불교어학 과 정	S-01	범 어 어학연습	Introduction to Sanskrit (i)	이 지 수 (동국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매 주 토 13:00~14:30
불교논서 연 찬	S-11-1	범 어 원 전	世親 찬, 俱舍論	이 종 철 (정문연 교수 , 본원 전임교수)	매 주 금 16:00~18:00
	S-11-2	범 어 원 전	安慧 주 , 唯識三十頌	이 지 수 (동국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격 주 토 16:00~18:00
	S-11-3	범 어 원 전	龍樹 저, 廻諍論	김 성 철 (동국대학 강사, 본원 전임교수)	격 주 토 16:00~18:00
	T-11	티 벳 어 원 전	Kamalaśila 찬, 修習次第	허 일 범 (진각대학 교수, 본원 전임교수)	격 주 목 16:00~18:00
근본경전 강 독	P-11	팔 리 어 원 전	Buddhagoṣa 찬, 淸淨道論	최 봉 수 (본원 전임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원)	격 주 목 16:00~18:00

■ 제출서류 : 입회원서(일반) 수강신청서 1부(본원 소정 양식) ■ 강의기간 : 1997년 9월 18일~ 12월 6일 (총12주). ■ 접수기간 : 1997년 9월 30일까지 ■ 접수처 : 가산불교문화연구원

社團法人 伽山佛教文化研究院 院長 李智冠

도서출판 가산문고가 내는 책들은……

『불교대사전』 제1권 *근간
『불교대사전』 제2권 *근간
(전15권 예정)
『伽山學報』 창간호
『伽山學報』 제2호
『伽山學報』 제3호
『伽山學報』 제4호
『伽山學報』 제5호
『伽山學報』 제6호 *신간
— 가산학회 편 —
『韓國佛敎文化思想史』 (상 하)
— 논총간행위원회 편 —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신라편)』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1)』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2)』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3)』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고려편 4)』 *신간
— 이지관 —
『韓國佛敎所依經典硏究』 — 이지관 —
『伽倻山 海印寺誌』 — 이지관 편 —
『南北傳六部律藏比較硏究』 — 이지관 —
『信行日鑑』 — 이지관 —
『信行龜鑑』 — 이지관 —
『增補 四集私記』 — 이지관 —
『要經序說』 — 이지관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기획연구실 765-9602 학술출판부 765-9603
사전편찬부 745-1663 F A X 765-5673



◇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봉행된 '청주성탈환 405주년 추모대제'.

불교위상 높인 첫 시민축제

청주불교실업인회등 주관 '청주성 탈환' 기념행사

6일 오전 11시 임란 최초의 승전을 기록한 영규대사 전승기적비가 세워져 있는 청주 중앙공원. 지난 8년간 청주불교실업인회(회장 김현배) 주최로 매년 이곳에서 봉행되어 온 영규대사 추모대제가 올해는 '청주성탈환 405주년 추모대제'로 확대되어 시민문화행사로 치뤄졌다.

조헌·박춘무 장군을 함께 모신 이날 추모대제에는 각현 불교 청주방송지사장, 원봉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이두 해동불교대

사부대중 1500명 추모제봉행
연등법회등 8개행사 열려

학장 스님과 보현사·평화사합창단을 비롯한 불자들은 물론 주병덕 충북도지사, 김현수 청주시장, 박제수 청주시의회의장 등 지역 기관장들과 일반시민 1천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어 불교의식 차원을 넘어선 시민 추모제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청주불교단체협의회 김영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모제는 청주성탈환추모사업회(회장 김현배)의 등공양, 영정봉안, 청주청원불교연합회의 화엄시식(창혼, 착어, 다게), 헌향 헌화 및 삼귀의례 등으로 시작됐다. 이어 경과보고와 사적비봉독, 김현배 회장의 봉행사와 각계인사의 추모사, 관음사 주지 이두스님의 법어 등으로 진행됐다.

추모제를 주관한 청주불교실업인회는 노인 등 시민들에게 점심공양을 제공하면서 법회를 회향했다. 매년 1,5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영규대사추모제를 봉행해 온 동회는 청주지역 10여개 재가신행단체를 지원하고 가족법회를 활성화 시키는 등 거사불교운동의 모범을 보여왔으며, 이번 시민문화행사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청주지역 불교계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5~7일 청주시내 일원에서 열린 청주성탈환 기념 문화행사는 청주성탈환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오늘의 문화행사로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추모대제를 비롯 △5일 무심천 연등대법회(청주청원불교연합회) △5일 '청주성의 역사와 임란항쟁' 학술세미나(불교청주방송) △6일 기념공연(불교청주방송)·당간문화제(청주시민회) △사진전시회(파라미타청소년협회) 등 모두 8개 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청주=김재경 기자

국경 초월한 '벽안불심' 열기

화계사 국제선원 외국어법회

10년째 영어법문 '호응'

"Who am I?(나는 누구인가?)" "What are you coming here now?(너는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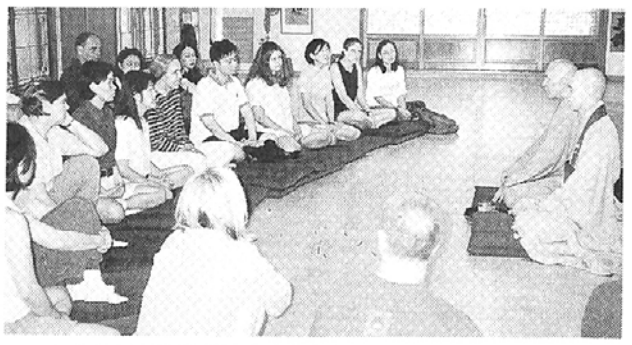
지난 일요일 오후1시 화계사 국제선원(원장 숭산스님). 벽안의 두스님이 좌선한채 법문을 시작한다. 30여명의 내·외국인 불자들은 편안한 자세로 둘러 앉아 스님의 법문에 귀기울인다. 좌선이 익숙하지 않은 탓인지 무릎을 감싸고 앉은 외국인도 눈에 띈다. 그렇지만 분위기만은 자못 진지하다. 국경을 초월해 불법에 귀의하고자 모인 다국적포교 현장이다.

화계사 국제선원은 10년전부터 여러나라에서 모인 외국인스님들이 매주 일요일 외국어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6년째 법회를 주재하고 있는 도문스님(미국)은 "위트와 유머를 활용하며 일정한 주제없이 자유롭게 법문한 것이 오히려 불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즐거워했다.

국제화 시대에 영어를 필요로 하는곳이 많은 요즘. 외국어법회는 불자들에게 영어실력 배양과 함께 불심을 고취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4개월째 참석하고 있다는 주숙희(30·회사원)씨는 "영어로만 진행돼 처음에는 스님 법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 수행정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웅전을 뒤로한채 합장을 하며 돌아가는 불자들의 마음속엔 '부처님 가르침은 그 어떤 언어로 표현한다 해도 마음의 눈으로 대한다면 언제나 여여한 하나의 진리일 따름이다'란 불심의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있었다.

김주일 기자



◇7일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벽안의 두 스님과 영어로 법거량하는 내·외국인 불자들.

탑골공원 노인 700명 '즐거운 한때'



조계사 한가위 경로잔치

조계사청년회(회장 남도희)는 7일 탑골공원에서 7백여명의 할머니·할아버지가 참여한 가운데 추석맞이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점심대접과 풍물공연, 어린이 인도춤, 꼭두각시춤과 피리연주, 국악공연, 즉석 노래경연대회로 이어져 한마당 잔치를 벌였다.

잊혀져가는 전래놀이 '한자리'

제주 연꽃운동회…투호·돼지씨름등 다채

대한불교 어린이지도자연합회 제주지구(회장 인성 스님)는 7일 남녕고 운동장에서 '제4회 연꽃운동회-어린이 전래놀이 한마당' 행사를 펼쳤다. 이 전래놀이 한마당은 아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 문화와 전래놀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 이날 놀이 한마당에선 모둠놀이로 투호와 돼지씨름·공기·콩주머니 던지기·신발넣기 등이 펼쳐졌으며 개별놀이에선 칠교놀이, 고누, 실뜨기, 딱지치기, 제기차기, 고무줄 놀이, 팽이치기 등이 풍성하게 마련됐다.



이차돈성사 추모제
경주 흥륜사

경주 흥륜사(주지 혜혜)는 6일 이차돈성사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대제에는 천자암 조실 활안스님을 비롯 이원식 경주시장, 대구 종정다례원 이정해 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가했다. 신라 10승에 대한 차공양을 비롯 정노회, 서다림회 등 10여개 단체가 참가하는 행다(行茶)와 다식 경연대회 등이 열렸다.



종단협 회장단 宋문체장관 오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과 송태호 문화체육부 장관의 오찬이 11일 정오 한국의집에서 열렸다. 이날 오찬에서 송장관은 불교계의 현안인 사찰방화사건과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불교계가 합심하여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종단협 회장 월주스님과 부회장 인곡(태고종 총무원장) 월서(조계종 초심호계원장) 지하(중앙승가대 총장) 홍파(관음종 총무원장)스님이 참석했다.



구로구 위탁 신도림복지관 개관

서울시 구로구로부터 위탁받은 신도림복지관(명예관장 설웅스님·봉정암 주지) 개관식이 11일 박원철 구로구청장, 이영순 시의원, 신윤진 반야어린이집원장 등 사부대중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총건평 58평인 신도림복지관은 59명 정원의 반야어린이집과 주부기능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운가자비원 수유4동 어린이집 개원

사회복지법인 운가자비원(이사장 수혜스님)은 9일 강북구 우이동 52-5에 소재한 구립 수유4동 어린이집 개원식을 가졌다.

수유4동 어린이집은 대지 70여평에 지하1층 지상2층 건평 1백18평의 규모로, 71명의 유아를 수용한다.

개원식에는 운가자비원 이사장 수혜스님, 길음복지관 관장 제원스님, 장정식 강북구청장과 주민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는선우 교실개원 및 개강식

우리는선우(이사장 남지심) 교실개원 및 제2학기 개강식이 8일 우리는선우 사무실에서 거행됐다.

도법스님(실상사주지) 성태용(건대 철학과) 유필화(성대 경영학과)교수 등 사부대중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도법스님은 "마음 편히 정진수행하며 공부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기쁘다"며 "회원들에게 더욱 열심히 공부할것"을 당부했다.

우리 모임에션

BBS 통신원 양로원 위문

불교방송교통통신원(2조회장 이한조)은 10일 경기도 파주 관음대비양로원에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통신원 20여명이 참석했고 법회 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근처의 온천도 방문했다.

대한사경회 千일 기도법회

대한불교사경회 만일생명기도 추진위원회(회장 이양배)는 28일 오후 2시 금정산 범어사 지장암에서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생명기도를 봉행한 지 1천일을 맞이한 기념으로 열리는 이번 법회에는 무진장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이 법문할 예정.

두송복지관 14명에 장학금

부산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스님)은 20일 복지관에서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소년소녀 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들이 역경을 이겨내고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14명에게 26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051)265-9471

경불련 주강현씨 초청특강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설조·안동일)은 26일 오후 7시 서울 조계사내 문화회관에서 '미륵의 손가락에 숨은 뜻은'이란 주제로 불교시민대학 개설기념 공개특강을 개최한다. 초청강사는 '마을로 간 미륵'의 저자 주강현(경희대 강사)씨. (02)765-5448

보문사 예불문·심경강좌

보문사청년회(회장 이효식)는 불교입문자들을 위해 9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보문사 법보전에서 '예불문 및 반야심경 열린강좌'를 연다. (02)953-0242

영남불교대 고승 선서화전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은 10일부터 30일까지 대학 전시실에서 불우 청소년 및 학인 스님 장학금 마련을 위한 '고승 선서화전'을 연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등의 작품 1백50여점을 선보인다. (053)474-8228

불일회 인도순례단 모집

서울불일회(회장 조달공)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찾아 인도불교 4대성지(탄생지 룸비니, 부다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 열반지 쿠시나가라)와 8대유적을 순례하기 위한 순례단을 모집한다. 1차 11월 30일~12월 8일, 2차 98년 1월 7일~1월 15일. 동참근 1백50만원. (02)733-5322

청교련, 장애인과 수영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는 7일 곰두리체육센터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수영교실'을 개최했다. 〈사진〉



30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이날 행사에 6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도움을 주었다.

팔공산 은해사 9월 보살계 철야정진 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온 세계가 법당 아닌 곳이 없으며 지혜와 자비 발원하는 자, 떠오르는 태양처럼 성불의 길 열려 있습니다. 이슬을 녹이듯 중생의 어두운 마음을 녹여 줄 것입니다.

팔공산 은해사는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과 원효, 일연, 설총 삼성현(三聖賢)의 상주도량입니다. 은빛같이 온 산하를 뒤덮고, 법의 진리가 함께하여 바다물결이 충만한 듯 은해(銀海)의 불법(佛法)이 살아 숨쉽니다. 신라때 명산대찰의 하나이지만 유수천년에 먹구름 지나가고 작은 햇빛의 서운이 도래하여 산내 비구, 비구니 선방과 조계종 교학의 최고 학부인 승가대학원에서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정진하고 있습니다.

종단의 보배이신 동곡 일타 큰스님을 전계대화상으로 모시고 교계 대덕스님들을 3사 7증으로 모시어 보살계 설계의 대복전을 마련하였습니다.

꼭 동참하시어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불기 2541년 9월

三 師

전계대화상 東谷日陀
갈마아사리 應然鳥兆
교수아사리 如天無比

七 證

法融智霞 (승가대학총장)
靑庵法祖 (고운사 주지)
中和法陀 (은해사 주지)
抱山慧印 (약천사 주지)
包雲性眞 (청곡사 주지)
錦牙慧國 (남국 선원장)
一霞無空 (동화사 주지)

일 시
■ 2541년 10월 11일 (음 9. 10) 토:19:00 ~
10월 12일 11:00 (1박 2일 철야정진법회)

장 소
■ 팔공산 은해사 금강계단
(경북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 479)

보살계 동참금
■ 2만원

문의전화
은해사 (0563)35-3318~9
서울 평불협 (02)735-5558~9
은해사 교구 각 말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 해 사 주지 中 和 法 陀 합장

법회안내

불교문학포교원 (02)308-9620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문학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2시
◇주지 혜관스님
주부문학법회 매월 셋째주 금요일 오전11시
어린이창작교실 매주일요일 오전10시

대원정사 (02)834-5125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10시
◇주지 도성스님
관음재일기도 매월24일(음) 오전10시
가정상문법회 매월1회

삼운사 (0361)241-1330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학생회법회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11시, 매주 토요일 오후5시
정기법회 매월 21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주 토요일 저녁8시30분

삼락사 (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매월22일 오전11시

지원사 (0361)242-6546
일반신도법회 매월1·15일(음) 오전10시

능인사 (02)814-2060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 오전11시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1시
가족촛불법회 매월 첫째·셋째주 일요일 오전7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1시
금강경독송법회 매주 토요일 오후2시

고잉 선봉암 (02)906-0807
일반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30분
보름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안동 유일사 (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인등법회 매월15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18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24일(음) 오전10시

흥룡사 (062)651-5083
신중기도 매월1일(음) 오전9시
칠성법회 매월7일(음) 오전9시
지장재일기도 매월18일(음) 오전9시

혜진선원 (032)693-3326
초하루기도 매월1일(음)오전10시30분
보름기도 매월15일(음)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일요일 오전10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주지스님(대표)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이렇게 들었다

부부 외도(外道)하는 자 악도에 떨어진다

둘이면서 하나이기에 무촌지간(無寸之間)인 부부. 최근 불륜등의 가정불화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인천에서 남편 몰래 수천만원의 빚을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4일 인천에서는 부부싸움 끝에 부인을 베란다 난간 20m 아래 아파트 화단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서울 강남에서는 아내의 불륜사실을 고백받고 아내와 아들·딸을 흉기로 찌른 뒤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5일과 7일 부산·서울에서는 가정불화로 아내를 둔기와 흉기로 각각 살해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가정과 사회를 지탱하는 부부의 도리를 경전에서 듣는다.
〈편집자 주〉

▨깃발을 보면 수레에 누가 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고,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불이 난 것을 알며, 그 나라의 왕을 보면 그 나라의 형편을 알 수 있고, 그 남편을 보면 그 아내를 알 수 있느니라. 〈별역잡아함경〉

▨여자가 스스로 제 몸을 지키지 못해서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따라 가거나, 남자가 마음이 방탕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가도(家道)를 다스리는 사람은 다 악도(惡道)에 떨어진다. 〈잡아함경〉

▨남편은 다섯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아내의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마땅히 열네가지 일로 남편을 섬겨야 한다. 열네 가지란 무엇인가? 행동을 착하게 하며, 선을 실천해 이루며, 지출 아끼기를 세밀히 하며, 새벽에 일어나며, 밤 늦게 자며, 반드시 일을 이루며, 남편을 대접하며, 남편에게 인사하며, 말과 어세를 부드럽게 하며, 말이 순하며, 자리를 바로하며, 음식을 깨끗이 하며, 보시를 잊지 않으며, 남편에게 봉사하는 일이다. 〈선생자경〉

▨아내는 남편을 섬김에 있어서 다섯가지 일을 행해야 한다. 첫째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거든 일어나서 맞이함이요, 둘째는 남편이 외출해 집에 없거든 밥을 짓고 집을 치워서 기다림이요, 셋째는 남의 남편에게 음탕한 마음을 지니지 않음이요, 넷째는 남편의 가르침대로 행하여 집에 있는 가재구를 숨기지 않음이요, 다섯째는 남편이 잠들고 나서 눕는 일이다. 〈육방예경〉

▨여자가 스스로 어여쁨을 믿어 남편을 업신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너는 어여쁨이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느냐? 그릇된 태도를 버리고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여쁨이니, 얼굴이나 머리털이 좀 잘 생겼다 해서, 그것이 어여쁨인 것은 아니다. 〈옥야경〉

▨남의 부인과 관계를 맺지 말고, 음행을 멀리 여의고, 자기 아내에게 만족을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늘에 나는 길이다. 〈십선경〉

▨자기 아내에게 족한 줄 알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고, 마음을 어지럽히고 미치게 하는 술 마시기를 끊어버려야 하느니라. 〈중이함경〉

신행수첩

동사섭으로 희망의 인생을

동화사포교원 관오사(주지 지도스님)는 20, 21일 관오사 법당에서 대화스님(명상의집 주지)을 초청 동사섭 법회를 봉행한다.

동사섭이란 대승보살이 중생을 제도함에 있어 그 근기에 따라 교화하는 한 방편으로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의 4가지를 의미한다.

대구지역 최초의 동사섭법회가 될 이번 행사에는 대인관계의 갈등 해소법, 마음 속의 분노와 원한을 삭이는 방법, 효과적으로 상대의 마음을 주고 받는 기법 등 생활 속의 지혜를 법문할 예정이다. 접수마감은 18일. 선착순50명. 회비 7만원. (053)784-3669

원효사상·고운 詩情 되살려

해동초조 원효성사와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리는 추모대제가 부산시민의 날 행사중에 열린다. 대한불교원효종(종정 법흥)과 토향회(회장 김무조) 주최로 10월4일, 5일 양일간 해운대 동백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각종 민속행사와 농악놀이 연예인초청공연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진다.

시조, 한시 백일장과 서예경연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 이 행사는 원효성사의 무애사상과 최치원선생의 시정(詩情)을 오늘에 되살려 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듯.
(051)627-5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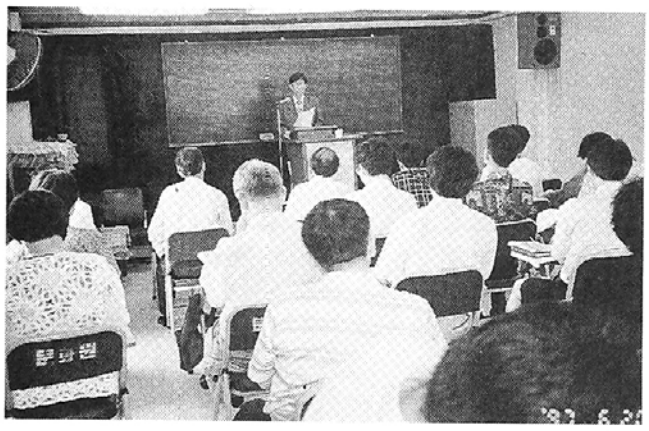
선의 바른길 '선문정로'

성철선사상연구원(원장 목정배)은 26일부터 제2학기 선학강좌를 개설한다.

목정배(동국대 불교학과)교수가 진행할 이번 강좌는 성철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장경각 刊)를 교재로 격주 금요일 오후3시 연구원에서 개최된다.

〈선문정로〉는 정안조사들의 법어를 모아 성철스님이 재해석하여 선사상의 바른길을 제시한 것으로 '견성이곧 성불이다'란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일자관(一字關)으로 유명한 운문스님의 어록 〈운문록〉(장경각 刊)을 교재로 22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7시에 신규탁(연세대 철학과)교수가 강의한다. (02)265-5215



◇지난 6월21일 열린 제2회 빠련불교아카데미에서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한국의 유교와 도교'란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보살계 수계로 참불자 되자

불자라면 누구나 법명을 받고 오계 내지는 보살계를 수지해야 한다. 참불자로 거듭날 기회인 보살계 수계법회가 28일 10시30분 한국불교대원회(회장 이상우) 주최로 서울 대원정사에서 거행된다.

보살계는 10중대계와 48경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재가자가 생활 속에서 지킬 계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철보사 조실 석주스님을 수계법사로 열리는 보살계 수계식은 연비를 받으며 그동안의 과오를 참회하고 반성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02)754-1613

"문화재 아는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나니, 보이는 것은 예와 다르다."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은 20일 오후 2시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의 저자 유홍준 영남대교수를 초빙, '문화유산을 보는 눈'을 주제로 토요공개강좌를 연다.

건축에 나타난 조형미와 자연미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멋과 맛을 소개한다. (02)398-5083

禪宗뿌리 구산선문을 찾아

학생과 시민이 함께하는 전남대 박물관의 호남 문화유산 답사가 호남지역의 선문구산을 찾아 길을 나선다.

신라말 새로운 불교사상의 기치를 내걸고 지방 각지에서 크게 일어난 구산선문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이번 답사는 구산선문 중 가장 먼저 개창한 홍척의 실상산문(실상사)를 비롯 혜철의 동리산문(태안사), 도윤의 사자산문(쌍봉사), 도의의 가지산문(보림사)을 둘러보게 된다. 출발은 28일 오전 9시 전남대 대강당 앞. 회비는 1만5천원. (062)520-7785

첼로 선율과 함께하는 명상

법회도 봉행하고 참선과 취미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연희동 대보사(주지 대승스님)는 18일부터 명상, 참선과 함께 취미생활을 배울 수 있는 명상회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에 가입되면 야외법회시 법현스님의 첼로연주와 함께 참선·명상하며, 지점토·연꽃만들기 등 취미활동도 배울 수 있다. (02)338-4595

나의 수행일기



윤석관

매일 아침 참회의 염불

자신감 속에 신행… 부처님·선지식에 감사

엄격한 유교집안에서 자라난 덕택에 한학을 가까이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자로 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뜻도 모른채 열심히 익혔다.

지금 생각하면 심오한 뜻이 담겨있는 불교경전들을 한낱 한자교재로만 생각했던 나의 무지가 한없이 부끄럽다. 중·고등학교 시절 동양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나는 대학에서의 전공도 철학을 택했다. 인간의 본성과 존재를 탐구하는 학문. 그 중 부처님 사상이 많이 내재돼 있는 인도철학은 매력을 끌기에 충분했다.

번뇌와 욕망이 많았던 대학시절. 광대무변한 불법의 진리는 세속의 시끄러움에 물들지 않고 소신대로 살려는 나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학문으로만 불교를 접했던 내가 본격적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때는 대학교 2학년이 되어서 였다. 대학생 불교연합회의 초대 구도부장. 도를 강의하는 이 중책을 맡게 되면서 불교공부도 더욱 열심히 하고 청담, 고암스님 등 훌륭한 큰스님들을 친견하는 법회에도 여러번 참석하였다.



여러 차례의 법문중 지금도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법어가 있다. "해인사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해인사에 왔느냐?" 고암스님이 조계종 종정에 취임하셔서 봉행한 첫 법회에서 설하신 법어다.

이 법어를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화두처럼 간직하고 있다. 이외에도 성철스님의 백련암 야외법회와 통도사에서 친견했던 월하스님의 법문은 불법에 심취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

나는 하루일을 시작하기 전 아침마다 집근처의 산을 오른다.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 정근을 하며 걷다가 이마에 맺힌 땀방울 닦으며 휴식을 취하려고 바위에 걸터 앉아 있노라면 나도 모르게 환희심이 솟아오른다. 이렇게 시작된 하루의 삶은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살아 있음에 감사하고 내 가족이 모두 건강함에 감사하고 불자임에 감사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인지 하는 일마다 실타래 풀리듯이 잘 성취된다.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50평생을 살면서 큰 걱정없이 순탄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기도의 원력인 듯 싶다.

나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원하는 바가 이루어 지게 해달라는 식의 기복성 기도는 하지 않는다. 평상심과 환희심을 갖고 일상의 삶을 살도록 그릇된 과거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기도를 한다. 또 하심하며 겸허한 불자로서 살게 해달라는 서원도 빠뜨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이나 사람을 대하면 저절로 자신감이 생겨 원하는 대로 잘 해결된다. 기도하는 신행의 나날이 계속되는 한 무슨 일을 해도 잘해 나갈 자신이 있다.

현재는 두가지 중책을 겸임하고 있다. 홍성기능대학 학장직을 맡아 선진한국을 위해 유능한 기술인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제6교구 미곡사 신도회장으로서 본·말사 신도들의 심부름꾼 역할도 하고있다.

지금 한창 새모습을 단장하고 있는 기능대학 학생들에게 시간날 때마다 기능인이 되기에 앞서 인성이 가장 중요함을 역설한다.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로는 인성이야말로 인생행로를 결정짓는 조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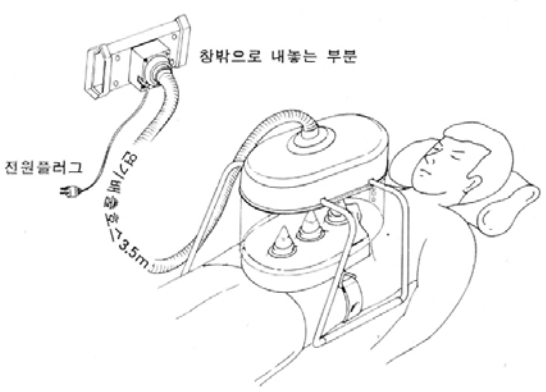
그동안 정진해온 결실의 산물인 만큼 매우 중요시 여긴다. 부처님가피아래 살아왔고 앞으로도 부끄러움 없는 불제자로 살기를 바라는 나는 큰 서원을 세웠다.

"부처 자체의 형상불에 얽매이지 말고 참존재를 찾기 위해 계속 수행정진 할 것이며 불교의 현대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다."
〈홍성기능대학장〉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 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60,000

현대인의 건강長壽쑥뜸기

◎ 하루 40분씩만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 . .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현대인의 만병(萬病)을 다스리는,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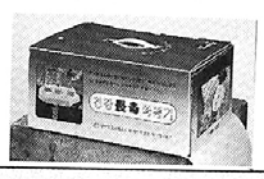


※ 고통없는 뜨거움, 상쾌함이 느껴지는 열자극을 복부전체에 주면서, 주로 쑥의 영묘한 약성분을 배꼽과 단전, 중완의 피부세포를 통하여 몸 속에 집중적으로 투입시켜 체질개선과 함께 질병을 치유시키는 방법.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보급가격 : ₩120,000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성지관음회(부설: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

지역문의 서울 : 종로·서대문구 (02)747-7033 송파구 (02)417-8922 노원구 (02)942-6430 경북 : 울산 남구 (0522)74-7536 울주구 (0522)85-1284 포항 (0562)75-1560 경남 : 마산 (0551)23-9016 부산 : 연제구(보문포교원) (051)864-3740 부산진구 (051)867-2926 경기 : 광주 (0347)64-3172 용인 (0335)36-4294 충북 : 제천 (0443)46-3023 충남 : 예산 (0458)33-3208 보령 (0452)33-1336 전북 : 익산 (0653)856-8659 강원도 : 강릉 (0391)645-2117



"명예보다 마음공부"
日 이나모리회장 출가

일본 '벤처기업의 신화적 인물' 교세라사(社)의 이나모리 가즈오(65·稻盛和夫) 명예회장이 약속대로 7일 교토 임제종 원복사(圓福寺)에서 출가를 했다. 법명은 이름의 첫글자를 딴 '다이와(大和)'.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출가 "인생의 목적은 지위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마음과 인격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여생을 수행과 함께 편안히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의 정·재계 인사들이 음미해 볼 말이다.

지난해 9월 출가 의사를 밝혀 화제를 모았던 이나모리 명예회장은 올해 초 교세라, DDI(제2 전화) 등 자신이 키워온 기업들의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출가준비를 해왔다.

〈사진=요미우리신문 제공〉

나리양 주검 "온국민 분노"

유괴범 검거…"돈 때문에 어린생명 해치다니"

이름도 예쁜 박초롱초롱빛나리양이 끝내 주검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이를 볼모로 일확천금을 노리겠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유괴사건으로 온사회가 분노했고, 분노와 함께 우리들은 범인들에게 나리양을 온전히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분명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지만 우리들의 분노와 호소는 나리양의 무사한 귀가를 위해서였다. 나리양만 데려다주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것이 부모마음이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도 범인들이 나리양을 돌려보내고 자수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약속했다. 행여 좁혀오는 수사망에 쫓겨 극단적인 생각으로 치닫지 말기를 범인들에게 당부했다.

나리양 또래의 어린이들은 거리에 나서 범인과 국민들에게 애원하지 않았는가.

"나리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도 어른들이 사탕과 바꾸자면 바꿀 만큼 순진한 초등학교 2학년이예요. 그런 아이를 데려다 어쩌자는 거지요."

범인들도 사람일진데, 마음의 움직임이 있길 기대했는데. 그런데, 말그대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유괴 용의자 6명 가운데 1명은 12일 붙잡혔다. 나리양이 다녔던 무용학원의 여교사였다. 불안감에 지쳤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유괴목적이 1천6백만원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니, 더구나 그녀도 임신 8개월의 몸이었다니 너무 어이없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아는 동네 아줌마가 길을 물어보더라도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뛰어가야 하나요."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차례다.

정성운 기자

불교의 눈 — 내몸 살리려 남의 생명 죽이면…

다시 생명을 생각한다. "곡식을 먹으면서 생명을 존중할 줄 알라. 비록 보잘 것 없는 목숨일지라도 살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없느니라. 남의 목숨을 죽여 내 몸을 살리면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느니라."〈법구비유경〉 하물며 사람임에랴.

부처님의 말씀으로 범인들이 참회의 길로 나오길 호소한다. "먼저 악을 저질렀다 해도 뒤에 이를 고백하며, 뉘우치고 나서는 부끄러워하여 다시 그런 악을 저지르지 말도록 할 일이다. 안개나 구름이 걷히면 달은 곧 청명해지거니와, 악을 짓고도 능히 회개하는 경우에는 역시 이와 같을 것이다."〈열반경〉

테레사수녀 어록 — "쌓아두면 둘수록 줄수있는 것 적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신을 봅니다. 내가 나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고통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 곳으로 서로 용서하는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많이 가질 수록 줄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가난은 놀라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만일 달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면 물론 그곳에도 갈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승자나 패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고통과 참상, 당신들의 무기가 저지른 생명의 손실을 정당화하지 못할 것입니다.(1991년 조지 부시와 사담 후세인에게 보낸 서한)

○…나는 빈민들의 가난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집없는 사람과 불구자, 맹인, 나환자, 아무도 원하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짐이 됐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받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1979년 노벨평화상을 받으며)

○…쌓아두면 쌓아 둘수록 줄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나누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지요.

○…현대인들은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배우자끼리도 서로에게 시간을 내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세계평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줄이은 장기기증 6명 새생명

형제자매등이 보은의 장기기증 릴레이를 펼쳐 이틀동안 6명이 신장 수술을 받아 감동을 주고 있다.

처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사람은 주부 정여임씨. 정씨의 신장은 최상곤씨에게 이식됐다. 그러자 이를 고맙게 여긴 최씨의 누나 상복씨도 신장을 기증했고, 이정천씨에게 새삶을 주었다. 이씨의 동생 장현씨의 신장은 왕원기씨에게 이식되었다.

괌사고 유족 1천억원 사회환원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로 아내와 어린 남매, 장인 장모 처남 등 일가족 8명을 한순간에 잃은 한양대병원 신경전문의 김희태(34)씨가 "자신에게서 상속받을 1천억원대의 재산을 모두 자선병원 운영기금과 장학기금 등으로 내놓겠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상속과 기증에 필요한 실무를 변호사에게 위임한 뒤 김씨는 "생전에 전재산의 사회환원 의사를 밝혔던 장인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므로 장인의 선행이지 나의 선행이 아니다"며 "불우한 이웃을 내 가족으로 생각하고 평생 이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해 술로인해 14조원 소모

한해 술값과 그에따른 경제사회적인 비용은 95년 기준으로 14조원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1일 정책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비용은 음주로 인한 질병치료에 드는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 비용을 합한 것이며, 음주관련 범죄피해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술값까지 포함한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95년 GNP의 4%에 이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류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거둬 건강증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 세계 9위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를 자랑할 정도로 성장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에서는 세계 9위로 기록돼 여전히 '교통사고 왕국'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11일 발간한 '97교통안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6만6천7백99건으로 95년에 비해 6%, 사망자수는 1만3천1백74명으로 21%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만2천6백53명으로 95년에 비해 2천3백30명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하루평균 35명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셈이다.

서울 음식쓰레기 도쿄의 3배

'서울시민들은 일본의 도쿄시민들보다 2.7배나 많은 쓰레기를 버린다.' 국제농업개발원이 5일 발표한 '서울시의 음식쓰레기 배출량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시민들의 하루 음식쓰레기 배출량이 6천5백톤으로 인구 수가 비슷한 일본 도쿄의 2천3백80톤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서울은 음식쓰레기중 72% 가량이 육류 생선 채소류 등 수분함량이 많아 악취를 심하게 발생시키는 쓰레기로 도시락 김밥 초밥 등 수분함량이 적은 음식물이 70%를 차지하는 도쿄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시론

청소년과 사회가치관

최근 초등학생이 어른을 모방해 어린이를 살해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폭력이 넘쳐 살인까지 저질러진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문제'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식상한' 사회적 사실이 된지 이미 오래다.

청소년문제 생산자는 어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소년문제'라는 상품은 정보시장에서 '베스트 셀러'로 팔리고 있으며, 멀쩡 소비자에게는 폭력적으로 구매를 강요하고 있다. 그렇다면 필자는 왜 또 이 폭력의 대열에 합류했는가? 그것은 독자들과 함께 이 상품의 생산자를 확인함으로써 이 상품의 생산을 중단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이다.



유 승 무
〈중앙승가대교수·사회학〉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도 불특정 다수의 청소년들을 '청소년문제'의 생산자로 간주해 버리고 만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청소년들을 '청소년문제'란 상품의 진정한 생산자라고 간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도, 우리는 과연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떳떳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청소년문제'라는 상품의 일차적 생산자는 누구인가? 단언컨대 그것은 우리사회의 전도된 가치기준이다. 차근차근 따져보자.

사실상 우리사회가 산업화되고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이 사회 전면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고지식하게 법과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에 비해 그것을 적당히 어기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사회현상이 생겨났다. 그리고 전자에게는 '꽁생원', '답답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바보' 등과 같은 악의적인 처벌이 따라다닌 반면에, 후자에게는 '처세술이 탁월한 사람', '융통성이 있는 사람', '문제해결능력을 가진 사람', '통이 큰 사람' 등 호의적인 보상이 뒤따랐다. 그리고 점차 고지식하게 규범을 잘 지키는 전자의 마음 한구석에조차도 '바보'로 낙인찍히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또아리를 틀고 들어앉게 되었다. 바로 다수의 이익을 위한 보편적 도덕심이 소수의 이익을 앞세운 특수가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 게임에서 승자들은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였고 점차 다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다수가 따르는 규범이, 그리고 지배세력이 지닌고 있는 규범이 한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이 된다'는 공식대로, '전도된 규범'이 우리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제 우리사회의 지배세력들은 그리고 다수는, 자신들은 할 수 있으나 사회적 약자들은 해서는 안될 각종 '금지적 규범'을 생산하여, 사회적 약자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자신의 술 접대부로 즐기면서 바로 그 여학생을 '문제청소년'이라고 낙인찍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사회의 지배세력들은 전도된 잣대로 찍은 낙인을 토대로 '청소년문제'라는 상품을 생산해 내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 일반인이 상품의 생산자인양 선전함으로써 어린 희생양들을 재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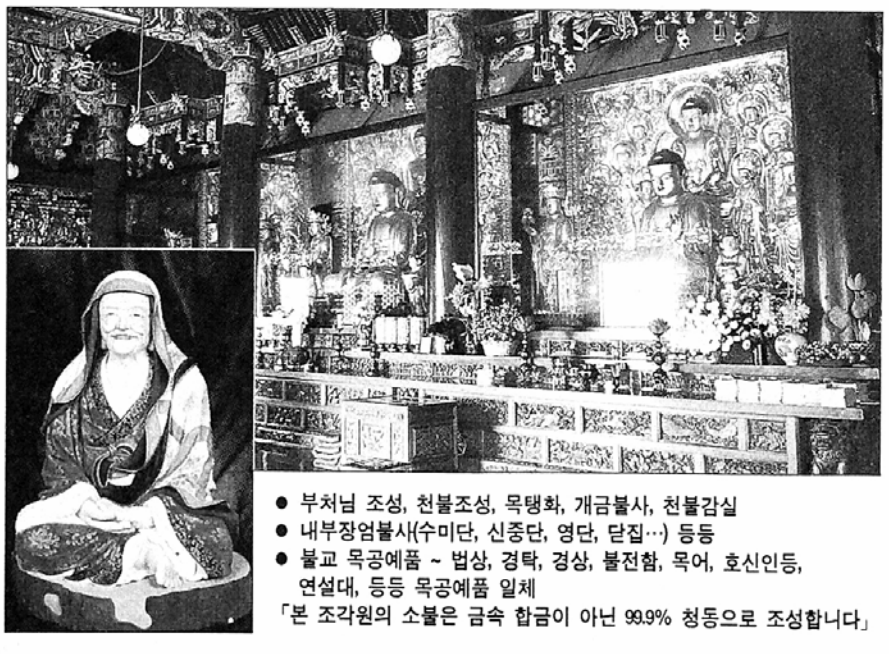
그러나 반증해 보자. 주지하듯이 청소년기는 자신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규범을 가장 왕성하고 격렬하게 학습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기존의 사회규범체계 속에 태어나서 사회의 호명에 복종해 왔다. 그렇기에 청소년들이 학습한 자신과 사회의 관계가 금지적 규범의 위반으로 귀결되었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이 학습한 사회규범이 잘못되었거나 최소한 그 사회규범과 금지적 규범이 가치의 일관성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문제'라는 상품의 생산자는 전도된 규범구조나 이른바 아노미(가치관 혼란)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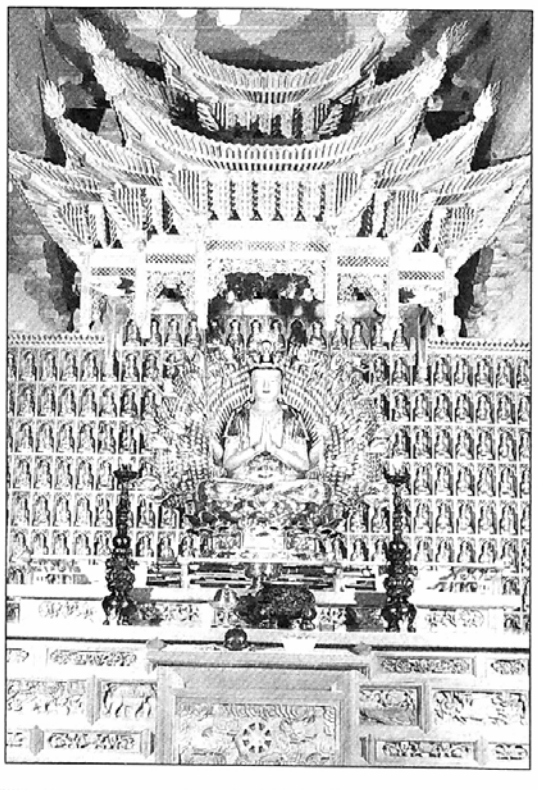
보편적 도덕의식 상실시대

따라서 청소년문제의 해결은 지배세력들과 다수가 만들어 낸 전도된 규범구조를 고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사회의 지배세력과 다수는 몇 마리의 어린 양을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위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어린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성하고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 '청소년문제'라는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는 일은 그들의 몫이다. 그리고 한국문화의 조타수로서 불교는 우리사회의 가치불균형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본 조각원의 소불은 금속 합금이 아닌 99.9% 청동으로 조성합니다」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 서울사무실 :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TEL. (02)738-8447
▷ 대전사무실 :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동 807번지 TEL. (042)483-8466
▷ 공방연구실 :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225-1 TEL. (0416)857-5825

대표 이진형 합장

한 형 조

무문관 탐방

22

운문의 종소리

*운문이 말했다. "세계는 이토록 광활한데 어째서 종소리가 들리면 가사를 꿰차는가?"

*나 혜개가 말한다. "무릇 선(禪)을 참구하고 도(道)를 배우는 사람은 소리를 따르고 색깔을 좇는 것을 깊이 삼가야 한다.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고, 색깔을 보고 마음을 밝히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진정한 수행자라면 소리를 올라타고 색깔을 덮어 일마다 밝고, 점점이 묘한 경지를 연다. 그렇더라도 어디 말해보라. 이때 소리가 귓가로 오는가. 아니면 귀가 소리쪽으로 가는가. 소리와 고요를 모두 잊은 자리에서 그대는 무어라고 말하겠는가. 귀의 총명함을 믿으면 실패할 것이고, 눈으로 소리를 들어야 비로소 확연해질 것이다."

*송하여 가로되, "터득하면 내집안 일이고, 터득하지 못하면 남의 일이다. 터득하지 못하면 내집안 일이고, 터득하면 남의 일이다."

鐘聲七條:

雲門曰, 世界恁麼廣闊, 因甚向鍾聲裏披七條. 無門曰, 大凡參禪學道, 切忌隨聲逐色. 縱使聞聲悟道, 見色明心, 也是尋常. 殊不知, 衲僧家騎聲蓋色, 頭頭上明, 著著上妙. 然雖如是, 且道, 聲來耳畔, 耳往聲邊, 直饒獨寂雙忘, 到此如何話會. 若將耳聽應難會, 眼處聞聲方始親. 頌曰, 會則事事同一家, 不會萬別千差. 不會事同一家, 會則萬別千差.



그림 · 이준석

동물은 행동을 본능에 의존한다. 강남갔던 제비는 봄이 되어 어느집 처마로 갈는 지를 알고 있고, 태평양의 연어는 산란을 위해 수천킬로를 헤엄쳐 오십천으로 돌아온다. 그들은 각각의 행동의 방향과 반응의 기제를 선천적으로 알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편리한 장치에 기댈 수 없다. 본능보다 이성에 의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일을 각자가 기획하고 선택할 수는 없다.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모를 막고 정신분열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사유와 행동의 틀이 미리 주어져야 한다. 숟가락을 쥐는 법에서 인사하는 법까지 교환과 통제의 룰은 선택 이전에 존재한다. 이를 작게는 관습 혹은 문화로, 거창하게는 전통 혹은 문명으로 부른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주어진 물질적 정신적 환경에 걸맞는 교환의 최적 코드를 발견하고 그것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런데 불교는 이를 세속의 원리(俗諦)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불교는 초기부터 구원(眞諦)의 이념에 걸맞는 새로운 공동체를 기획했다. 승가(僧伽)는 불교를 떠받치고 있는 세 가지 기둥(三寶) 가운데 하나이다. 역사상 수많은 제국이 일어났다 사라졌지만 이 가난과 청빈의 공동체만큼 오래 살아남은 조직은 다시 없다.

승가 역시 조직인 만큼 루틴에 매몰되거나 세속화될 위험은 언제나 상존했다. 새벽에 기상하여, 아침 예불과 공양, 낮의 휴식과 울력, 그리고 법문과 참구,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일과가 계속된다. 무슨 일이든 반복되면 쉬 익숙해지고 그래서 그 본래적 목표를 잊어먹기 쉽다. 운문은 지금 바로 그 나태와 안일, 그리고 자기기만을 다시금 깨우쳐 주고 있다. 종소리가 울리면 저번 덕산 노인처럼 밥그릇을 들고 식당으로 내려간다. 혹은 그 종소리에 대중들은 법당으로 몰려간다. 노스님의 일장연설이나 수수께끼문답, 혹은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를 일상적 행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눈먼 나귀처럼 소리와 색깔의 일상적 습관에 젖어 있다. 우리의 의식을 구성하는 것은 육근(六根)과 육진(六塵)이다. 소리를 듣고, 색깔을 구분하며, 그리하여 의식을 형성한다. 의식은 일정한 상황에 대해 효율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도구이다. 바로 여기에 명암이 있다. 불교는 일상적 의식의 기제가 근원적 자아에 대한 깨달음을 방해하고 있다고 증거한다. 의식의 파장은 그 속성상 대상을 아주 좁게 한정하며 그리하여 의식의 근원(如來藏)을 그 전체에 있어 발현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운문은 말한다.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어째 종소리만 울리면 옷을 꿰차는가." 광활한 세계란 일심(一心) 혹은 진여(眞如)가 연출하는 대자유의 무한법계를 가리킨다. 그곳은 지속적인 공안참구를 통해 인식의 고착된 프리즘을 걷어내야만 기약할 수 있다.

일찍이 소리나 색깔에 갇힌 칠통을 타파하여 그 너머를 본 사람들이 있었다. 향업은 무심코 던진 자갈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또 어떤 선사는 길가에 핀 흐드러진 복사꽃을 보고 귀를 열었다. "지눌의 표현을 빌면 땅으로 하여 넘어진 자는 땅을 의지해 일어난다." 소리와 빛 또한 마찬가지이다. 도구적 인습적 반연의 그물은 선의 황금곳간을 여는 열쇠일 수 있다. 무문은 그러나 그건 단지 열쇠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빗장을 따고 들어간 실제(實際)의 광경을 보여준다. 소리와 빛의 구분이 없고, 나와 남의 구분이 없으며, 같고 다름의 표지가 탈각한 그 무애의 걸림없는 세계를.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소리와 빛은 세 가지 의미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습적 차원이고, 둘은 방편적 차원이며, 셋은 구경(究竟)적 차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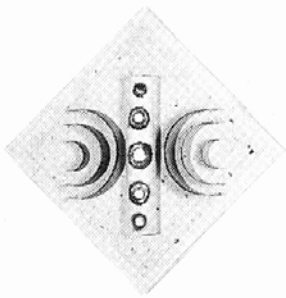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소리에 갇힌 칠통을 깨라"

고착 관념 걷어내야 무한 법계 열려

法數로 배우는 불교

〈31〉



◇최영애 作 '環向'

"악행 끊고 선행하며 마음을 맑게하라"

석가모니등 초기 일곱 부처님 가르침

인류 역사에 맨 처음 출현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에도 많은 부처님들이 존재 했었다고 말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포함해서 일곱 부처님들이 세상에 계셨다고 하는데 비바시불을 비롯해서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이 대표적이다. 가장 먼저 오셨다는 비바시불은 91겁전에 왕족으로서 태어나 파탈리수 아래서 성불하고는 3회의 설법만으로 34만의 중생을 교화 하였다고 한다. 다음의 시기불은 과거 장엄겁전에 역시 왕족으로 태어나 분다리수 아래서 성도를 하고는 3회의 설법을 하여 1회에 10만, 2회에 8만, 3회에 7만명을 제도 하였다고 한다. 세번째 비사부불은 31겁전에 마찬가지로 왕족으로 태어나 사라수 아래서 도를 이루었는데 1회에 7만명, 2회에 6만명에게 설법하여 교화 하였다고 한다. 네번째 구류손불부터 일곱번째 석가모니불은 현겁에 출현한 부처님들로 구류손불은 바라문의 종족으로 출생하여 사리사수 아래서 도를 깨닫고 1회의 설법으로 4만의 대중을 교화 했으며 구나함모니불도 바라문의 가정에서 출생하여 오잠바라수 아래서 성불한 다음 1회의 설법으로 3만의 중생을 교화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섭불 역시 바라문의 가정에서 태어나 니그로와 나무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한차례의 설법으로 2만명의 제자를 제도하였다고 하며 알려진 바와 같이 석가모니불은 가비라성의 왕족으로 태어나 보리수 아래서 성불했고 45년간 설법끝에 수많은 중생을 제도했다고 한다.

칠불통계게

그렇다면 일곱 부처님들이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들에게 설법하신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 과거의 일곱 부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설파하신 말씀을 요약한다면 불교의 정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라고 하는데 한 부처님 뿐만 아니라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내린 불법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제악막작(諸惡莫作)하고 중선봉행(衆善奉行)하여 자정기의(自淨其意)함이 시제불교(是諸佛敎)'니라로 무릇 온갖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행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맑힘이 모두 부처의 가르침이다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뜻은 다름아니라 악행은 조금도 하지말고 선행만 하되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자기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 청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참으로 간단명료해서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이다. 그래서였을까. 이 칠불통계게를 두고 내려오는 한토막 일화가 있다. 당나라때 항주의 도림선사라는 분이 계셨다. 고산의 영은사에 계시다가 후에 진망산에 계시게 되었는데 거처 하는 곳이 집이나 절이 아니라 큰 소나무 가지위에서 새처럼 지냈다. 하루는 이 도림선사에게 어떤 거사가 찾아왔다. 유명한 백거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는 유·불·선에도 능통할 뿐더러 당대의 시인으로도 추앙받고 있었고 지금의 군수직을 가진 벼슬아치였다.

백거이는 소나무꼭대기에 앉아있는 선사를 보고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도림선사는 오히려 장작과 불이 만나 서로 성한것 처럼 당신의 타는 마음이 위험하다고 핀잔했다. 백거이는 이번에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냐고 물었다. 이에 선사는 대답으로 칠불통계게를 읊었다. "악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만 하면서 마음을 맑히면 그게 불교지". 백거이는 실망을 하였다. "아니 스님 그것은 세살짜리 아이도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물음에 "세살짜리도 말은 할 수 있으나 팔십먹은 늙은이도 행하기가 어렵다네"하고 선사가 답했다. 백거이는 그 자리에서 절을 했다. 불법은 아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일화를 지금도 불문에서는 널리 알려져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터이다. 악을 그치기도 어렵고 선을 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것은 자기의 마음을 깨달아 청정을 이루는 일이다.

작은 악이라도 범하지 말고 작은 선이라도 실천하면서 마음을 자꾸 맑혀가는 공부를 지속하는 것이 일곱 부처님의 뜻에 부합된 불자의 생활인 것이다.

이 제 열 〈유마선원장〉

불교와 수학

25

無와 0의 사이

김 용 운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0



'0'은 數의 근원…"없는 것이 존재한다"

유마의 침묵 문답 초월한 '無'와 상통

"철학적인 냄새가 짙은 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수의 기능만을 다루었던 수학자들도 일단 이 물음에 봉착하면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고, 예로부터 수학자와 철학자는 이 물음에 온갖 입장에서 답을 제시해 왔다.

모든 존재의 근원적인 존재 양식 0라고 믿는 피타고라스의 '모든 것은 수'라는 것이 있다. 그는 수를 염주처럼 '0 0 0 … 0'와 같이 직선 상에 배열된 열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수열을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B.러셀은 "인간이 두 개의 들과 두 마리의 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1대1 관계가 성립되고 2를 추상해 낼 때 비로소 문명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극적인 표현을 했다. 이 같이 수를 인식하게 되자 수들 가운데 1, 2, 3 …과 같은 물건의 개수를 나타내는 수가 맨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없는 것을 나타내는 0은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생각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수는 아무리 큰 것일지라도 어디까지나 존재하는 대상이 있을 때에 한해서였고 '없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명제에 도달하기까지는 더 많은 철학적인 사유가 필요했다. 수학사에서 처음으로 수에 0을 편입시킨 민족은 '무'의 존재를 적극 내세운 불교 철학을 가진 인도였다. 일단 영을 수 세계에 받아들이고 보니 수학자들은 모든 수는 0으로부터 하나의 법칙(연기의 理)에 따라 차례로 나타나게 됨을 알게 되었고 수의 근원이 0임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6세기초 중국 남조 양(梁)의 무제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진 부대사를 궁(宮)으로 불러 "수많은 불교 경전이 있는데, 도대체 그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부대사는 아무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답답해진 무제는 "빨리 말씀을 하시오"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을 뿐이었다. 이때 무제를 가까이 모시던 보지화상이 방에 들어와 "황제시여! 대사의 설법은 끝났습니다"라고 말했다. 부대사가 말하고자 한 것은 '무(無)'이며 말이 아닌 온 몸으로 최고의 답을 제시한 것이다.

〈유마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문수보살을 포함하여 32명의 보살들이 차례로 문병을 하며 병상에 있는 유마거사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마지막 대화의 주제는 '절대불이(絶對不二)'의 법문에 관한 것이었다. 문수보살이 말했다. "내 생각으로는 일체의 법에 있어서 말씀도 없고, 경도 없고, 나타내는 바도 없고, 알 바도 없고, 모든 문답을 초월하는 것, 그것이 곧 불이(不二)의 법문, 절대세계로의 입문이라 생각됩니다."

마침내 유마거사가 절대불이의 법문을 설명할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유마거사는 아무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있었다. 이것이 〈유마경〉의 진가를 나타낸 장면이다. 유마의 침묵의 여뢰(如雷, 벼락과 같다)로 표현되는 대목이다.

침묵, 말이 없다는 사실은 모든 표현을 초월하는 최고의 경지, 절대의 세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언어도단의 세계이다. 말이 나올 때는 이미 존재의 일부만을 잘라 내어 전체를 표현하는 것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이야기는 수의 세계로 돌아간다. 수를 가시화 하는 방법의 하나로 수직선이 있다. 0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무한히 뻗은 직선 상에 일정 거리를 두고 ±1 ±2 ±3 … 이 뻗어 있다. 이들 모두가 하나의 법칙(理)에 따라 상호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굳이 이들 수를 표시하려면 존재를 설명해야 한다. 수는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보편언어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의 대오(大悟)는 마음의 세계이기에 절대의 경지에 비약할 때 남을 의식하지 않는 언어도단이 설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 명절을 기하여 특별봉사 기간을 만들어 할인 판매합니다 ◆

『국내 최초 고급비단천 10색칼라 완제품』

석가 세존 일대기 팔상록 부모은중경(금강경 반야심경) 8폭 병풍 보급

▼ (전면) 부모은중경



▲ (후면) 반야심경

귀의 삼보하옵고

본 성불불사 포교원은 2,000만 불교도의 불심정진과 바른신행생활을 위하여 우주의 근본이며 사생의 자부이신 석가세존(부처님)의 장엄하신 위엄과 구도를 널리 깨닫게 하고저 一念의 포교 차원에서 전통불화와 공예품을 발굴하여 작가의 독특한 예술적 정화를 통해 하나하나 불교혼을 불어 넣어 실채감 있게 살아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출품하고 있습니다.

각 사찰은 물론 가정과 사무실에 一品씩 소장하시여 항상 직접 보고 깨달음으로 더욱 크신 佛心 경지를 달하게 할 것이며 특히 佛心을 모르는 수많은 중생들까지 佛心을 심어 하시는 일이 부처님의 가피원력으로 모두 이루시고 佛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충분하시길 합장 발원하옵니다.

특별 할인 가격 (신용카드 18개월 할부가능)

● 팔 상 록 : 360,000 ● 부모은중경 : 380,000

성불 불사 포교원

■ 문의처 : 02)831-2848~9 / 02)831-7075

수신자부담 전화 : 080)284-2848

■ 팩 스 : 02)831-2849

●작품규격 : 5.5尺 × 폭 12尺 ●표구재질 : 고급실크지 수입스기목

▼ (전면) 팔상록



▲ (후면) 금강경

시방세계

불교성지순례 전문
혜초여행사
해외여행 · 항공권 · 여권비자 수속
안국동 로타리(조계사앞)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 B/D 3층
전화 : 代 (02)733-3900



◇고희를 맞아 춤인생 60년을 결산해 지난 4월8일 열린 '아! 김백봉' 공연에서 휘니레 '보살춤-만다라'를 추는 김백봉씨.



산문밖의 禪 무용가 김백봉씨

"왜 춤을 추는가" 60년 춤 외길 화두

한 동작 한 몸짓
육체의 움직임은
허공에 사라지지만
춤과 내가 하나되어
내마음 가있는 자리
무아 이루면
보는 이들도
용화세계를 향해
한마음이 됩니다

"왜 춤을 추는가?"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 춥니다."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경봉스님은 김백봉을 보자 말없이 한참 쳐다보더니 불쑥 한마디 질문을 던졌다. 얼떨결에 나온 대답. 그후 김백봉은 무대에 오를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질문과 대답을 반복하곤 했다. 경봉스님은 이날 '백봉(巳峰)'이라는 이름이 너무 고고하고 외로운 이름이라며 '취봉(翠峰)'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었다. 이 법명은 이후 김백봉 이름앞에 늘 붙어다니는 호(號)가 된다.

왜 춤을 추는가. 이말은 60년 춤을 추는 동안 김백봉이 늘 자신에게 던진 화두이며 제자들에게도 쉼없이 강조하는 질문이다. 13세때 무조건 좋아 들어온 춤의 세계. 그 60년이 어느새 휘어져 감기운 순간의 춤동작처럼 잠깐이란 걸 고희를 맞은 요즘 느낀다.

그는 지난 4월 8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춤인생 60년을 결산하는 '아! 김백봉' 공연을 가졌다. 제자 2백여명과 함께 대표작 명무(名舞)들인 '화관무' '선의 유동' '무당춤' '청명심수' '부채춤' '장고춤'을 선보이고 마지막을 '보살춤-만다라'로 장식했다. 천수관음보살의 자비를 상징한 이 춤이 끝나자 객석은 감격에 겨운 숙연함과 환희심이 파도처럼 일었다. 감동에 겨운 나머지 흐느끼는 관객들도 다수였다. 108번뇌로 상징되는 고단한 인생사, 삶의 질곡 하나하나를 다독여주는 천수보살의 무한히 따사로운 자비, 성스러운 동작과 부드럽고 절제있는 손짓 하나하나가 보는 사람들에게 연민과 자비심을 일으켜 마침내 용화세계로 향하는 마음 하나로 집약시킨 것이다. 그의 마음도 그속에 녹아 있음은 물론이다.

"춤 한 동작 한 몸짓이 순간이고 그냥 허공에 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형인 춤을 어떻게 남길수 없을까 참 아쉬웠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나면 왠지 허탈감도 들었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걸 느꼈습니다. 최선을 다한 완벽한 춤은 보는 관객들의 마음에 영원히 각인되고 그 감동은 평생을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육체를 움직이지만 사실은 영혼으로 추는 것이 춤입니다."

이제는 한국 춤의 대명사가 돼버린 화관무와 부채춤은 그의 대표작들이다. 1947년 초연된 화관무는 태고의 태평시대를 기리는 춤이다. 궁중복식으로 전통적인 멋을, 한삼으로 그려내는 유연한 멋을 표출한 화려하고 우아함이 특징이다. 특히 부채춤은 화사한 부채를 펴고 접으며 리듬을 따라 흐르는 춤이 우아함의 극치를 이룰뿐 아니라 경쾌 장엄한 춤사위는 보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이 부채춤은 지난 1954년 김백봉이 초연한 이후 급속도로 퍼져 우리 무용단의 외국공연때면 빠짐없이 공연되는 대표적 춤이다.

"1953년인가 어느날 꿈을 꾸었어요. 온몸이 금색깔인 어느 분이 부채 하나를 주면서 '부채를 펴 봐라. 방방곡곡이 향기가 날 것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채를 받아 확 펴고 도니 법당에 운무가 깔리고 향냄새가 자욱했습니다. 내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 '부처님이다' 해 뵈려고 머리를 드니 얼굴은 안 보이고 다리와 손만 보이더군요."

꿈에서 영감을 얻은 그는 그때부터 부채를 사려고 돌아다녔다. 돈이 모자라 삯바느질을 해 어렵사리 부채를 사고 소도구를 장만해 선보인 부채춤은 단번에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그렇게 창작 안무한 작품이 무려 6백여편.

그는 기교로만 추는 춤을 단호히 거부한다. '살풀이'를 춘다면 단순히 동작만으로의 춤이 아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달랠수 있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서늘한 기운을 느낄수 있도록 내적으로 몰입해야 한다는 말이다.

"춤이란게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잘 추어지는 게 아니예요. 춤이란 한동작 한동작이 '내마음이 가 있는 자리'입니다. 무대에 나가면 일단 아무 생각도 안나요. 무아(無我)가 돼야 하지요. 춤추는 그 자체에만 몰입하다 보면 춤이 나인지 내가 함인지 구별이 안가는 경지까지 가지요."

어릴때 무척 춤을 배우고 싶어하는 딸에게 춤을 가르쳐주기 위해 아버지(김병삼)는 딸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거지가 밥얻으러 오면 할아버지 밥을 먼저 푼 다음에 거지들에게 따끈한 밥을 한주걱씩 퍼 주는 일을 매일 했어요. 손님이 오면 따뜻한 아랫목을 양보하고 추운 윗목에서 자곤 했어요. 부모님이 광상심으로 베푸신 공덕때문에 내가 이만큼 된 것 같습니다."

나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부부 이웃 사제(師弟) 등의 연(緣)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씨를 뿌리고 가꾸면 후대에 가서 그 열매를 따게 되는 것이란 인과의 도리를 나이들수록 확연히 깨닫게된다.

수백명이 넘는 그의 제자들은 '김백봉 춤 보전회(회장 유학자 공주대 무용학과 교수)'를 결성해 매년 공연을 갖는다. 한국무용계의 선구자며 이제는 무용계의 신화가 되어가는 김백봉의 춤맥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글=이경숙 사진=고영배 기자



◇김백봉씨가 꿈에서 영감을 얻어 창작한 '부채춤'. 세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적 한국춤이다.



◇1952년 25살때의 김백봉씨.

최재수첩

최승희 수제자… 두딸 세손녀도 '춤꾼'

김백봉씨는 '전설적 무용가' 최승희의 수제자이자 동서지간이다. 13세 어린 나이에 일본 동경의 최승희를 찾아 무용에 입문하게 된 그는 10여년을 최승희밑에서 발레 현대무용 중국무용 등 모든 춤을 배운다. 최승희의 남편은 1920년대 유명한 문필가였던 안막(본명 안필승). 김백봉은 17세때 안막의 동생인 안제승씨와 결혼해 최승희와는 동서지간이 된다.

해방후 안막 최승희, 안제승 김백봉 부부는 월북했다가 안제승 김백봉부부는 6·25전쟁이 발발하자 아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른다. 북한에서의 활동을 이유로 곤혹을 치른 김백봉은 이때의 어려움을 춤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풀어나간다. 이 와중에서 박기홍씨를 만나 승무를 전수받고 이동안씨에게서 태평무와 승무를 전수받는다. 또한 화관무 부채춤 장고춤 산조 등 연이어 창작무를 선보였다.

지난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의 개막식 총괄안무로 우리춤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했다. 지난해 타계한 남편 안제승씨와 같이 경희대 무용과의 교수로서 지난 93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후학들을 지도해 왔다. 안씨는 무용학의 이론을 세운 인물로 무대 총체예술에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 김백봉씨의 공연에 많은 도움을 주어왔다.

김백봉은 후진양성에도 많은 열정을 기울여 유학자(공주대) 엄옥자(부산대) 유옥재(강원대) 박연진(효성가톨릭대) 이영희(국립 경상대) 김말애(경희대) 김현숙(단국대) 전은자(성균관대) 장인숙(전북대) 장유경(계명대) 교수 등 많은 제자들을 길러 무용계의 중진으로 배출했다. 두 딸(안병헌 안병주)과 세 손녀도 뒤를 이어 춤을 전공하고 있다.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영결식장인 불국사 범영루앞에서 월산스님의 법구가 부처님께 하직인사를 하고 있다.

월산스님 연보

△1912년 5월1일: 함남 신흥군 동상면 원평리에서 경주최씨 흥규(興圭)거사와 모친 조(曺)씨 사이의 3남2녀중 둘째로 출생.

△43년: 안변 석왕사에서 금오스님 은사로 득도.

△44년: 도봉산 망월사에서 금오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45년: 동산스님 계사로 비구계 수지.

△48년: 청담 향곡 자운 성철스님등과 문경 봉암사에서 공주청규(共住淸規)를 만들어 교단혁신을 위한 승풍진작.

망월사 수선안거이후 41안거 성만.

△54년: 금오스님모시고 교단 정화불사에 앞장섬.

△57~61년: 법주사 신흥사 동화사 주지 역임.

△68년: 금오스님으로부터 인가받고 조계종 덕숭선맥 계승, 법주사 조실에 추대.

△69년: 조계종 총무원장 취임.

△70년: 한국종교협의회 초대회장 취임.

△74년:불국사 주지 취임. 불국사 중창 및 불국선원 개원.

△78년: 조계종 제6대 총무원장 취임.

△86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취임.

△88년: 법보신문 창간.

△89년: 남북통일 기원 통일대종(토함산, 6천관)조성.

△97년9월6일 불국선원에서 열반할 때까지 불국사 불국선원, 법주사 총지선원, 괴산 공림사 심인선원, 문경 대승사 대승선원, 속리산 복천암선원, 영일 자장암 운제선원, 산청 정각사 죽림선원 율진 불영사 천축선원, 속리산 수정암선원, 문경 윤필암 사불선원, 경주 흥륜사 천경림선원 등 제방 선원의 조실로 도제양성.

추 모 시

回向 月山大宗師

高 銀〈시인 · 본지 논설고문〉

앉으면 천고의 범종(梵鐘)이요
일어서면 9층탑이 셨습니다.
월산대종사

젊은 날 부만주 벌판 떠돌며
그 눈보라 속
가슴 벅찬 사람
대지의 사람이셨습니다.

해방 직전 돌아와
한 나그네의 〈금강경〉 독송에 눈 떠
옳거니
생사를 뛰어넘자고
산중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경허
만공
금오의 법맥으로 하여금
버린 것은 망상이요,
가진 것은
이 뭣고 하나.
보름달 흰히 두둥실 떠올랐으니
만상의 괴괴함이여!

동방의 선풍(禪風) 새로 짓기 위하여
그 결사로
청담 성철 향곡 등과 한 뜻이었고
동방의 법 떨치기 위하여
그 정화로
탄허 구산 관응 월하 경산 등과
애오라지 한 몸이셨습니다.

그 많은 진수성찬의 말씀
삼가셨습니다.
그 많은 청천벽력 할과 방
그대로 두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토록 월산스님
새 때 돌아간 적막일 즐이야.

거기 당신의 중도(中道) 가운데
닳고 닳은 신발 한 짝이셨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촉령 쪽입니까
덕숭 쪽입니까
개마고원 쪽
홍안령 쪽입니까
오늘 일은 토함(吐含)회상입니다.

큰스님 수행한담

"줏대가 바로서야

한국선종불교의 큰 선맥(禪脈) 성림당 월산대종사가 9월6일 세수 85세, 법랍 54세로 원적에 드셨다. 이 수행한담은 화가 이호신씨가 '국내' 원로스님들을 직접 만나 법을 묻고 근영을 스케치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내기위해 준비해 둔 것이다. 작가 이호신씨는 '이제 큰스님께서 원적에 드셨으니 책으로 엮기 전에라도 그분의 선미를 함께 나누고 싶어 현대불교 독자에게 공개한다'고 말했다. 이호신씨가 큰스님을 만난 시기는 95년 늦은 가을날 이었다. 스님의 유덕을 기리는 뜻에서 추모 수행한담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화가 이호신씨가 뵌 **월 산 스 님**

누렁이 등짝 같던 들녘이 회색빛으로 바래고, 단풍 또한 제 빛깔이 겨운 시간을 헤쳐 불국사 일주문에 이른 어느 가을 저녁이었다.

토함산 불국사를 등에 지고 바라보니 멀리 단석산 아래 선도산, 송화산 그리고 남산자락이 농담(濃淡)의 깊이를 나누고, 노을은 다홍빛에서 선연한 주홍빛으로 하루를 찬란하게 마감하고 있었다.

이미 출입이 통제된 불국사 일주문 앞에서 지난 시간을 잠시 접어두고, 월산(月山) 큰스님의 친견을 위해 달려온 오늘의 인연이 마주할 또다른 인연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다.

천년 고찰 불국사의 오늘을 지키는 월산 큰스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불국사 뒤란의 '불국선원'을 찾아 큰스님을 뵙고자 하니, 일몰 이후에는 일절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신다는 시자 스님의 말이 댓잎 소리에 실려온다. 나 또한 그 대답을 예견이라도 한 듯 무덤덤히 시자 스님이 이끄는 대로 선원 아래 요사채에 짐을 풀고 마을로 내려가 늦은 저녁을 들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따라 불국사는 객들 때문에 꽤나 분주했을 것 같다. 강택민 중국 주석이 다녀간 모양인데, 이제 산사의 정적을 되찾을 시각이 되자 식당의 생중계 TV 화면에는 구치소로 향하는 노태우 前 대통령의 모습이 이날이 국치일(國恥日)임을 증언한다. 세상이 아무리 막돼먹었기로 국가 원수가 백성의 간을 잘라먹었다니…….

씁쓸한 기분으로 어둠이 짙은 토함산 기슭을 오르자니 별이 성근 솔숲 아래 불국사가 잠들어 있고, 다시 선원에 이르러 앞산을 바라보니 인공의 불빛이 자연의 별빛과 어우러져 하늘과 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인공의 불빛과 자연의 별빛, 이 부조화의 조화에서 나그네는 세속의 삶과 산사의 정진은 또 얼마나 멀고 얼마나 가까운가를 헤아려본다.

이튿날, 쓸 것도 없는 뜨락의 비질 소리에 깨어나 대밭을 병풍처럼 두른 불국선원(佛國禪院)을 찾았다. 현액은 강암(剛菴) 송성용(宋成鏞)의 글씨인데 그아래 주련의 글귀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오도자불입(悟道者不入)'. 마땅히 나그네의 발길도 쾌히 수락되리라.

경봉 스님의 현액이 걸린 '염화실' 마당 가운데에 선, 석가탑을 그대로 본떠 만든 3층석탑이 불국선원다운데, 큰스님의 첫인상은 호방한 풍모의 선지식이라는 느낌이다. 안경테 위로 수려한 흰 눈썹이 선승의 위의를 더해주나 조금 거동이 불편해 보였다.

20년 전(1974년)에 직접 선원을 지으시고 8년 전에 석탑을 조성하셨다는 말씀을 시작으로 이른 새벽에 찾아든 나그네에게

> 사대가 바뀌어도
> 가치관과 계율
> 지켜져야 합니다
> 불교의 궁극은
> 중생의 정신적 초탈

질문을 허락하신다. 결례를 무릅쓰고 방안을 둘러보니 창호지로 걸러진 아침햇살이 방안을 따스하게 밝혀 주고 향로와 다기, 서안과 병풍 등이 스님의 성품을 내비치듯 운치를 더해 주고 있었다.

말씀을 나누며 친견의 의미를 더하고자 초상의 밑그림을 그릴 참인데 스님께서는 한사코 사양하시니 일은 시작부터 낭패다. 그림 그리는 일이 업인지라 말보다는 붓놀림이 쉬운데 이 일을 어쩌랴. 생각은 구멍이 나고 말문은 꽉 막힌다.

하지만 어렵사리 찾은 길 그냥 물러설 수 없는지라 떫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먼저 '경주 고속전철 사태'에 관한 불국사 조실스님으로서의 소견을 여쭈었다.

"그 문제 때문에 참으로 말들이 많아요. 따질 것 없이 근본적으로 문화재는 보호되고 지켜져야 합이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간 경주 시민들이 감당해야 했던 불편함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네들도 부당함을 주장하는 한편 문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석굴암과 함께 불국사가 유네스코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면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되면 우리 마음대로만 해서는 안되는 현실이 될테니까요. 온 인류의 자산이요, 문화 유산으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경주의 문화는 결코 경주 시민의 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쉽사리 도심내 전철 통과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고속전철에 관한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이 문제는 자연스레 문화 유산 보호 차원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가본다.

- 스님, 불교의 전통에 비추어 오늘의 불교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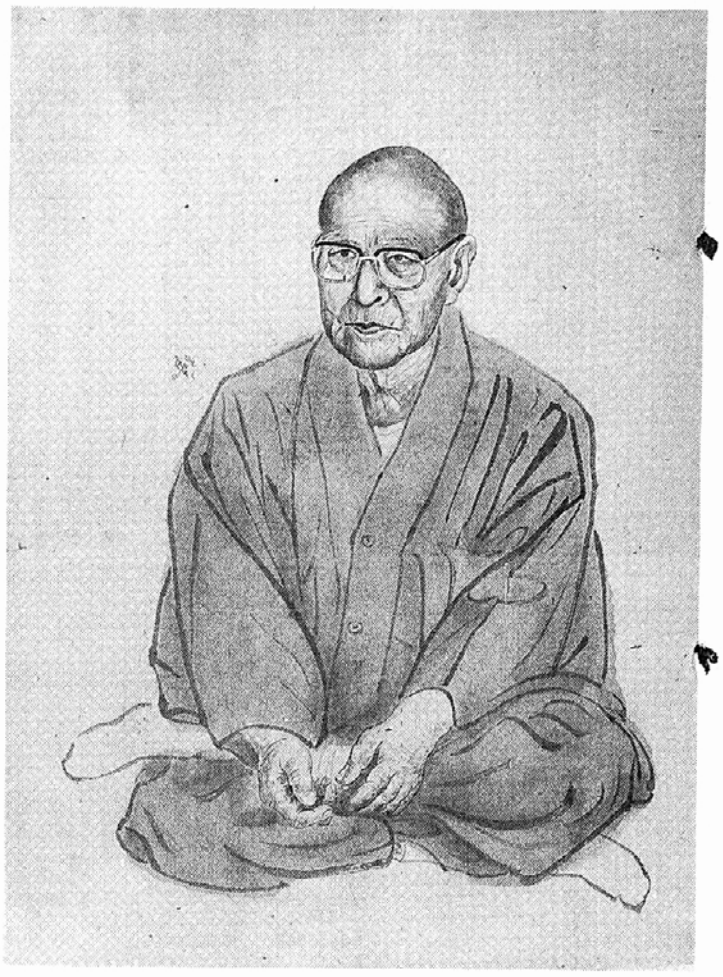
조심스런 질문에 스님의 즉답은 명쾌하다.

"시대가 바뀌어도 불교의 가치관과 계율은 그대로 지켜져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 수행하는 수도승은 특히 이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의 불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합니까?

"그것 또한 똑같아요. 예전처럼 불(佛)·법(法)·승(僧) 삼보를 따라야 합니다. 요즈음 보면 절에 가서 점이나 보고, 병을 고쳐준다는 절이 있는 등 삿된 불교가 횡행한다 하니 걱정이 됩니다. 불교는 인간의 정신적 초탈의 궁극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 어쨌든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시대



◇한국 선종불교의 큰 선맥 월산스님.

생활속의 불교 (138)

더 높게 더 넓게 더 깊게 더 멀리 …

"모든 존재는 마음의 차원대로 그 수준에서 각각 살아가게 마련이다. 아이들이 어른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같은 중생간에도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마음으로 사람이 지옥고에 떨어지기도 하고 바로 승천하기도 한다. 마음 한 번 잘못 쓰는 데서 그만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생들은 마음씀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산다.

천상의 복, 지옥의 죄가 다 한생각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오관을 통해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맡고 맛을 알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분별의 생각을 짓는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겉 모습에 불과하다. 이른바 본다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의 범위 내에서 밖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는 것에 불과하다. 가시권 밖은 애시당초 볼 수 없으며 겉껍질 안쪽도 볼 수 없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정한 주파수를 지닌 소리 밖에는 듣지 못하고 그나마도 내 귀에 들리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게 아니다. 촉감으로 느끼는 것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도 다 그렇다.

드러난 형상 이외에 그 속내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오관은 사물의 실상 중에 극히 제한된 부분과 맞닿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고집을 부린다. 다 보았고 다 들었으며 다 안다는 식으로 말하고 행동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알려고, 더 보려고, 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 보았다고 단정짓는 사람이 무엇을 더 보려고 하겠는가. 다 안다는 사람이 무엇을 더 알고자 하겠는가. 결과는, 끝내 실상을 외면하고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삶으로 남게 된다.

보이는 세계의 이면에 감춰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

들리는 세계, 부딪히는 세계를 넘어 그 뒤쪽을 느낄려고 노력해야 한다.

선사들께서 눈 아닌 눈, 귀 아닌 귀를 통해 보고 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 세계를 느껴야 한다. 그러자면 보이는 세계를 넘어서는 경계, 드러난 세계 이면의 속내를 느껴야 한다. 마음의 눈으로, 마음의 귀로 보고 들으려 해야 한다. 마음이 아니고서는 겉 모습의 벽을 넘어설 수가 없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오온(五蘊)이 공한 경계는 마음의 눈으로 비춰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들은 대체로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내 눈에 보이는 경계, 내 귀로 들은 경계만을 고집하고 거기에 집착한다. 그 밖의 세계는 아예 수용할 생각조차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남이 본 세계, 들은 세계를 긍정하려 하지도 않는다.

마음은 본래 광대무변하여 울타리가 없는데도 그런 내 마음을 내가 본 세계, 내가 들은 세계에 묶어두려고 한다. 스스로 통 속에 갇히려하고 스스로 깔대기 속으로 좁디좁게 찾아 들어가려고 한다.

그래서 스스로 소견머리가 좁은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관념세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반대로 통 좁은 인간, 편협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진다.

마음이 좁아지면 세계가 좁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면 세계가 넓어진다. 경계를 보고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이 일어났을 때에 마음을 넓게 좋게 돌리면 미운 생각, 싫은 생각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미쳐 느끼지 못했던 세계가 분명 새롭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생각을 놓지 못하고 키우면 어찌 되는가. 마음은 그 순간 화탕지옥으로 확져든다. 울화가 치밀고 미운 마음이 가슴 저 밑바닥에서 솟구치게 된다.

예불문에서 '원컨대 이 몸이 화탕지옥에 들게 되면 그 화탕이 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하고 발원하지만 돌아서서는 스스로 화탕지옥을 만들고 그 속에 뛰어들려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코앞에 것을 보지 말고 더 멀리 보라. 발밑을 보지 말고 더 넓게 보라.

목전의 이익을 좇지 말고 더 높게 멀리 보라.

사물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더 깊게 그 속내를 보려고 애를 써라. 한 생각 돌리고 못 돌리고에 따라 행과 불행, 극락과 지옥이 갈아드는 것을 느끼게 되리라. 분명히.

협 찬 : 이 관 형

큰스님 수행한담

개인이나 국가번성”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는 공부 쌓여야 제향기 제빛깔 드러낼수 있어요”

“공인은 사심을 보여서는 안돼요 지도자는 종교 믿어도 드러내지 말아야”



◇월산스님이 주석하며 제방의 선수행자를 제접했던 불국선원 전경.

“천지와 나 한뿌리 알면 대립없어요”

불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종교관과 생활관은 어떠해야 하는지요.

“신라시대 때는 왕사나 국사가 있었지요. 그들이 국정의 자문 역할을 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야말로 자유 민주의 시대라, 어떠한 하나의 가치로 통합하기엔 난감한 시대입니다. 따라서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일수록 줏대를 지녀야 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주변 강대국의 눈치나 보고 의지해서는 민족의 줏대가 사라집니다. 한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는 특별히 줏대가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번성할 수 있습니다. 정신문화연구원이란 곳이 참 중요한 곳인데 무엇들을 연구하는지……. 정말이지 우리에게 맞는 사상을 찾아야 하고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예컨대 인도의 경우, 그네들은 근검을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지 않아요.”

스님께서는 계속 ‘줏대’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전직 대통령의 부정 축재에 관해서도 그 인간됨이 줏대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셨다.

요컨대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줏대’란 민족 자존에 다름 아니며 무분별한 세계화의 구호 속에서 제 향기와 제 빛깔을 드러내는 참된 삶의 가치인 것이다. 그렇다면 줏대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까.

- 스님, 그렇다면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불자로서의 생활 철학이랄까 수행 지침 같은 것이 있을 법한대요.

“나는 한마디로 참선을 권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줏대없이 남을 따르지 않고 자신으로 돌아오지요. 소원을 성취하고 천하를 얻으려면 참선을 해야 합니다.”

- 참선 수행을 위해서는 꼭 선지식을 찾거나 종교를 통해야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어디 사람의 마음이 일어설 때 다르고 앉을 때 다른가요. 불교 외에 기독교나 유교에서도 좋은 것은 따르세요. 지금은 열린 시대입니다. 전세계가 한집인데 자기 식의 고집이나 욕심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분명한 줏대가 있어야겠지요.”

- 말씀에 감읍합니다만 현실의 갖가지 모순 앞에 서면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회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몰아내는’식의 사회 현상을 보면서 진실의 왜곡과 정의의 현실적 부재를 항상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가치의 충돌이 빚어내는 현상에서도 배울 것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노 前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그가 금생에 벌은 받지 않아도 내생에는 반드시 그 빚은 갚아야 하고 다음 또 다음생까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정의와 진실은 결코 오도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 뵐 때의 어려움과 어색함은 한 시간의 질문과 대답 속에서 편안한 자리로 바뀌어 있었다.

이어서 20세기를 마감하는 오늘, 21세기의 전망을 여쭙자 기다렸다는 듯이 고유 문화의 보존과 창달이 관건임을 피력하시며 우리 민족이 고쳐야 할 점을 일러 주신다. ‘없어도 있는 체’ ‘몰라도 아는 체’ 하지 말라고.

특히 스님께서는 교육의 방법과 질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며 학교와 가정의 긴밀한 협조와 역할 분담을 강조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인이나 지도층이 우선하여 실천해 보일 것을 당부하시니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대화의 영역이 지식인이나 지도층에 이르자 빙그레 웃으시며 뼈 있는 한 말씀을 잊지 않으신다.

“공인은 사심을 보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지도자는 (개인적으로) 종교를 믿어도 겉으로 드러내서는 안됩니다. 오늘처럼 다종교 사회에서는 오해살 일은 스스로 삼가야지요. 국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지도자의 종교적 편향이 지역 감정 못지 않은 병폐라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스님의 말씀이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드시니, 불쑥 찾은 나그네로선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은 셈이나, 다시 뵐 날 기약하기 어려울 것 같아 평소 담아 두었던 의심보따리를 풀어본다.

이른바 오늘날 한국 불교가 안고 있는 화두의 한 가지인 ‘생활 불교’, 다시 말해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 스님, 어떻게 사는 것이 삶이 곧 불법인 경지입니까. ‘생활 불교’에 관한 한 말씀 주시지요.

“불교가 아무리 숭고하고 지순한 진리라 할지라도 일상 생활 속에서 추구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한동안의 은둔 생활도 유용하기는 하지만 자기와 동류인 중생을 버리고 자기만의 행복과 구제에 대해 생각하며 일생을 보낸다면 분명 자비 정신이 근본인 불교와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말로는 그럴듯하게 자비를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증오의 채찍을 휘두른다면 이 또한 진리를 거역하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웃을 위하는 자비와 보시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는 것이 최선이지요.”

또한 스님께서는 불제자로서의 최고 실천 덕목인 팔정도(八正道)의 ‘중도(中道)사상’을 크게 강조하시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신다.

“만법이 혼연융합된 ‘중도의 실상’을 보아야만 천지가 나와 같은 뿌리요 만물이 나와 일체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과 대립의 현실을 조화로서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 뜻에 부합되는 것이지요.”

‘중도의 실상’이라. 언제쯤 우리는 만물의 뿌리와 천지간이 하나라는 굳건한 믿음과 연대의 실상을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자연과 인간의 친화 또한 본질적으로 상생(相生) 관계가 아니던가.

‘이것이 있는 까닭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는 까닭에 저것이 생겨난다.(此有故彼有此起故彼起)’는 사물과 우주의 본질을 긍정하고 드러내는 일을 또하나의 화두로 챙겨본다.

끝내 스님께서는 너그러운 미소로 나그네의 세간사를 위해 염화실 마루에서 잠시 포즈를 취해 주시니 그 뒤로 ‘참으로 맑고 투명한 계곡과 산(谿山淸眞)’이라는 추사 만년의 글씨가 노원(老院)의 현액으로 잔잔히 빛난다.

인사를 드리고 ‘불이문(不二門)’을 나서는데 느닷없이 산새들이 감나무로 날아든다. 꽃처럼 내달린 까치밥과 산새들. 아, 저것이야말로 ‘불이(不二)’의 진정한 표상이 아니던가.

글 · 그림 이호신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문 견성이란 무엇입니까?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말기라하시는데 그러면 주인공이 발현되어 이끄는 것을 견성이라하는지요? 그러나 견성했다는 스님들의 행적이나 어록을 통해 보거나 또는 경전은 내면으로부터 어떤 이끔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분들은 어째서 내면의 이끔에 대해 언급하지 아는지 궁금합니다. 〈오진웅 · 전북 김제시 옥산동〉

답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묘가 두개 있는데 하나는 자식의 묘요 하나는 애비의 묘다. 그런데 불현듯 내가 내게 묻기를, 애비가 자식에게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에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는데 그 도리가 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견성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말로 하고 글로 써놓기도 하지만 그것을 아무리 잘 알아듣고 터득하는 바가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증득한 것 하고는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게 아니지요. 내가 어느 때, 무엇을 할때, 어떤 이름으로 불릴때 ‘나’라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되었다가 때로는 자식이 되었다가, 또 오빠, 여보라는 이름으로 그 노릇을 하니 나는, 고정된 나는 없더라, 그러니까 그대로 공이더라, 내 몸도 고정되게 그대로 있질 않고 공해서 돌아가니 ‘나’라는 게 없다 이겁니다. 모두를 이걸 잘 알아야 하지요. 나라는 것은 전부 공했다, 그러니 없다, 천차만별 이름따라서 바퀴가 굴러가듯 돌아가니까 고정된 나가 없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그 ‘나’를 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론으로 경전으로 나는 공했다더라 하고 아는 것하고 생활 속에서 마음으로 증득하는 것 하고는 크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수행할 때 한마음주인공을 주장자로 삼아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고서 나오는 대로, 부딪히는대로 다시 놓고 또 나오면 또 놓고, 놓고 또 놓아 앞엣 것 없어지고 하다보면 전체가 포괄적인 한마음인 것을 증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아는 게 많아서 항상 내가 붙어다닙니다. 그러나 모든게 공해서 본래는 나라는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그냥 여여하게 돌아갈 뿐이지요.

엄마 아버지가 애를 생산하는데 애만 생산이 되어서 나왔어요, 애쓴 사람은 다 없어지고 말입니다. 입자와 입자가 작용을 하니까 그게 질량은 다 없어지고 에너지 광력만 나오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나와 작용하는 것까지 다 놓아야지 내가 했다고 붙잡을 게 없습니다.

주인공에 놓으라는 것은 과녁없는 과녁을 한가운데로 쏘아 맞추라는 말입니다. 전체를 원이라면 그 중심을 꿰뚫는게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바로 쏘아야지 중심에서 벗어나 여기 맞추고 저기 맞추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어렵습니다.

이 놈이 뭘꼬? 할게아니라 이 놈이 다 집어먹고 다 내놓는 놈이라는걸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야 합니다.

왜 바닷물이 넘치는 지요

문 지난번 백중사리때 바닷물이 넘쳐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천재지변의 예방책은 없는지요? 그것도 인과법칙 인지요? 〈박성수 · 서울 옥수동〉

답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러나 바닷물이 뒤집히는 것을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도 죽이는 도린가 아니라 살리는 도리가 있습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 - 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 - 4162 팩스 : (02)737 - 0698

약(藥)이 되는 신비한 식물 — 백화사설초
암을 퇴치하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입증된
기적의 한국산 약초

신비의 약초 백화사설초
「암」치료에 탁월

백화사설초(白花蛇舌草)가 간암·직장암·식도암·방광암·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던 바 불심짙은 우바이가 백화사설초의 효능을 몸소 체험한 후 재배를 확대,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신농산 대표 김나진자 보살은 C형간염·황달·당뇨 등이 겹쳐 사경을 헤매며 각종 양방과 한방을 썼지만 치료가 안돼 소문을 통해 듣던 백화사설초를 구입, 달여 복용한 결과 병이 치료되어 본인이 직접 이 약초를 재배하기에 이르렀으며 보급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백화사설초는 중국이 원산지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백운산에서 자생되는 것을 처음 발견 「백운풀」이라고도 부른다.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일년생 식물로 30㎝정도의 키에 연약한 대궁이 뱀의 혓바닥(蛇舌)처럼 생긴 잎에 흰꽃(白花)이 핀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백화사설초는 그 풀 전부를 약용으로 하며 암 이외에도 각종 염증이나 종기, 타박상에 특효 약초로 쓰인다.

또한 청열해독제(淸熱解毒劑)로도 이용되며 체내의 응어리를 풀어 독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불자 운영하는 「영신농산」서 보급
각종 염증·종기·타박상에도 효과

경남생약연구소의 성환길소장(약학박사)은 『백화사설초는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약으로 청열·종기·기관지염 등 각종 염증과 항암제로서 탁월한 효과가 있어 현대 천연약물 개발로 주목받고 있다』며 『백화사설초의 엑기스가 동물실험에서 악성종양세포에 강한 억제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싱기포르대학 학장 이광전 박사는 “간암으로 홍콩의 권위있는 어느 병원에서조차 치료약이 없다고하여, 백화사설초를 매일 150g씩 전탕해서 복용하니까 3개월만에 완치되었다”고 한다.
(녹차와 약차(동화문화사 刊, 신재용 생활길서 중에서)

각종 문헌에 나타난 백화사설초의 효능

◆ 한암본초(상민의 편저, 김수철 역주)-위암, 식도암, 직장암, 자궁암, 기타암증
◆ 묘약기방(조규형 저, 범진문화사 刊)-간염, 장염, 요초감염, 랭장염, 편도선염, 인후염, 각종 종기, 타박상, 위암, 직장암, 간암, 자궁경암, 방광암
◆ 한방의학 대사전(진존인 저)-간암, 위암, 식도암, 간염, 위염, 식도염, 편도선염, 직장염

1997년 7월 16일자 대한불교신문기사 발췌

추천의 말	“백화사설초는 한의약의 대표적 항암생약이다.” 한국자연생약보호협회장 이학박사 한영재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신비한 약용식물인 백화사설초” 경남생약연구소장 약학박사 성환길
백화사설초 주제발표	일시 : 1996년 10월 31일 23시 30분 KBS, 국제건강기즉동우회 박양호 실장(박사)

영신농산총판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2동 384-10
☎ 051) 465-5100,467-5200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그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얕아지고 혈색이 좋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080) 200-4545

고은 불교대하소설



다시 한번

그해 가을의 서해 보름사리 조수(潮水)는 어느 때보다 많은 수량으로 바다의 표면을 높였다. 그것이 너울을 이루었고 뒤이어 그 너울을 감당할 겨를도 없게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해일로 바뀌어진 것이었다.

무욕도 선착장에 고정시킨 때배와 거룻배 따위가 제자리에 고이 매어져 있으리라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러나 선착장의 배 따위와 함께 무욕도 자체가 아직 나나운 파도의 무덤에 파묻히지 않은 것만 해도 간담이 서늘하도록 다행으로 여겨야 하였다.

한차례 폭풍이 할퀴고 지나갔는데도 그 넘쳐나는 바다 표면은 결코 낮아질 줄 모르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더이상 불어나지 않는 것만으로 마음이 놓이는 그런 불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이 무욕도 안쪽의 바닷가 마을이나 섬에서는 사람이 저승에 가지 않고 저승이 사람한테 온다는 속담이 있다. 사나운 너울이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해일이야말로 사람에게 마구 달겨드는 저승이기 때문이었다.

섬의 위쪽 숲들도 아주 무자비한 군대에 의해 쓰러진 희생자들의 시체처럼 큰 나무들이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다. 이상한 것은 바람을 정면으로 받지 않는 북쪽과 동쪽의 육지를 바라보고 있는 지대가 더 피해가 큰 일이었다.

그래서 도랑이 있는 서남쪽이 나은 편이었고 우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폭풍해일에도 어떤 작정이 있어서 상대방의 배후를 먼저 요절내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 아무튼 우녀는 아픔이 어느 만큼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처지로나마 살아 있었다.

그는 거의 짐승들의 놀라운 본능이 그런 것처럼 바위등성이에 걸려있는 흩어진 때배의 행목 하나를 들어쥐고 있었다.

그런 행동은 머지 않아 다시 한번 해일의 큰 파도덩어리가 들이닥칠 것을 예감한 방어인지도 모른다.

우녀의 입에서 한 마디 말이 나왔다. 대견하였다. 몸과 마음이 몽땅 파도에 떠밀려 바위에 부딪치다가 흩어진 서까래 따위에 얻어맞기도 한 이래 그 아픔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입에 말을 담을 여유가 있었다.

그동안 내내 신음이 아니면 신음을 참는 일이었다. 그 신음도 어느 만큼 의식이 회복되어서 가능하였다.

그리기까지 그는 온통 파도덩어리가 남겨놓은 한 물건에 불과하였다. 나무토막이나 넝조각 아니면 짚신 한 짝같은.

우녀의 말에도 바로 그런 신발 한 짝을 말하는 것이었다.

"쯔쯔, 신발이 남아 있다니…."

그는 그 자신이 혼자 섬에 남겨진 사실과 이번에 이에 저승으로 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실을 신발 한 짝이 남은 달마의 빈 무덤에 자기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그것은 조금도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과분한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그가 먼 달마를 아주 가까운 달마로 불러들여 허물없는 대상으로 만든 셈이었다.

어디 달마만이리. 석가모니불도 그 이전의 과거 7불도 옛날과 오늘이 없고 위아래가 없게 서로 마음을 열고 듣고 나는 한 자락 바탕이 되어야 함이었다.

달마가 이교도에 의해 암살당한 뒤 그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땅에 묻혔다.

뒷날 한 사신이 촉령의 험한 길을 돌아오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달마가 신발 한 짝만을 들고 부라부라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데서 나온 전설이다.

"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네…"라고 그 달마가 표표하게 말하였다. 그 사신은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게 놀랐다.

그가 돌아와 복명한 뒤 달마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달마의 무덤을 파보았다.

달마의 시신이 없고 오직 그가 신던 신발 한짝만이 묻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신이 만난 달마와 달마의 신발 한짝은 사실이었다. 촉령의 그 험악한 협곡 첫걸음에 해당하는 자갈사막 끄트머리에서 만고(万古) 그대로인 바위산들이 천길 만길로 되는 곳이었다.

그 뒤 달마가 천축으로 돌아가서 어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아무튼 우녀는 달마가 신발 한짝을 살짝 남겨둔 것이 신기하기보다 뭔가 이 세상에의 애틋함이나 어떤 미련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세상에 선(禪)을 떨친 조사(祖師)가 어찌 신발 한짝 따위의 장난을 남겼는가. 그는 그것에 그 자신의 신세까지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무욕도 도랑에서 왜 그가 혼자 남아 있었는가. 신발 한짝의 장난이 어느덧 그 자신을 두고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번 물난리에도 잠자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바위 바닥에 다친 짐승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 아픔이란 말인가.

그는 관세음보살이 서른 세개의 몸을 나타내는 것도 어쩐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형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으면 소리가 있다. 금강경은 그 형상과 소리가 사도(邪道)라 하지 않았던가.

아픔도 꾸준하면 몸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우녀는 그의 아픔을 아픔 그대로 견디는 동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였다.

신령스러운 지혜.

고요히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

이런 말이 굳이 굉지의 그것이었고 먼 후대의 우녀가 그 뜻을 부지불식간에 터득하여 그의 고독 자체가 묵조로 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 우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밀행(密行)으로서의 자유를 통해서 애욕 자체를 열반과 다른 것이 아니게 생각하는 일이나 고요한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무엇인가 뜨거운 불덩어리를 싼 종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추구로서의 과제를 바라게 되었다.

그것이 묵조선에 대한 간화선인가. 묵조도 살아있으면 활불(活佛)의 일이요 죽으면 오래된 개똥의 일이겠다. 묵조가 그 너울과 해일로 물벼락이 된 그 자신을 약간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른다.

물론 여느 때의 파도소리는 너무나 오래동안 익숙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그것이 들리거나 들리지 않거나의 분별 따위가 있을 까닭이 없게 되었다.

그에게 파도소리가 어떤 장애가 된 적이 없었다. 아니 그는 파도소리를 귀담아 들은 적이 없어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도리어 파도소리보다 작은 다른 소리들, 예컨대 주눅이 잔뜩 든 선착장 바위굴 속의 행자의 말소리 따위는 잘 들렸지만 그 말소리보다 큰 파도소리는 그의 청각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의 엄청난 파도덩어리들의 활동 이후 우녀는 다친 몸으로 하여금 묵조의 세계가 어이없다는 느낌이 가느다란 빛줄기가 새어나오는 암실처럼 그 완벽한 어둠으로서의 지혜에 금이 가는 듯 하였다.

우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애욕을 열반과 다르지 않게 생각
고요한 것에만 집착하지 않았다

말이나 글의 한 구절에 대한 일체의·분별과 망상을 뛰어넘어 거기 절대의 심체(心體)가 나타나니 그것을 일러 묵(默)이라 함이요 그런 절대의 심성을 환하게 비추어 보는 지혜의 작용을 곧 조(照)라 함이라면 바로 그런 반야무지(般若無知)야말로 일체 지(知)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남송의 굉지정각은 묵묵히 말을 잊으면 밝고 밝게 현전하리라(默默忘言照照現前)라고 설파하였다.

그는 이런 묵조명(默照銘)답게 현실이나 세속의 일에는 끝내 발을 디디지 않고 비로자나불이나 석가모니불까지도 넘어서는 미묘한 법신을 갖추는 일을 자랑하였다.



바다 전체가 뒤집혀 생명들이 파도덩어리에…

그런데 이번의 엄청난 파도덩어리들의 활동 이후 우녀는 다친 몸으로 하여금 묵조의 세계가 어이없다는 느낌이 가느다란 빛줄기가 새어나오는 암실처럼 그 완벽한 어둠으로서의 지혜에 금이 가는 듯 하였다.

그런 여우 같은 우녀가 그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말하는 것이었다.

"쯔쯔, 신발이 남아 있다니…."

그는 그 자신이 혼자 섬에 남겨진 사실과 이번에 이에 저승으로 가지 않고 살아남은 사실을 신발 한 짝이 남은 달마의 빈 무덤에 자기자신을 비추어 보았다. 그것은 조금도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고 과분한 것도 아니었다.

차라리 그가 먼 달마를 아주 가까운 달마로 불러들여 허물없는 대상으로 만든 셈이었다.

어디 달마만이리. 석가모니불도 그 이전의 과거 7불도 옛날과 오늘이 없고 위아래가 없게 서로 마음을 열고 듣고 나는 한 자락 바탕이 되어야 함이었다.

달마가 이교도에 의해 암살당한 뒤 그 시신은 화장하지 않고 땅에 묻혔다.

뒷날 한 사신이 촉령의 험한 길을 돌아오는데 이미 세상을 떠난 달마가 신발 한 짝만을 들고 부라부라 돌아가는 것을 목격한데서 나온 전설이다.

"나 고향으로 돌아간다네…"라고 그 달마가 표표하게 말하였다. 그 사신은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게 놀랐다.

그가 돌아와 복명한 뒤 달마를 보았다고 말하였다. 그것이 사실인지 궁금한 사람들이 달마의 무덤을 파보았다.

달마의 시신이 없고 오직 그가 신던 신발 한짝만이 묻혀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신이 만난 달마와 달마의 신발 한짝은 사실이었다. 촉령의 그 험악한 협곡 첫걸음에 해당하는 자갈사막 끄트머리에서 만고(万古) 그대로인 바위산들이 천길 만길로 되는 곳이었다.

그 뒤 달마가 천축으로 돌아가서 어찌 되었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아무튼 우녀는 달마가 신발 한짝을 살짝 남겨둔 것이 신기하기보다 뭔가 이 세상에의 애틋함이나 어떤 미련으로 여겨져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세상에 선(禪)을 떨친 조사(祖師)가 어찌 신발 한짝 따위의 장난을 남겼는가. 그는 그것에 그 자신의 신세까지 비추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무욕도 도랑에서 왜 그가 혼자 남아 있었는가. 신발 한짝의 장난이 어느덧 그 자신을 두고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가 이번 물난리에도 잠자다가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남아 바위 바닥에 다친 짐승으로 쉽게 가라앉지 않는 아픔이란 말인가.

그는 관세음보살이 서른 세개의 몸을 나타내는 것도 어쩐지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로 여겨질 때가 있었다. 형상이 있으면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으면 소리가 있다. 금강경은 그 형상과 소리가 사도(邪道)라 하지 않았던가.

아픔도 꾸준하면 몸의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것일까. 우녀는 그의 아픔을 아픔 그대로 견디는 동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였다.

신령스러운 지혜.

고요히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하는 것.

이런 말이 굳이 굉지의 그것이었고 먼 후대의 우녀가 그 뜻을 부지불식간에 터득하여 그의 고독 자체가 묵조로 되어 마땅한 것이었다.

그런 우녀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밀행(密行)으로서의 자유를 통해서 애욕 자체를 열반과 다른 것이 아니게 생각하는 일이나 고요한 것에만 집착하지 않고 무엇인가 뜨거운 불덩어리를 싼 종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추구로서의 과제를 바라게 되었다.

그것이 묵조선에 대한 간화선인가. 묵조도 살아있으면 활불(活佛)의 일이요 죽으면 오래된 개똥의 일이겠다. 묵조가 그럴진대 간화라 한들 그것이 죽은 것이라면 가을걷이가 끝난 뒤의 빈 들에 남겨진 허수아비의 너덜거리는 헝겊조가리와 | 천2백공안중의 피빛 화두 하나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알 수 없거늘… 알 수 없거늘…."

우녀는 점점 힘을 더하고 있는 바다 저쪽에 눈길을 주며 중얼거렸다. 알 수 없다는 것도 화두가 되는 것인가.

"알 수 없거늘…."

대혜종고는 처음의 그것과는 달리 형식적인 선정(禪定)을 좁은 한 것으로 여기는 조동종을 떠나서 임제종으로 가게 된다.

성품에 불이 붙어 있었다. 비단 수행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송나라에 항복을 강요하는 금나라에 화친을 강조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 그는 금과의 싸움을 주장하는 주전론자여서 화친파의 모함으로 영남 - 관동지방 - 에서 10여년 동안 귀양살이를 하기도 하였다.

그가 사면을 받은 뒤로는 극단적인 임제선풍의 중흥에 앞장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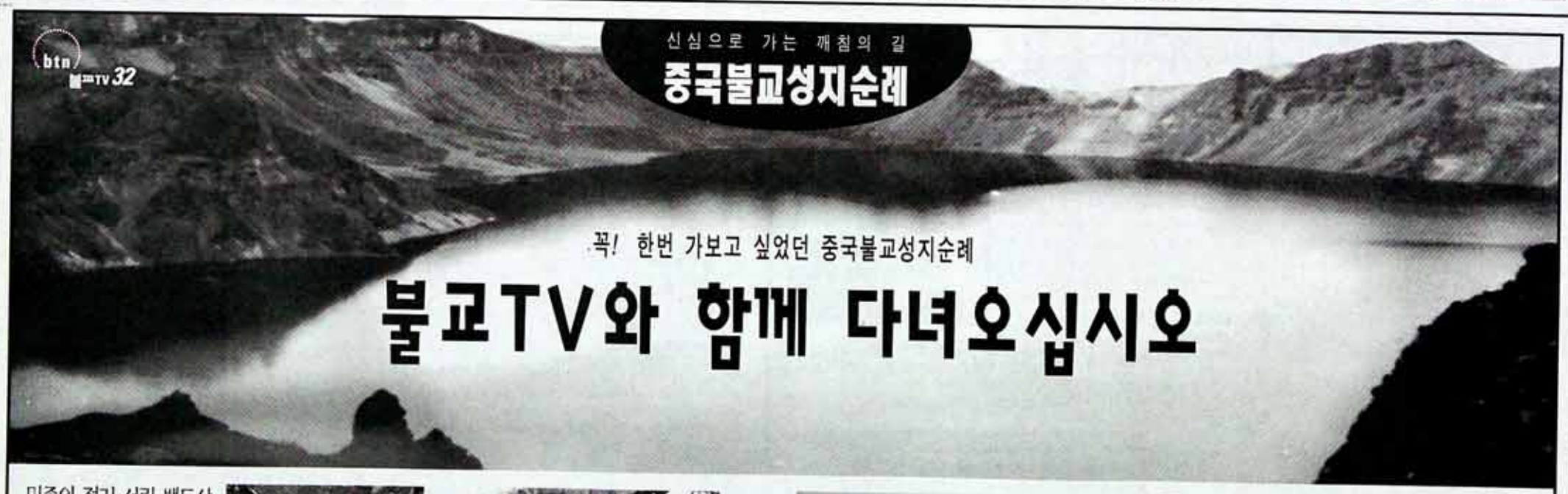
그의 입에서 그와의 적수라 할 굉지의 묵조선을 묵조사선(默照邪禪)이라고 통박하면서 간화선이 깨달음의 수단임을 새삼 강조하였다. 그래서 묵조선이 이르는 곳마다 자유로운 선인데 간화선은 이념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지금 이 막다른 시기에 우녀는 하나의 이념을 꿈꾸기 시작하는지 모른다.

하지만 지금 무욕도는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논란할 겨를이 없다. 수평선의 일은 곧 바다 전체의 일이었다. 그것은 끝내 무욕도를 삼키는 일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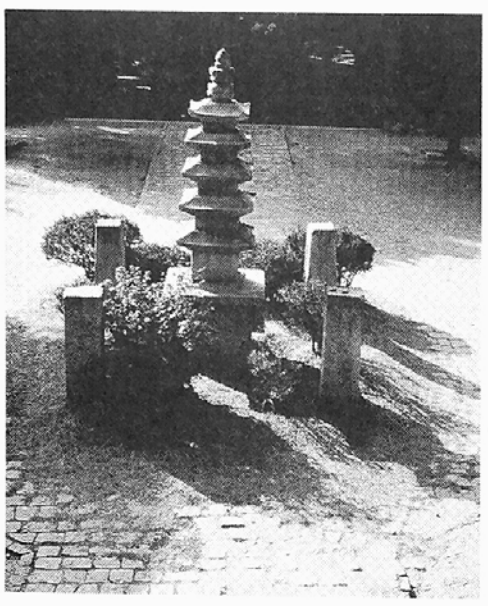
그런데 이제까지와 다른 것은 그 바다 전체가 뒤집혀져서 모든 바다속의 생명들이 바다 위의 파도덩어리에 떠오르는 일이었다. 죽은 고기들로.

그림 · 조향숙



"렌즈 7개에 담은 불교美學"

삼성반도체 사진동호회전 '색즉시공'
불상·벽화등 7人7色 주제별 작업



◇ '색즉시공展'에 나오는 임대건씨의 사진작품.

각기 다른 일곱색깔이 모여 '색즉시공(色卽是空)'의 무지개를 띄운다.

수원 삼성반도체의 사진동호회 회원 7명이 각기 불교를 소재로 한 사진작업을 하고 1인당 5작품씩 총 35점으로 불교사진전을 연다. 20일부터 24일까지 동숭동 예총회관 1층 전시관에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의 제목은 '색즉시공(色卽是空)'. 열정과 패기로 건져올린 사진을 통해 모든 이들에게 불교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고 싶다는 이들 7명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들 7명은 장영진(전기그룹) 김미영(공정2PJT.) 김종표(DTI그룹) 김지광(포토마스크그룹) 임대건(메모리QA그룹) 임채홍(전기그룹) 최현숙(라인관리그룹).

삼성반도체의 수많은 직장인들중 사진이라는 취미활동을 통해 만났고 이번 불교사진작업을 하며 불교와 끈끈한 인연을 맺었다. 사진동호회에서 사진작가 김영학씨의 지도를 받아온 이들은 대부분이 사진햇수만도 1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베테랑들이다.

매년 사진전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말 우리 전통문화의 보고인 불교를 소재로 해 작품전을 열어보자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모아져 작품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각자 또는 함께 용주사 각원사 등 전국의 사찰을 다니며 불상과 탑, 벽화 등에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하다보니 어느새 각자 관심가는 주제가 정해지기 시작했다. 장영진씨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사천왕상 신중상등 제불보살상들을, 김미영씨 또한 불상을, 김종표씨는 사찰벽화, 임대건씨는 목어등 사물과 대웅전 등을, 김지광씨는 각양각색의 탑, 최현숙씨는 팔상성도 등 벽화, 임채홍씨는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나 탑돌이등 불교행사를 주로 렌즈에 담았다. 이들은 대부분이 무종교였으나 절에 다니며 사진을 찍다보니 저절로 부처님나라의 도반이 됐다. 처음에는 무심코 불상에 카메라를 들이대다 스님에게 꾸중도 많이 들었지만 이제는 절에 가면 부처님께 먼저 삼배를 올리고 스님을 만나면 합장을 할 정도로 불심을 향한 끊임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 수인(手印)등 생소한 불교용어를 알기위해 불교교리책도 자주 들춰본다.

"전에는 불교를 잘 몰랐는데 사진을 찍다보니 전통문화인 불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도 물론 커지고요. 향내음이 어느새 몸에 배듯 절에 다니다 보면 마음의 문이 열리겠지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불자라고 얘기한다는 장영진씨의 말이다.

이경숙 기자

마곡사, 성보 103점 최다소장

조계종 '불교관련 문화재현황' 조사

전국에 산재한 지정문화재 총 7천1백28점 가운데 불교관련 지정문화재(성보)는 2천2백13점이며, 그 중 조계종 소유·소재 불교관련 지정문화재가 1천1백4점, 종단 소유·소재 외 불교관련 지정문화재는 1천1백9점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원학)가 지난 6월부터 8월30일까지 조사실시한 '전국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에서 밝혀졌다. 〈본지 142호 1면 참조〉

문화부에 의하면, 조계종 교구별 현황에서 가장 많은 1백3점의 성보를 소장하고 있는 곳은 6교구(마곡사). 다음으로 17교구(금산사)가 국가지정문화재 36점, 시·도지정문화재 40점을 보유, 지정문화재만 보면 가장 많으나 문화재자료가 6교구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지역별 현황에서는 서울시가 2백71점으로 가장 많은 반면 제주도는 단 1건. 서울시는 국보 69점, 보물 1백93점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으나 시도지정 문화재는 7점에 불과하다. 경북은 국가지정문화재 1백4점, 시·도지정문화재 59점 등 총 2백18점을 소유, 서울시 다음으로 많다.

이번 조사는 박물관·문화재 관련 소유·소재 불교관련 지정문화재 현황도 파악하고 있는데, 전국의 국립박물관은 84점의 지정문화재를, 기타 사립박물관 및 개인이나 재단은 1백76점의 지정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구별 현황

교구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 문화재			문화재자료	총계
	국보	보물	사적	사적및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직할		8			1			18	1	3	4	35
2교구	1	17	1		1			23	1		7	51
3교구	1	5						10		2	8	26
4교구	4	6			1			12		2	13	38
5교구	3	15		1				36				55
6교구	1	27			1			28	1	2	43	103
7교구	1	6						9			22	38
8교구		25						11	1		13	50
9교구		19						19		2	14	54
10교구	1	9						5		1	6	22
11교구	10	13		1				10		1	11	46
12교구	3	13						20		1	5	42
13교구	1	5						26		2	14	48
14교구		2			1			10		1	1	15
15교구	2	21				1	1	48	1	2	7	83
16교구	7	15						15		1	6	44
17교구	2	33					1	32	2	6	12	88
18교구		1			1		2	14			7	25
19교구	5	17						13		1	10	46
20교구		9						14		1	5	29
21교구	6	27			2			18		2	4	59
22교구	2	10			1			19	1	1	7	41
23교구		1								1		2
24교구		11						20		3	5	39
25교구		7			1			12	1		4	25
	50	322	1	2	10	1	4	442	9	35	228	1104

"眞如一色의 경지 감상하세요"

성각스님 선서화전 19~24일 부산국제신문 문화센터

가을 초입에 독특한 화풍으로 진여일색(眞如一色)의 경지를 그려낸 성각스님(남해 망운암 주지)의 선서화전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일부터 24일까지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 4층 전시실에서 열리는 전시회에는 '망운진여일색' '심해산미수(心海山美水)'를 비롯한 선서화 60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망운진여일색'과 '심해산미수'는 전지 한 장에 그려진 대작으로 동양화의 본고장인 중국에서 열린 97천지국제미술대전과 장춘미술대전에서 각각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라 더욱 이채롭다.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에서 출품된 6만8천여점의 작품중에서 수상의 영광을 차지, 이를 계기로 성각스님은 중국서화함수대학 객좌교수로 위촉되었고, 두 작품은 길림성박물관과 연변박물관에 소장될 예정이다.

"산과 바람 물이 한데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는 것을 자유로운 구도와 기법으로 표현해 해탈에 들 수 있는 마음자리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선화를 정의하는 성각스님은 "선화를 통한 한중 문화교류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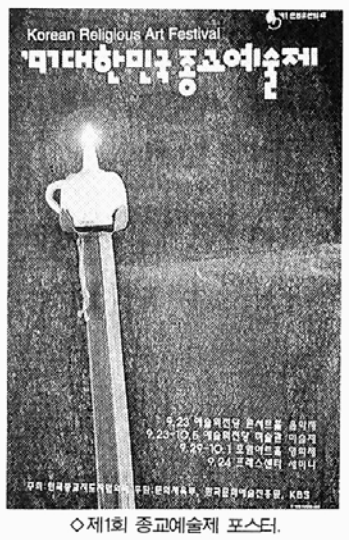
한편 이번 전시회 수익금은 소년소녀 가장돕기에 전액 쓰여지게 된다.

부산=천미희 기자

범종교화합 '종교예술제' 23일 열린다

예술을 통한 종교인들의 교류와 상호이해, 화합을 도모할 제1회 대한민국 종교예술제가 23일부터 10월 5일까지 예술의 전당(음악 미술) 호암아트홀(영화) 프레스센터(학술세미나) 등에서 개최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7개 종교가 참여하는 이번 예술제는 각종교가 모두 참여하는 실질적인 운영위원회(위원장 원학 조계종 문화부장)가 구성돼 그동안 추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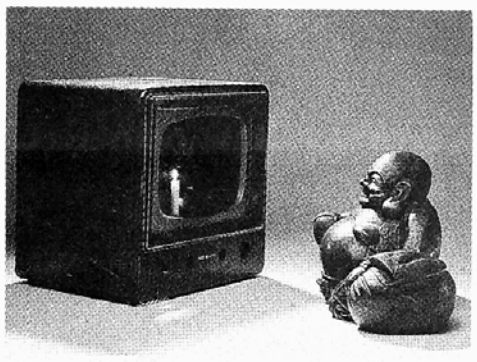


◇제1회 종교예술제 포스터.

종교예술제는 23일 오후 6시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개최되는 미술제 개막으로 시작되며 당일 오후 8시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1층에서는 개막 축하연이 열린다.

◇제1회 종교예술제 주요행사

종류	일시 및 장소	내 용
음악제	9월23일 (19:00~20:30)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불교에서 '거룩한 손' '미륵님 오시네'(김성녀), 개신교에서 '노래의 날개위에'(박미혜) 등 총 16곡 연주
미술제	9월23일~10월5일 예술의 전당 미술관	회화 61점 조각 13점 서예 11점 등 총 85점 전시. 송영방 오경환 류종민씨 등 참가.
영화제	9월29일~10월1일 (15:00~17:00/19:00~21:00) 호암아트홀	불교: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리틀부다 - 9월30일 개신교: 바베트의 만찬, 빛은 내가슴에 - 9월29일 가톨릭: 희생, 로메로 - 10월1일
학술세미나	9월24일 (14:00~18:00)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과제(강영훈)' 등 발표



◇ '독일 비디오 조각전'에 선보일 백남준씨의 비디오 설치작품 '미소짓는 부처'.

3곳서 불교소재 비디오아트展

백남준·박현기·정영창씨 전시 잇달아

백남준 박현기 정영창 씨등의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볼수 있는 비디오 아트전시회가 초가을을 장식하고 있다. 10월 7일까지 예술의 전당 미술관(02-580-1234)에서 열리는 독일비디오조각전에는 '미소짓는 부처님' '부처 신 악마 기억' 등 백남준씨의 작품을 비롯 독일에서 활동하는 17명의 작가 총 60여점의 조각 비디오 작품이 소개된다. 영상과 조각의 조화로운 만남을 통해 21세기 현대미술의 방향을 가늠케 하는 비디오아트의 참단흐름을 조명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다.

경주 선재미술관(0561-745-7075)에서는 박현기씨가 비디오 이스톨레이션작품 '만다라'와 '물' 시리즈를 오는 30일까지 열고 있다. 박씨는 만다라와 물 시리즈에서 고대 인도 만다라에서 차용한 강렬한 색채의 이미지를 통해 정적인 만다라를 비디오로 빠르게 투사시켜 혼돈과 명상, 내면세계와 주위세계와의 대립과 융합을 느끼게 한다.

한편 재독작가 정영창씨는 오는 24일까지 동숭동 한국문화예술진흥원(02-760-4500)에서 불교적인 심오함과 자연관을 바탕으로 한 '아제아제 바라아제' 등 환경과 생명의 본질에 천착한 25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현대불교 전시회

동국대 불미硏, 19~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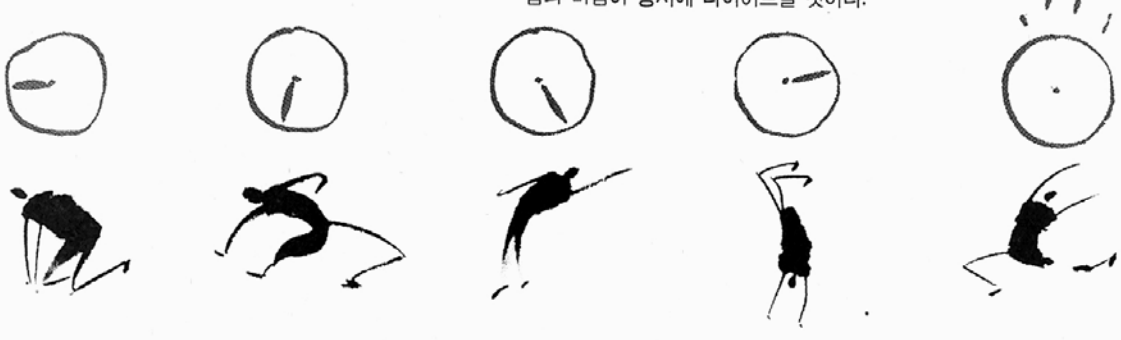
'제8회 현대불교미술전시회'가 19일부터 30일까지 동국대 학술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가 주최하고 한국불교미술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아미타후불도를 비롯 관세음보살상, 부처님 세상, 꽃은 피고 물흐르다 등 총 22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 미술학부(주임교수 손연칠)도 17일부터 23일까지 경인미술관Ⅱ에서 '제16회 졸업작품전'을 연다.

◇기사넘쳐 '불심사십' 쉽니다.

"살 빼야지, 살 빼야지."

'살 빼야지.' 하는 조바심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가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500여년간 승가의 생활 속에 스며 있는 양생의 지혜. 군더더기 없는 삶, 군살 없는 몸매 유지의 비결 — 불교 다이어트.

저울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실패, 아니면 부작용이 따르기 쉽다. 모든 것을 몸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계율을 따라 생활할 뿐, 특별한 방법으로 몸을 돌보지 않는다. 승가의 생활 그 자체가 건강의 비결인 까닭이다. 물론 대부분의 스님들은 몇십년 동안 1~2kg 정도의 차이로 몸무게를 유지하며 생활한다.
몸은 항상 변화한다. 그것이 늙음이고, 병듦이고, 죽음이다.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한 마음 바탕 위에서 불가의 생활을 몸소 실천해 보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다이어트될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책들 ①

불교 다이어트 그까짓 살 좀 있으면 어때



국판 224쪽/ 학림 지음
여시아문 /값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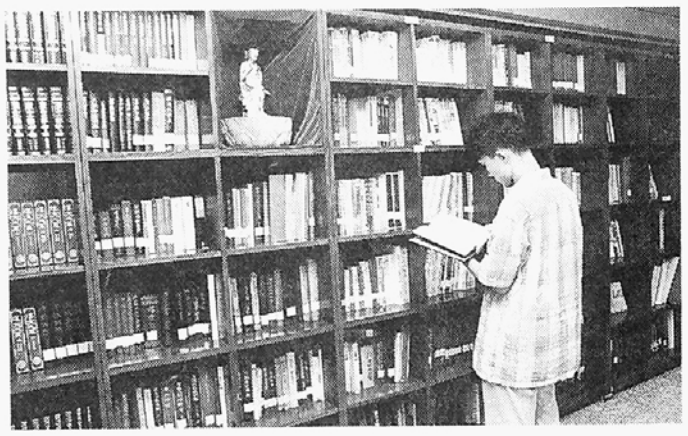
제1장 승가의 생활
제2장 음식물로 다이어트를
제3장 쾌변으로 다이어트를
제4장 쾌면으로 다이어트를
제5장 호흡으로 다이어트를
제6장 식욕을 끊어 다이어트를
제7장 몸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제8장 요가로 다이어트를
제9장 마음을 관찰하여 다이어트를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737-0035(영업부), 737-0091(편집부),737-0387(팩스)

공공도서관과 이동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독서인
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불자들을 위한 사찰도서
은 최근 몇 년사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서 운영활성화가 대두되고있다. 교계에는 서울
계사, 강남포교원, 부산 삼광사, 조계사, 부산 불
교육원, 일산 원각사, 여수 석천사 등 몇몇 사찰
중심으로 사찰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숫자나 운영실태는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1년전부터 사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남포
원(원장 성열)은 불서가 중심이된 1만권의 장서
신도들에게 대출해 주고 있다. 법회에 참석하는
자주부나 어린이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근에는 불서를 비롯 일반서적 베스트셀러도 출
사에서 직접 구입해 대출과 판매를 병행하고 있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그동안 삼광사내 금



◇사찰도서관에 가면 언제든지 법사·선지식의 말씀을 만날 수 있다. 사진은 1만여권의 불서가 소장돼 있는 서울 강남포교원의 도서관.

도심사찰 도서관 "턱없이 부족"

조계사·강남포교원등 6곳뿐
시설확장·장서구비 '발등의 불'
교계 복지관과 연계운영도 '방편'

불교대학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던 사찰도서관
대를 위해 현재 공간을 확보하고, 조만간 2만여
이 넘는 불서와 일반서적들을 대출해주는 서비
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 석천사(주지 진옥)도 사찰내에 3천권 규모
도서관을 마련, 경전공부를 하는 신도들에게 각
불교사전과 참고자료, 경전등의 불서를 제공하
있다. 부산불교교육원의 경우는 불서대출과 더
불어 TV에서 방영된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녹화,
해여해 주기도 한다.
조계사와 일산 원각사의 경우도 신도들을 대상
으로 불교입문서, 경전, 스님법문 등의 불서를 대
출해 주고 있다. 이들 사찰도서관들은 주변에서 쉽
게 접할 수 없는 대장경이나 서화집 등 고가의 서
적을 구비해 불자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배려하
고, 쏟아져 나오는 책 가운데 엄선된 양질의 불서
를 불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바른 신행생활로 이
끌어 주고 있다. 또한 불자들에게 사찰을 단순한
신행의 공간으로서 뿐 아니라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사찰도
서관은 일석삼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찰도서관이 대부분

◇사찰도서관 현황

도서관	장서수	연락처
강남포교원 도서관	1만권	(02)539-2631
조계사 도서관	5천권	(02)730-6261
부산불교교육원	3천권	(051)466-4079
여수 석천사	3천권	(0662)666-1770
부산 삼광사	2만권	(051)808-7111
일산 원각사	3천권	(0344)913-7744

어려움으로 대출을 중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찰도서관 운영이 어려울 경우 지역사찰의 교계위탁 복지관의 도서관이나 시립·구립 도서관 등지에 불서를 정기적으로 기증해 일반인들의 불서수요를 증대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석천사 진옥스님은 제시했다. 스님은 "불서에대한 다양한 정보전달과 교류역시 사찰이 할 수 있는 포교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자 기자

용성선사 대표작 '각해일륜' 가로쓰기 새단장



3.· 독립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 불교대표로서 겨레혼에 독립의 불을 당기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파하고, 일생동안 30여종의 경전 번역과 30여종의 저술을 편찬한 대중교화의 선구자인 용성선사의 대표작 〈각해일륜(覺海日輪)〉이 불광출판사에서 새모습으로 출간됐다.

이 책은 1930년 초판간행이후 불자들과 수행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점에 대해 핵심을 찔러 질문과 답을 제시해 불자들에게는 알기쉬운 불교교리문답서로, 수행자들에게는 한글로 된 최초의 선서(禪書)로서 자리매김 해왔다. 이번 11쇄간행을 맞아 새롭게 가로쓰기로 편집하고, 어려운 불교용어에 일일이 각주를 달고 쉽게 풀어써 한글세대 불자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다. '부처와 중생', '유심의 도리', '수심정로', '육조단경'으로 나눠 때론 잔잔하게 때론 격동적으로 불교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쉽고 자상하게 펼치고 있는 이 책은 용성선사가 직접 수행하고 체험한 내용들을 구어체로 서술, 마치 선사와 독자가 직접 대화를 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국문학 원류는 불교의 서정성"

이진오교수 '한국불교문학의 연구' 펴내



우리문학의 원류라할 수 있는 불교문학을 조명한 한권의 책이 눈길을 모은다. 부산대 이진오교수(한문학)가 그동안 발표했던 글들과 새로 쓴 글들을 모아 펴낸 〈한국불교문학의 연구〉(민족사 刊)가 바로 그것.

이 책은 관조와 해체를 통해 결국은 자아와 대상을 부정하는 서정양식을 선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자 선시, 불가한시 이해의 중요한 관건이라고 설명한다. 또 불가한시가 주로 취하는 주요 제재의 내용과 성격을 일별하고, 진리와 삶의 제재라는 측면에서 불가한시의 맥락을 짚고있다. 시대와 문학부분에서는 조선조 불가문학의 역사성, 조선초기 불찬류문학과 정토사상, 매월당과 청허당문학의 시대성 대비, 조선후기 불가한문학의 사회적 성격변화를 다루었다. 특히 임란이후의 문학갈래를 민중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와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로 구분하고, 전자에는 정토사상이 후자에는 선사상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인도의 담마파다(Dhammapada)와 한자문화권의 선시비교,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원감국사 충지, 사명당 유정, 초의선사 등 작가와 작품에 대한 분석과 그 문화사적 의의를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특히 1910년까지의 우리나라 스님들의 불가문집 일람과 간단한 해제를 부록으로 실어 불가문집의 규모와 판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화제의 책

해탈의 길을…

설산 지음



선수행·기도법등 초심자 신행안내서

한국불교사회봉사회를 통해 활발한 포교 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설산스님(백련사)이 알기쉬운 기초교리 입문서 〈해탈의 길을 향하여〉를 발간했다.

스님은 어렵고 복잡한 가르침은 무조건 기피하고 쉽고 단순한 가르침에만 자신을 맡기려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동기를 밝혔다.

이 책은 불교란 무엇이며 그 발달과 세계, 근본교리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신앙의 대상으로서 삼보를 대하는 자세와 사원의 구조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믿음과 선수행, 기도법, 법회, 재(齋) 등에 대해서까지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책은 초심자들에게는 자상한 불교신행 지침서로, 일반인들에게는 보다 쉽게 불교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입문서가 될 것이다. 〈감로출판사 6천8배원〉

실상사

선우도량 엮음



실상사의 어제와 오늘 정리…미래 조망

한국불교의 역사와 함께 한 실상사. 〈실상사〉는 구산선문 최초의 가람이면서 현재는 종단 최초의 승가전문교육기관인 화엄학림과 백장선원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 실상사의 어제와 오늘을 정리한 책이다. 선우도량이 펴낸 이 책은 실상사의 현재와 과거, 그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불교사상과 문화재, 수행자들의 생활 등을 글과 컬러화보로 담았다. 특히 실상사의 오늘편에서는 90년 창립된 승가결사 단체 선우도량의 올바른 수행자상 확립을 위한 수련, 현장결사 포교활동과 93년 설립된 실상사 화엄학림의 체계적인 승가교육 현황도 소개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작한 화엄세계관과 생명질서에 맞는 농사짓기 등 생활속에서 승속이 융합하는 새로운 전통을 뿌리내리고 있는 실상사의 미래도 함께 조망하고 있다.

〈선우도량 4천원〉

화제의 책

여래심지의 요문

박건주 번역



선종 지침서 '능가경' 쉽게 이해하기

"내가 보건대 중국에 오직 이 경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 의지하여 실천한다면 그대는 반드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달마대사는 2조 혜가대사에게 〈능가경〉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후 혜가와 그 도반들이 항상 이 경전을 마음의 의지처로 삼아 달마대사 이래 초기의 선종을 능가종이라 한다. 여래심지의 요문이며 최상승선의 지침서요, 선종의 뿌리로 각인되고 있는 〈능가경〉은 그러나 그 난해함으로 접하기 어려운 경전가운데 하나로 여겨져 왔다.

〈여래심지의 요문〉은 이러한 난해함을 떨쳐내고자 호남불교교양대학 교수로 활동하며 능가선연구회를 통해 능가선의 실수와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박건주씨가 펴냈다. 〈능가경 7권본-대승입능가경〉을 역해한 이 책은 묘각(妙覺)에 이르는 길을 명료하게 보여줄 것이다.

〈능가산방 1만1천원〉

■ 법회와 설법 9월호

청소년 포교특집 다뤄

조계종 포교원이 발간하는 〈법회와 설법〉9월호가 나왔다. 이번호에는 특집으로 '청소년 포교의 어제와 오늘'을 실었다. 8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4일간 개최된 제2회 청소년 연합캠프 현장을 담은 화보와 참관기가 실려있다. '파라미타 캠프와 청소년 포교', '걸스카우트 종교활동과 불교청소년포교' 등 캠프를 통한 청소년 포교의 현주소와 문제점이 지적돼 있다. 이외에도 포교자료로서 대만 불광사 종무운영도 소개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2	백팔고개넘어 부처되기	계 환	시공사
3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	류시화	열림원
4	인연(작은책 3)	서정주	민족사
5	암자로 가는 길	정찬주	좋은날
6	밥그릇이나 씻어라	이은윤	자작나무
7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3	유홍준	창작과비평사
8	히말라야의 수행자들	혜 진	불 광
9	피안으로 이끄는 사자후	탄 허	교 림
10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그리스도	틱낙한	한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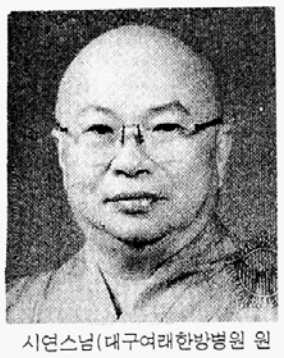
구입문의:(02)737-0695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 터 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업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특별가격 : 정가 50만원

대구은행 033-07-172508

(예금주 : 김 창 수)

如來健康院 合掌

電話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으로 뽑아내 산업화할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연구진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장장 김윤선)은 4일 「참기름과 부산물인 깻묵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큰 천연물질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추출,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됨으로써 노화방지제와 암예방 의약품, 피부노화억제용 화장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지 개발된 천연물질가운데 가장 뛰어난 항산화제로 평가돼은 「알파 토코페롤」보다도 산화억제능력이 15-20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 작물시험장 류수로 박사는 이 세사미놀성분으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있는 음료와 알약 등의 시제품을 이미 만들었으며, 내년중에는 특허공매를 통한 산업화가 이뤄져 오는 98년말쯤 관련제품의 시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60 1997년 2월 3일 식품뉴스

감식초음료 급성장세

시장규모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감식초 시장은 아이만이 출시된지 1년여가 지난 현재 시장규모가 약80여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아이만을 그동 점유이 남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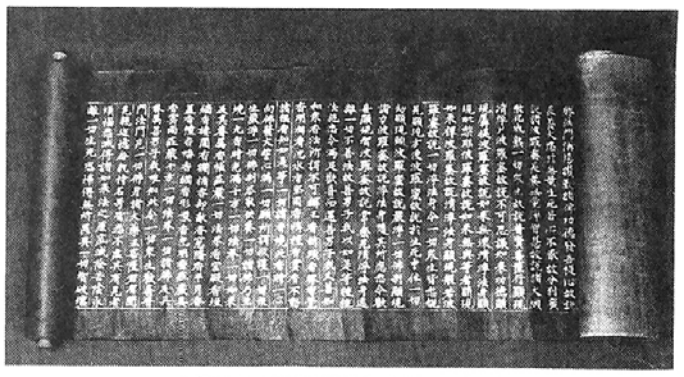
11세기 사경 '대방광불화엄경' 햇빛

양산 대성암서 보물급문화재 15점 발견

11세기에 제작돼 국내에 있는 고려사경中 연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추정되는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紺紙銀泥大方廣佛華嚴經)〉권49, 고려시대 균여대사의 유일한 전적인 〈일승법계도원통기(一乘法界圖圓通記)〉上권 등 보물급 문화재 15점이 무더기로 발견돼 불교사 서지학 연구에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남권희교수(경북대 문헌정보학과)가 현존하는 관본 가운데 시대가 가장 앞선 것으로 불교사 뿐만 아니라 국어학, 서지학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경인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은 두루마리 형태의 권자본(卷子本)으로 현존하는 고려 사경중 가장 연대가 앞서는 〈대보적경〉(大寶積經, 일본 국립교토박물관 소장)의 글씨체와 일치하고



◇〈감지은니대방광불회엄경〉 권 49 사경本.

'대승기신론소' '일승법계도원통기' 등 불교학·서지학연구 획기적 자료

경남 양산시 대성암(주지 원진)에서 소장해 오던 고문서를 분류·정리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서지 유물에는 이외에도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화엄경〉,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 상권, 〈대방광불화엄경〉, 〈대방광불화엄경소〉권91·92, 〈법화문구병기절요(法華文句幷記節要)〉권6, 〈다라니경〉,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 등 불경 10점을 비롯해 서예 1점, 유학경전 해석서 1점, 문집류 3점으로 대부분 불교관련 유물.

남권희교수는 "발견된 전적 대부분이 있어 11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국내에 남아있는 고려 사경은 대부분 13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이다.

조선 세조때 간경도감에서 고정지(짚으로 만든 종이)로 찍은 균여대사의 〈일승법계도원통기〉도 관본으로는 첫 발견이다. 또 균여대사의 전적으로는 처음 발견돼 고려시대 불교사상의 이해 폭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조 금속활자인 초주갑인자로 찍은 〈대승기신론소〉는 현존하는 관본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약체구결까지 쓰여 있어 15세기 국어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는다. 인도의 마명(馬鳴)보살이 쓴 〈대승기신론〉을 원효가 주석한 것으로 일찍부터 여러 관본이 전해왔으나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던 조선 초기 금속활자본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또 〈화엄경〉은 국내의 목판본 〈화엄경〉 대부분이 1행에 16~17자인 것과는 달리 1행이 34~40자로 되어있어 거란본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가(永嘉) 현각스님이 선종의 세계를 설명한 〈선종영가집〉하권은 현재 보물로 지정된 〈선종영가집〉상권(동국대 소장)과 짝을 이루는 책이다.

서지학자 천혜봉 명예교수(성균관대)는 "〈감지은니대방광불화엄경〉권49의 사경은 11~14세기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작성해 4세기동안의 사경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며 〈일승법계도원통기〉상권도 유일하게 현존하는 균여대사의 글로 고려 불교사상을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기자

인터넷으로 '삼국유사' 읽는다

내년 6월부터…강인구교수등 번역-주석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가 내년 6월부터 삼성 유니텔의 '디지털 한국학' 인터넷 서비스로 소개된다.

정신문화연구원 강인구교수(고고학)를 비롯해 김상현(동국대, 사학과) 황패강(단국대, 고전문학) 김두진(국민대, 사학) 장충식(동국대, 불교미술) 교수 등이 서울대 도서관에 소장된 중종본 〈삼국유사〉을 주본으로 3백여개의 삼국유사 관련 논문 등을 주석에 적극 반영해 새롭게 번역-주석하고 있는 〈삼국유사〉가 유니텔에 등재된다.

국외에서는 일본학계의 입장을 주로 반영하고 해방이후의 한국학계가 올린 성과를 소홀하게 취급한 삼품창영(일본 천리대 사학과)의 일본본 〈삼국유사〉가 대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 강인구교수 등의 번역본이 인터넷에서 〈삼국유사〉의 진실을 알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유니텔에서 제공할 '디지탈 한국학' 서비스는 〈삼국유사〉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 △한국미술자료 △한국학연구 △한국학 논저목록 △인명록D/B 등도 제공하는 '한국학 가상도서관'.

한편 정구복(정신문화연구원 사학사) 김태식(홍익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이 최근 출간한 〈역주 삼국사기〉도 유니텔 '디지탈 한국학'에서 제공된다.

두건지장 圖像 남방루트로 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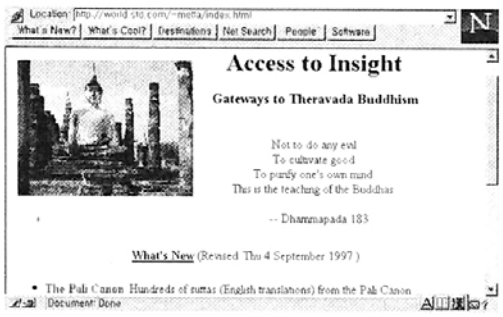
동대불미연, 20일 '한-중 불교미술' 세미나

동국대불교미술문화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20일 동국대 문화관에서 '중국미술과 한국미술의 관계성'을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 한·중 불교미술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한국 불교미술의 독창성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김정희 원광대교수는 두건지장과 김지장 도상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중 지장도상의 비교고찰'에서 우리나라의 두건지장이 투르판에서 돈황을 거치는 북방루트를 통해 전래됐다는 종래의 설과 달리 사천성이나 운남성 등의 남방루트를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천지방은 시왕신앙의 본거지로, 대족석굴(大足石窟)의 지옥변상이나 6도윤회상, 지장보살상이 고려불화의 주제나 도상에서 공통점을 보인다는 것. 고려시대의 두건지장상 유행에 대해서는 당시 승복제도와 관련, 승려들의 두건을 착용하는 습속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송대까지 주로 지장보살상이 조성되다가 명대이후 지장신앙과 시왕신앙이 민간신앙화되면서 지장보살의 형상은 김지장상으로 대체되는데, 김교수는 김교각을 보살형으로 표현한 김지장상이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거의 조성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하나의 도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나라간의 선택적 수용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양중대동원년명 금석삼존불좌상의 연구'(문명대), '돈황 막고굴의 굴전건축유지 연구'(마세장), '선종사원건축의 교류관계'(이강근) 등 총 8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내면으로'

「니카야」등 상좌부불교 「교리·경전」 소개

존 불리트(51·美)가 개설한 '내면으로'(Access to Insight)는 아함경의 일종인 팔리어 5부(部, Nikaya)의 영문본을 제공하고, 상좌부불교의 교리와 경전 등을 설명하고 있는 사이트.

이 사이트는 장부(Digha-nikaya), 중부(Majjhima-nikaya), 상응부(Samyutta-nikaya), 증지부(Anguttara-nikaya), 소부(Khuddaka-nikaya) 등의 〈니카야〉 일부를 영문으로 제공하며, 소개된 경전들은 모두 압축되어 있어 '로딩' 서비스를 이용해 가져올 수 있다. 또 영문본 〈니카야〉의 주석을 통해 상좌부불교의 중심사상인 사제, 팔정도, 십이인연 등의 교리를 설명하고 일상 생활의 실제적인 교훈으로 삼기를 권하고 있다. 〈니카야〉는 불설(佛說)에 가장 가까운 경전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불교출판협회'(Buddhist Publication Society)에서 발간하는 불서와 저자들을 검색-열람할 수도 있다.

http://world.std.com/~metta/index.html

4와 경전 22

사십이장경



이 병 욱
고려대 강사

〈사십이장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나누어 알기쉽게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경전이다. 각각의 경전이 생기게 된 이유가 그 당시의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현대에서 경전을 해석하는 자세도 현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십이장경〉에 담겨 있는 많은 비유와 가르침들 또한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들이어서 과연 참 진리는 광대무변하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학자들은 현대의 특징으로써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기술의 시대이고, 둘째 대중의 시대이며, 셋째 신화의 시대이다. 기술의 시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많은 편리함도 누리지만, 그 결과 인간이 기계에 종속당하는 비극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공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져 대중이 출현하고, 이 대중들을 움직이는 논리가 바로 신화이다. 신화란 원래 신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그 의미가 확장되어 명확한 근거없이 대중을 움직이는 신념체계를 뜻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유명 연예인에 대해 그 연예인을 모방하려는 것도 일종의 신화라 할 수 있다.

〈사십이장경〉에는 이러한 현대의 특징이자 문제에 대해 처방책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많다. 이 경에서는 욕심에 뒤덮인 범부의 생각을 믿지말라고 경고한다. 이것은 기술의 시대에 대한 처방책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지식을 믿고 이 지식에 근거해서 기술을 발전시켰지만 그 결과 인간이 행복하기보다는 과거보다 더 소외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지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 자연을 착취하였고, 인간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었다. 이 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된다. 그대의 생각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여색을 만나는 것을 삼가라. 여색과 만나면 재앙이 생긴다. 아라한이 되고 나서야 그대 자신의 생각을 믿어도 좋다"

그리고 대중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살게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간의 처신이 문제가 된다. 사람이 많다 보면 좋은 사람만 있을 수는 없다. 나쁜 사람과도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악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 경에서는 "지금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해도 내가 그 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던 재앙은 저절로 그 사람에게 돌아간다. 비유하면 메아리 소리에 응하고 그림자가 형상을 따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끝내 허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악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는 현대와 같은 대중의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본보기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앞에서 말한 신화는 실제로는 그런 점이 없는데 없는 것을 있다고 잘못 판단하게 하는 신념체계이다.

현대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 즉 돈일 것이다. 특히 오늘의 한국사회는 금전만능주의로 치닫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얼마나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는 더 이상 논의의 대상조차 안되는 경향이다. 이러한 잘못된 흐름에 대해 이 경에서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릴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다. 즉 사람이 재물을 탐하는 것이 마치 칼날위에 있는 꿀을 탐내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혀를 베일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칼날위에 있는 꿀은 먹기 곤란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라고 이 경에서는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십이장경〉은 과거에 결집된 경전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는 많은 가르침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 경의 각 장은 〈아함경〉에서 인용한 것이 많은데 단욕멸애(斷欲滅愛)의 정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 인간의 삶은 본래 고(苦)인데 그 고의 원인과 고를 없애는 대처법에 대해 알기쉬운 비유를 들어 설한 것이 이 경의 특징이다. 또한 이 경은 초기경전의 성격이 강하고, 무상, 무아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대승적인 보시공덕과 보살정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짧은 시간에 불교의 핵심을 간파하며 읽을 수 있다.

현대인 삶의 본보기 42장으로 함축

苦를 없애는 대처법 아함경서 인용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미의 피부미학을 추구합니다.

신토불이 무공해 오염되지 않은 피부! 신선한 自然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종 유해 대기속에서 지친피부를 바라보는 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선한 자연속에서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야 간절하지만 …
바쁜 일정속에서도 만족하고 싶은 자연의 美!
이제 세안·샤워하실 때 만큼은 항생제를 쓰지 않는 천연 무공해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를 사용하세요.



● 오보크린은 알부민푸로테인과 레시틴등의 생리활성물질(호서대학교와 C.T.F. 연구개발팀의 공동연구 개발물)을 기본원료로 하고, 한국인의 체질에 적합한 일곱가지 한방재료 추출물들을 첨가한 천연소재의 비항생제성 피부 친화적 항균면역피부미용비누입니다.
● 오보크린은 피부에 감염되는 병원균들에 대해 직접·간접적인 생리작용으로 항균효과를 발휘하여 주부습진, 비듬, 무좀등을 예방하고, 피부의 자연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공해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을 피부로부터 배출시켜 항상 싱싱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첨단 생명공학적 건강미용 비누입니다.

첨단의 생명공학기술과 전통의 동의학으로 탄생한 신개념의 비항생제성 항균 면역피부 미용 비누

C·L·E·A·N

- 한방재료추출물 (오미자, 구기자, 감초, 숙지황, 천궁,계피등)을 첨가하여 한국인의 체질에 맞게 만든 무공해성 신토불이 비누
- 피부에 미백효과가 있습니다.
- 99.9% 천연소재 사용
- 공해(매연, 산성비)로 인해 오염된 중금속배출 능력이 우수합니다.
- 주부습진, 여드름, 가려움증(비듬, 무좀등) 예방에도 좋습니다.
- 항균·항진균효과(anti-bacterial & fungal effect)가 있어 피부에 자연면역 기능을 증진시키며, 장기간 사용시에도 병원균들이 내성을 갖지 않습니다.

추천의 글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 기 영
"오보크린"은 공해로 인해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어내고 피부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할뿐만 아니라, 우수한 항균력과 면역기능까지 부여한 첨단생명공학적 고기능성 건강미용비누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이학박사 김 영 준
대기 및 실내에 산재된 각종 유해 중금속입자 및 오염물질들을 신속하게 제거해 주는 "오보크린" 건강미용비누는 이들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도시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제공해 줄 것이라 기대됩니다.

강원대학교 축산가공학과 교수 이학박사 최 면
세면비누는 미용필수품이지만 "오보크린"처럼 과학적으로 입증된 항균성물질과 피부노화방지물질 등을 천연소재로부터 추출하여 첨가한 "건강기능성비누"는 차세대 아이디어 상품이다.

신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원 석 희
오보크린"은 피부에 유익한 생리활성물질에 한방재료성분을 첨가하여 만들어낸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건강미용비누로서, 어느 외국제품과도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첨단기술력의 제품이다.

(주)씨·티·에프 호서대학교 호서신기술센터 內

구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02)737-8881

광고문의
현대불교 생활정보
광고 효과도 좋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광고주께서 기대하시는 광고효과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생활상품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신생아작명 역학개인지도
738-2045.2046
조계사옆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전문시술원 張三洙
목·허리 디스크 **중풍 좌골신경통** 오십견·비만
퇴행성 · 류마티스관절염
압구정역 (주)543-7306 (아)711-4370

현정 심성개발·상담센터
Tel. (02)583-0041 (지하철 사당역앞)
▷ 본 상담센터는 개인상담을 통해 마음이 아파 혼로서기 힘든 사람들과 마음 나누기 하는 곳입니다
▷ 오전 전화상담, 오후 면접상담
▷ 적성 인성 등 각종 심리 TEST
▷ 심신개발 및 감수성 훈련(ST) 소그룹 지도
▷ 단전호흡을 통한 심신건강 및 집중력 기르기
▣ 신경성, 집중곤란, 대인불안등 스트레스 적응법 지도

강 태극권·생활역학강좌 좌
문의 02)242-6188
(장안동 촬영소 사거리)
금륜정사
※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안내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논산군 연산면 송정리
▷법당 : 목조30평, 요사2동(25평,조립식 51평)
▷대지 : 사용평수3,000평
▷특징 : 대전, 논산 중간지점 산세수려하고 약수물나옴. 사찰창전 30년이상됐음.
▷가격 : 1억5천(가격조절가능)
전화 : 0461)34-1742 · 011-425-1362

● 위 치 : 경기도 여주군 ●
- 평 수 : 법당 10평, 요사채 30평(기름보일러)
- 가 격 : 양도가 3,000만원(절충 가능)
- 교통편리(여주읍에서 10분거리,서울에서 1시간거리)
※ 개인사정으로 급매함
연락처 0337)84-4420

사찰
◆위치:경기도 동두천시
◆평수:100평 (법당 및 용왕전·산신각 별도)
◆요사채:구옥 3칸
◆내 가: 5,000만원
▶연락처
전화0351)63-6735
H.P 011)271-2136
B.P 012)346-2136

포교당 안내

포교당급매
● 위 치 : 대전광역시
● 평 수 : 40평
-법당 30평, 요사채 2칸
-욕실완비
● 가 액 : 전세 3,800만원 (시설비 포함)
▶문의처
042)527-0559
02)372-0037

포교당적지
-단독주택-
● 위 치 : 은평구청뒤 숲속
● 대 지 : 98평 (공원용지 20평 별도)
● 건 평 : 지상 1·2층 48평 지하 23평
● 희망가격 : 3억 8천만원 (싯가의 70%)
▶문의처
011)243-9238(H.P)
02)387-8159
02)778-5548(주)
0343)64-7828

기타정보

암자토굴터
▷위 치 : 경남 의령
▷평 수 : 1,500평
▷가 격 : 1억
죄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게 짜였고, 앞의 저수지 옆에 계곡을 낀 최적의 암자터
전화 :
0595)82-4715
015)528-4477

간경화·완치 보장
성인 백혈병·AIDS
만성 신장병·암·神病
정신질환·원인모를 病
대체의학
완치 책임보장 치료후 병원 검사결과 및 외견상 완치가 아니면 치료비를 받지 않습니다.
TEL : 0552-82-8128 · 8118
H.P. : 011-559-8128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우계동 보은암

氣치료(초능력)
● 병마로 고생하시는 사부대중(스님도 환영) 불치병, 난치병, 고혈압, 심장병, 속병, 간병, 오래된 두통, 부인병, 전신마비, 수족떨림, 초조불안, 공포증, 정신이상(神病),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병 기적같이 고쳐짐.
● 교통사고 후유증, 수술 후유증 및 장애자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병.
● 불사후 아픈 스님 상담
충남 연기군 서면 와촌리 80-1
(조치원역에서 10분거리)
광불사
주지 대원 합장 0415-63-0749

佛 여래미술원 心
* 탱화 * 개금
정우택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92-1 (봉선사 입구)
사무실 0346)571-5537
0346)575-5133
H. P. 011-324-5133

大圓佛教美術院
金魚 李鍾春
* 불화 조성 전문
13,15,16회 불미전 입상
0346)571-6581(화실)
011-737-6581

공 고
제 1 호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보존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 9조 1항에 의해 아래 회원은 활동정지(제명)함 것을 공고합니다.

● 활동정지(제명) 대상자 ●
- 이수자 : 김형택, 박인섭, 이삼길
- 전수생 : 서완석, 이정오

1997년 월 일
봉원사 영산재 보존회
회장 김 대 운

◆위 치 :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부 지 : 1,638평 / 법당 : 20평
◆요 사 : 20평 / 시설 : 무상기증
◆가 액 : 땅값만 평당 10만원
◆특 징 : 시 중심지에 소재한 기도도량으로 납골당, 유료양로원 기타 종교시설 부지로 적합함.
전국 사찰 및 포교원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 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신속하게 연결 드립니다.
양도의 사찰 법물, 세무, 회계 및 감사업무 대행도 무상상담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전국지역 사찰 건축, 단청 전문기업
동국불사 불사담당 : 조법사 합장
상담전화:012)1648-6334(24시간 호출要)
서울본사:02)3705-4447
(출장중이 많사오니 호출을 부탁드립니다.)

탁자, 단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창시(대원사) 대웅전 수미단 당집 문짝
• 시흥(비화사) 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 음성(성보사)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다
• 마산(진관사) 대웅전 문짝 당집
• 포천(약천사) 대웅전 문짝 당집
• 단양(천진사) 대웅전수미단당집경다경상
• 서울(힐링사) 외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不老化精 안내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효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밤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목투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如來健康院 合掌
☎ 053)655-2227

부전스님 모십니다
산세 수려한 조그마한 암자에서 신심있는 도반겸 공양주 분을 구합니다.(40세 이후)
위치 : 충남 홍성군 대흥산 성불암
연락처 0451)34~4286

◆ 포교당 ◆
■위치 : 서울 금천구 시흥5동
■평수 : 3층 23평
■가격 : 전세 6,000만원
연락처 02)802-9369

사찰최적지
● 위 치 :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 상부진마을위(백운산 계곡)
● 실사용평수 : 3,000평 ●등기필평수 : 465평
● 가 격 : 4,800만원
● 옥산유원지위 물 1급수, 폭포
▶연락처 053)767-5635

사 찰
◇ 소재 : 미량시 청도면 소태리 천황산
◇ 평수 : 18,500평
◇ 가격 : 1억 2천만원
◆ 절터로도 최적지임
※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0594)867-4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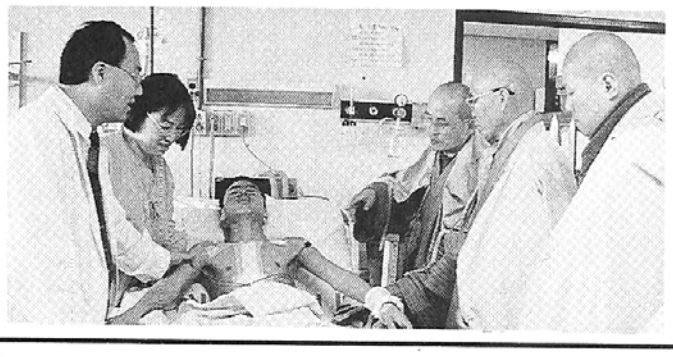
토 굴 안 내
◇ 위 치 : 충남 서천군 판교면 홍림리
연락처 0463)32-5927

함께 나누는 사랑 · · · **감 로 심 장 회** · · · 삶을 나누는 사회

감로심장회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심장병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한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형편이 어려운환자를 도와드립니다** ●
심장병 안면기형 안과(백내장 녹내장)

● **환 자 접 수 서 류** ●
- 종합병원 진단서(병명기재)
- 주민등록 등본
-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 전·월세 계약서 사본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환자 증명사진 2매
- 의료보험카드 사본
- 추천서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감로심장회의 사업에 동참하실 분은 아래의 접수처로 연락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감로심장회 사무국
주소 : 경남 진주시 평안동110-2번지
전화 : (0591)747-0106 팩스 : (0591)747-0107
● 후 원 회 비 송 금 안 내 =〉 온라인 계좌번호 안내 ●
▶ 국민은행 : 652-01-0484-878 ▶ 상업은행 : 756-05-001291 ▶ 농 협 : 803-01-351451
▶ 서울은행 : 85901-2695902 ▶ 경남은행 : 567-07-0001999 ▶ 우체국 : 610774-0243181
▶ 중소기업은행 : 174-030178-01-015 ▶ 지 로 : 7616413 ▶ 예금주 : 감로심장회

책방 여시아문이 권하는 9월에 만나는 불서

"이웃에의 베풂은 곧 자신에게의 베풂입니다"
회갑, 결혼, 조상 천도, 기일, 장례 등 슬픔과 기쁨을 나누는 날에 부처님 법을 전합시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으로 문의 주십시오.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불교입문·불교학 일반
불교의 이해 동봉/ 고려원/ 8,500원
불교입문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부/ 3,500원
불전에서 가려뽑은 명구 이혜성/ 민족사/ 5,000원
불교를 찾아서 석지현/ 일지사/ 8,500원
부처님의 생애 박경훈/ 불광/ 6,000원
술몽쇄언 김대현/ 을유문화사/ 5,000원
한글 세대를 위한 불교 E. 콘즈/ 세계사/ 8,000원
정병조의 불교 강좌 정병조/ 민족사/ 6,800원
근본 불교의 가르침 김정빈/ 불광/ 7,000원
근본 불교 이해 마스다니 후미오/ 불교시대사/ 5,500원
바웃드하 불교 나까무라 하지메/ 김영사/ 4,500원
정토 불교의 세계 장휘옥/ 불교시대사/ 7,500원
한국 불교사 산책 김상현/ 우리출판사/ 7,000원

선
참선의 길 장순용/ 고려원/ 7,500원
초보자를 위한 선 김대현/ 민족사/ 6,000원
100문 100답 선불교 강좌편 상·하 일지/ 대원정사/ 각 8,000원
마음을 다스리는 법 김정빈/ 둥지/ 7,000원
명상 길라잡이 박석/ 도솔/ 8,500원
깨달음의 길 거해/ 담마간다/ 6,000원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 마하시 사야도우/ 경서원/ 3,500원
살아 있는 선 류원장/ 성하/ 9,000원
선문촬요 서산대사/ 불서보급사/ 4,500원
선의 정신의학 김종해/ 불광/ 6,500원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 경서원/ 9,000원
선 이야기 일지/ 운주사/ 8,000원
중도선 법산/ 운주사/ 7,500원
하이데거와 선 한스 페터 헴펠/ 민음사/ 10,000원
밥그릇이나 씻어라 이운윤/ 자작나무/ 8,500원
화두 이야기 고목/ 삼양/ 7,000원

법어집
달을 듣는 강물 수월/ 해냄/ 6,500원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장순용/ 세계사/ 6,000원
경허선사 이홍우/ 민족사/ 6,800원
마음 닦는 길 지눌/ 불일출판사/ 4,000원
부처님이 계신다면 탄허/ 교림/ 6,500원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2,500원
영원한 자유 성철/ 장경각/ 6,000원
중생이라는 이름의 부처에게 현대불교신문사(편)/ 여시아문/ 7,000원
평화로움 틱낙한/ 장경각/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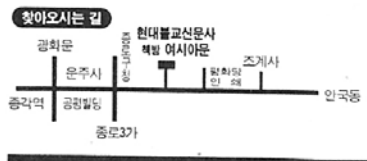
수행지침서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법륜/ 모색/ 7,200원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효림/ 7,500원
네 발밑부터 살피라 정념/ 장승/ 6,000원
나는 누구인가 라마나 마하리쉬/ 청하/ 5,500원
두번째 출가 현진/ 새날/ 6,500원
재미있는 큰스님 이야기 임원용/ 여래/ 6,000원
불교의 이해와 실천 1, 2 이중표/ 대원정사/ 각 8,500 9,500원

경전 해설서
금강경대강좌 이제열/ 여시아문/ 8,000원
밀린다팡하 동봉/ 홍법원/ 4,500원
법화경 연구 서성우/ 운주사/ 10,000원
보현행원품 강의 무비/ 민족사/ 6,500원
불교대전 한용운/ 현암사/ 19,500원
신 반야심경 강의 혜담/ 불교시대사/ 5,500원
유마경 장순용/ 시공사/ 12,000원
육조단경 광덕/ 불광/ 12,000원
한 권으로 읽는 팔만대장경 진현종/ 들녘/ 15,000원
한글 아함경 고익진/ 동국대 출판부/ 12,000원
화엄경 강의 무비/ 불광/ 9,000원
해설 반야심경 청담/ 보성문화사/ 9,000원
금강반야바라밀경 해안/ 불서보급사/ 4,500원
법구경 김달진/ 현암사/ 8,000원

전기·불교문학·불교예술
역사로 읽는 원효 김상현/ 고려원/ 6,800원
원효대사 이광수/ 우신사/ 5,000원
원효 고영섭/ 한길사/ 8,000원
인연 서정주/ 민족사/ 3,500원
한국 선시 김달진/ 열화당/ 15,000원
죽는 법을 모르는데 사는 법을 어찌 알랴 조오현/ 장승/ 5,500원
한국의 불교 미술 홍윤식/ 대원정사/ 8,500원
조선미의 탐구자들 한영대/ 학고재/ 12,000원
한국 불교미술의 형식 문명대/ 한·언/ 14,000원

교양
과학과 불교의 신비 아끼야마 사또꼬/ 고려원/ 4,000원
과학과 불교의 실재 인식 앨런 윌리스/ 범양사 출판부/ 4,000원
과학 철학이란 무엇인가 박이문/ 민음사/ 7,000원
삼국사기 1, 2, 3 이재호/ 솔/ 각 12,000 13,000 12,000원
삼국유사 1, 2 일연/ 솔/ 각 8,500 9,000원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 가지 주제 정승석/ 대원정사/ 7,800원
책 안의 불교 책 밖의 불교 김호성/ 시공사/ 6,500원

생활 속의 불교
그까짓 살좀 있으면 어때 학림/ 여시아문/ 5,000원
예불문 전재성/ 한국 빠알리 성전 협회/ 3,500원
천수 다라니 공덕과 의미 전재성/ 이바지/ 4,500원
이판사판 야단법석 안길모/ 한강수/ 8,000원

찾아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통신판매 안내
책방 여시아문 주소: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02)737-0695, 732-1521
팩스:(02)737-0696

장항리 東오층석탑 방치 '신라의 향기' 복원 마땅

경주시의 보문단지를 지나 덕동호의 꼬불꼬불한 산길을 끼고 돌면 활용골. 그 곳을 지나면 기림사, 감은사지, 감포 가는 길로 이어진다.

기림사 가기 전에는 주유소가 있는데 그 곳을 우회전하여 3㎞쯤 가면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절터가 나온다. 그 절터에는 국보 236호로 지정된 서5층석탑이 있다.



탑신 윗부분의 부서진 모습이 묘하게도 세월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었고, 천년의 숨결이 코 끝에 와 닿는 것 같았다. 동탑의 육중하면서도 날렵한 모습과 조화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장항리사지의 서5층석탑과 동5층석탑은 천년을 이어 온 신라의 향기이다. 그런데 동탑의 기단은 〈사진〉과 같이 주위에 방치돼 있어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길 기원한다.

강충성〈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독 자 마 당

· 보낼 곳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전화 : (02)722-4162
· 팩스 : (02)737-0698
· 천리안 : aeum
· 하이텔 : 34713

고달사지 무분별한 탁본 국보문화재 훼손에 충격

며칠전 고달사지에 가봤다. 옛 풍경은 거의 사라진 채 부도, 석조대좌 등 석조물만이 남아 그 흔적을 말해 주고 있었다. 절터는 논과 밭으로 바뀌었고, 변변한 보호시설물 하나 없었다.

또 국보로 지정된 고달사지 부도의 사천왕상에 검은 먹물이 더덕더덕 찍혀 있는가 하면 옥개석 바로 밑의 비천상은 아예 시커먼 먹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분명 탁본을 한 흔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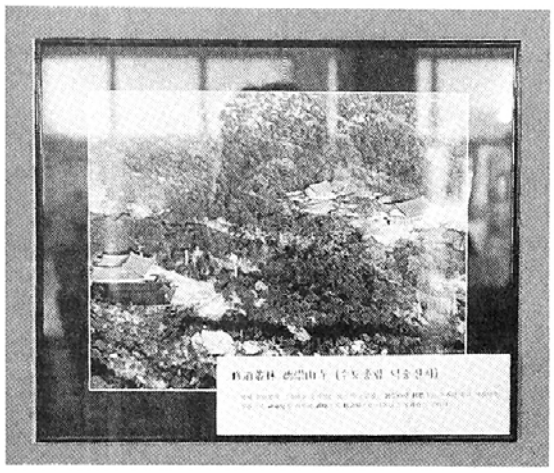
탁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옛 문화를 진정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귀중한 문화재에 손상을 입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연희〈서울 강동구 성내1동〉

BBS사태 8개월째 공전 조속한 진상규명 절실

불교방송 애청자의 한사람이다. 한푼 두푼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전용방송으로 개국했던 불교방송. 속세의 추악한 욕심에 휩싸여 탐욕으로 얼룩져버린데 대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불교방송 직원들이 공금횡령으로 구속되고 재판을 받는등 8개월여에 걸친 검찰 수사에도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던 와중에도 이사장스님의 공금유용사건이 터져 나왔다.



웬 수도총림 덕숭산사(?)

수도총림 덕숭산사(?)라니.

추석을 며칠 앞두고 성묘를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예산역에서 다소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당시 대합실에는 그 고장의 명소를 소개하는 액자들이 걸려있었는데 수덕사를 소개하는 사진 설명에 '수도총림 덕숭산사'라고 씌여 있었던 것이다. 이는 '덕숭총림 수덕산사'의 오자.

역무원들의 무지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를 짐작케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고광〈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귀한 불교방송 사명 잊지 말아야

도대체 불교방송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사태수습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궁금하다. 검찰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사태수습을 바라는 것은 불교방송을 사랑하는 모든 불자들의 마음일 것이다.

김경희〈서울 노원구 상계동〉

귀성고속도 '쓰레기 몸살' 차창 밖 투기행위 말아야

고향을 향한 사람들로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할 만큼 차들로 빼곡하고, 오고가며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습니다.

한때 불자들의 무분별한 방생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했던 기억을 상기시켜 불자들은 무심결에 차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쓰레기로 우리 산천을 훼손시키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강숙자〈환경모임 아름다움회 회원〉

병영에서 온 편지

군법당에 불교만화 법어집등 절실

저는 강원도에서 군종병 소임을 보고 있는 문수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군법당에는 장병들이 볼 불교도서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 있어도 초심자가 이해하기 어렵운 책들만 있습니다. 이에 저는 불교만화를 통해 불교를 알기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것을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불교계의 군포교는 타종교에 비해 노력이 미약한 것 같아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법당에서 주는 쵸코파이·떡·과자가 때때로 집이 그리운 장병들에게 위로가 되긴 합니다만 불서 한권을 통해 배우는 지혜야말로 더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요즘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은 고학력자가 많고, 제대 후 진로를 위해 책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장병들은 법사님들의 좋은 말씀과 더불어 불교관련 서적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수〈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명월2리 사서함1호 천불사〉

제언

"북방동포에 불심 심자"

조계종은 최근 국제포교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생구제를 설파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종적 지역적 언어적 편견에 따라 포교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러나 무릇 모든 일에는 방책이 따르며, 그 방책은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다. 따라서 때로는 우선 손쉬운 해외동포들에 대한 포교가 국제포교의 일차적 방책이 될 수 있다.



이 정
〈경향신문 뉴미디어센터차장〉

해외동포들은 그 지역에 오래 전부터 거주하고 있어서 그 지역 문화를 비교적 잘 이해한다. 자신이 경험한 한민족 문화와 어떻게 상충하고 어떻게 조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안다. 또 이들은 현지 타민족보다 불교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강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해외동포는 국제포교의 교두보일 수밖에 없다.

올 여름 필자는 중국을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우리 민족의 집단 거주지를 근 한달에 걸쳐 취재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 중 무려 45%에 이르는 2백30만명이 이들 지역에 살고 있다. 이들은 국권상실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이다.

동포들이 사는 지역마다 한국기독교는 거미줄처럼 선교망을 구축해 놓았다. 기십명에서 백여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오죽하면 중국정부가 나서서 외국인이 선교하다 적발되면 2년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했을까. 이런 판국에 한국불교의 진출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알마아타의 박일 교수(전 김일성대학 부총장)는 "왜 한국정부는 기독교만 장려하고 있는가, 왜 민족종교인 불교는 침묵하고 있는가"라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 모교수는 알마아타에 세운 원불교교당 개원식에 참석하여 강연했다고 현지 고려일보가 보도하고 있었다.

또 중국 선양의 동방조선민족전통문화연구소 김보민 소장은 "장사꾼만 중국을 찾을 것이 아니라 문화가 더불어 진출해야 한다. 그것만이 해외동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현지 당국자들은 "기독교와는 달리 불교는 현지의 소수민족들이 믿고 있는 종교라서 막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거듭 주장하지만, 국제 포교의 단기적 목표는 해외동포 포교여야 한다. 그것도 독립국가 연합과 중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이 그 일차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민족종교로서의 불교를 전파함으로써 민족동질성을 찾아 주고, 더나아가 이러한 불교문화의 수혈이 한국경제의 출로를 열어 주는데까지 이어진다면 더 바랄 나위없이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만화 백유경 百喩經

이 향 원



2천만의 깨달음을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 대 불 교

전국 어디에서나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 취재, 구독, 광고, 사업 ■
가까운 현대불교신문 지사·지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사	051-634-5114
광주지사	062-375-9986
대구지사	053-768-8008
목포지국	0631-281-2534
속초지사	0392-636-3923
북인천지국	032-541-8770
청주지사	0415-63-3873
강릉지사	0391-653-1518
인천지사	032-461-3461
춘천지사	0361-241-0633
대전지사	042-625-1080
안산지사	0345-411-4580
진주지사	0591-747-0106
마산·창원지사	0551-84-0735
공주지국	0416-55-0020
고성지국	0556-72-0078
예산지국	0458-33-5097
포항지국	0562-252-7749
고양지국	0344-912-2323
영주지국	0572-34-3429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24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 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 사물(목탁, 태징, 요령,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등
중급과정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 법 반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의식전문 법사 과정(2년제)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교육기간 : 3개월 (각 과정)
■ 원서접수 : 1997년 9월 1일 ~ 10월 6일
■ 개강일시 : 1997년 10월 6일 오후 5시 정각
■ 대학통신과정
⊙ 법사과정 ⊙ 삼장법사과정 ⊙ 해외포교과정

※ 본원은 초중파 교육도량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 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 할 수 있도록 지도함.
※ 전화·서신문의 하면 안내서 보내드림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번지
탑골공원 뒤 허리우드 극장옆 경동빌딩 3층
전화 : 741-049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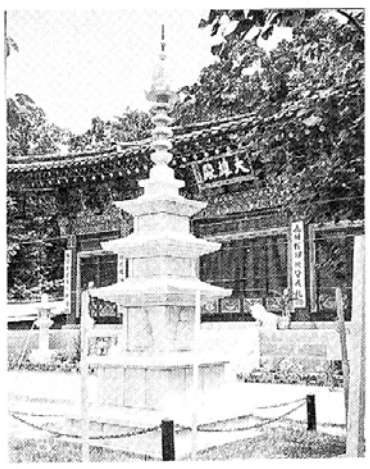
海東佛教大學
學長 張二斗
海東梵音大學
學長 鄭大隱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불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예사

귀의 삼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물러주시기 바라옵니다

김 인 호 합장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불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덕비 제작설치
● 안 양 삼성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송도선원 - 원형천지탑 및 십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영산법화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대행스님 부산 대법회

28일 사직체육관… '팔만대장경 전산화' 동참호소

21세기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부산 대법회가 28일 오후2시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봉행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부산방송,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법회는 문화선진국으로서의 초석이 될 팔만대장경 전산화를 위한 전국민적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 대행스님은 '삶은 고(苦)가 아니다'를 주제로 대긍정의 가르침을 베풀어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숨통을 틔워주고, 나아가 불교도의 결집을 촉구, 대장경 전산화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한다.


◇대행스님

이 법회를 주관하는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스님은 "7백여년 전 고려대장경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이 불사는 나라 안팎으로 끊이지 않는 사회혼란 극복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옛날 고려인들이 온갖 노력으로 팔만대장경을 새겨 국난을 극복했듯이 전 불교도가 앞장서 21세기 팔만대장경 불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장경연구소는 대장경 전산화와 함께 팔만후원인의 이름을 새기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후원금을 납부한 8천여 가족 중 6천여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상태. 각 가족이 보낸 사연을 싣지 않는 대신 '남북통일'이나 '가족안녕' 등 후원인 공통의 사연을 CD-ROM 타이틀 초기 화면에 띄울 계획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은 특별히 부처님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설한 〈열반경〉에 담는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051)403-7077

〈윤기석 기자〉

불교방송 발전위한 공청회
진상규명 · 재정위구성 제안

'어떻게 방송재정을 확충할 것인가'는 주제로 10일 열린 불교방송 발전을 위한 제1차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선행, 방송재정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기영 교수의 사회로 윤청광씨 권오현 전무, 김재일 회장, 선상신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금횡령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 선행 △공금횡령사건 관련자 퇴진 △직무를 방임한 이사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등 법적 대응 촉구 △이사회 개편 △경영합리화 노사갈등해소 △재단사무국 해체 △재단이사회 산하 가칭 '방송재정위원회' 구성 △불교방송후원회의 방송국 산하 편입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기조발제를 맡은 윤청광씨는 횡령금 23억의 전액회수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가위 밝힌 '자비의 보시'

삼광사 소년가장에 1천만원 성금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덕수)는 3일 법화당 4층 법회실에서 추석맞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역거주 무연고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1백세대가 초청된 이날 행사에서 삼광사는 각 세대당 1십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한편 다과회를 베풀고 이들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덕수스님은 "어려운 이웃을 내가족처럼 보살피는 것은 부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며 "비록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하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고 꿋꿋이 이겨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덕수스님과 신도회장 김찬권씨를 비롯한 삼광사 스님 및 신도들과 부산진구청 직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논산벌 청정운동대회 청정운동추진위는 7일 육군 제2훈련소 연병장에서 장병 1만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운동 실천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남지심씨(우리는선우 이사장)가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주제로 강연했다.

종단소식

조계종

금오문도회 수련법회

보은 법주사(주지 혜광) 금오문도회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2일간 설법전에서 제6차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회에서는 금오대선사의 행장 및 선사상, 새 시대의 승가상, 선의 풍토와 정신 특강 등이 진행된다. 한편 법주사는 10월6일 금강계단서 추계 보살계 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월정사 경월스님 부도제막

진부 월정사(주지 현해)는 22일 경월스님 제2주기 추모법회 및 부도제막식을 봉행한다. 이에 앞서 월정사는 10일 지장암 비구니 감원(암자의 주지)을 역임하다 95년 열반한 혜종스님 부도제막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용문사 운전자 무사고기원

전북 완주 용문사(주지 송오)는 6일 전북 운수연수원에서 '운전자 무사고 기원제'를 봉행했다.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운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는 국악인과 합창단 공연 등 식전행사에 이어 2부 기원제, 3부 식후행사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유남파 전북종무원장을 비롯 전북종무원 산하 각 사찰 주지 및 신도, 운수업체 종사자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30일 행자소양시험치러

총무원(원장 인곡)은 9일 종무회의를 열고 행자소양시험을 오는 30일 총무원에서 치르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자소양시험은 현재 각 말사에서 교육중인 행자 1백여명에 대한 면접으로 치러지며, 시험에 합격해야만 오는 11월 열리는 합동득도 수계식에서 계를 받을 수 있다.

천태종

관문사 부주지 도재스님

총무원(원장 운덕)은 4일자로 관문사 부주지와 금강학원 사무처장 자리를 신설하고 남궁도재(사회부장), 김도원(교육부장)스님을 각각 겸임 발령했다.

종단 책임부전에는 류화산스님(전 의전국장)이 임명됐다.

김천 금강사 대법당 상량

김천 금강사(주지 지도)는 11일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당 상량식을 봉행했다.

지난 96년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진행중인 대법당은 1백75평 규모로 내년 4월 완공될 예정이다.

법륜종

재단이사장 정각스님 취임

종단 유지재단법인 제2대 이사장 정각스님 취임식이 10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취임식에는 1세종정 금암스님, 종정 일화스님, 혜우 총무원장스님을 비롯한 종단간부와 김지견 대한전통불교연구원장, 정명선 해양대 총장, 구자순 대한불교부인회장, 권오현 예비역군법사회장, 이지행 대원회 상임법사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원효사 대웅전 낙성식

공주 원효사(주지 일화)는 7일 대웅전 낙성식을 봉행했다. 1년여 공사끝에 낙성한 대웅전은 연건평 1백30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지상 1층에는 요사채가 2층에는 대법당이 마련됐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경허-만공-금오스님으로 내려오는 한국선종 정통법맥을 이은 성림당 월산대종사의 영결식이 1만여 사부대중의 애도속에 불국사에서 봉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중도사상 펴며 평생 '이뭣고' 참구

월산스님 생애와 사상

"무명에 가린 중생을 구제하는 길은 참선밖에 없다. 나의 사상은 참선 뿐이야. 이것만큼은 죽을때까지 할 것이야."

평소 이렇게 강조해온 그대로 월산스님은 평생을 참선수행에 매진했다. 스님은 43년 금오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이후 조계종 정화불사에 앞장섰고 총무원장, 원로회의의장 등 종단요직을 두루 맡았으며 한때 종정의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평소 조국통일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여 89년 토함산 정상에 남북통일 기원 대종을 조성하기도 했다. 1백80cm가 넘는 신장에 선풍도골의 위의를 갖춘 스님이지만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모든 불자들을 맞이했다.

스님의 생애는 한국선불교의 양대산맥의 하나인 덕숭문중의 경허 만공 금오로 이어오는 법맥이 관통한다.

스님은 1968년 음력8월 은사 금오선사에게 전법을 부촉받았다. 금오스님은 열반직전 법주사에 문도 제자들을 모이게하고 오른손 바닥을 보였다. 그때 월산스님은 "훤연히 본래사를 깨달으니 부처와 조사가 어디에 있느냐. 뱃속에 건곤을 간직하고 몸을 돌려 사자후를 하다. 세우지 않고 버리지 않고 쉬지 않는다(홀각본래사 불조재하처 토이장건곤 전신사자후 불립 불사 불휴(忽覺本來事 佛祖在何處 肚裏藏乾坤 轉身獅子吼 不立 不捨 不休))"라고 게송을 읊었다. 이때 금오스님은 인가하고 법주사 조실을 맡겼다.

스님은 득도한 이래 만공스님에게 받은 '이 뭣고' 화두를 놓지 않고 정진했다. 스님은불국토 경주의 한 중심 불국사에 선원을 열었다. 그리고 스스로의 참선수행과 함께 후학을 지도해 선종가풍을 진작시켰다. 나아가 스님은 법주사를 비롯 10선원에 조실을 맡았고 경주시내에 부인선원을 개원해 대중속으로 선을 전파했다.

맏상좌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붙잡혀 수감된후 〈육조단경〉을 접하고 발심출가하셨다"고 전했다. 이런 인연으로 스님은 거처에 육조 만공 금오스님의 근영을 모셔놓고 스스로 경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은 양쪽을 포용하는 중도(中道)사상을 강조했다. "중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중도관은 일체 것을 초월해서 일체것을 여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돈점논쟁(頓漸論諍)에서도 초연한 입장을 견지했으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깨달음의 길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선이란 해탈과 자재를 여는 요체"라는 법문을 내리곤 했다.

10여개선원 조실 '선풍진작'…통일에도 큰 관심

월하 · 석주스님 등 참석

○…영결식장에는 스님의 선풍을 가늠케하듯 제방의 스님들이 대거 참석. 열반 이튿날 이른 아침 분향한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통도사 방장)을 비롯해 원로회의 의장 혜암스님, 부의장 벽암스님(신원사조실), 칠보사 조실 석주스님, 불갑사 조실 지종스님, 화계사 조실 숭산스님, 해운정사 조실 진제스님 등 3천여명으로 추산.

특히 화계사 송광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 10명과, 교포3세로 월산스님과 숙성이 같은 일본 선태 불국사 주지 동화성림(東和聖林)스님이 애도해 눈길.

월산스님 애도 열기

유훈따라 사리 수습 안해

○…장의위원회는 스님의 사리는 문중의 가풍과 스님의 유훈에 따라 수습하지 않는다고 발표. 이에대해 사리신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제시했다는 반응.

○…스님은 96년 봄부터 노환을 보여 올3월 폐렴으로 한차례 입원했으며 8월들어 중환을 보였다고. 특히 스님의 상좌들은 2년여 간병에 극진해 위계가 흐려지는 요즘 승단풍토에 바람직한 '효(孝)상좌'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

정치인 다수 조문 발길

○…영결다비식에는 서석재 정각회장 · 함종한의원(신한국당), 조성준 · 정한용의원(국민회의), 이인제 前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들도 다수 조문.

○…금오문중의 수장이던 스님의 열반으로 불국사 법주사 조실 추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 그러나 49재가 지나야 문중논의가 있지않겠는가 하는것이 주위의 분석.

중국명문 한의대 박사과정 연수

침·기공 연수

■연수 대학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남경한의대) 중국 남경 TEL: 660-7129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침 · 기공에 관심 있으신분
■기 간 : 8박 9일
■주요연수내용 : 당뇨병, 중풍. 간염, 비만, 좌골신경통 등의 침치료, 기공등
■연 수 후 : 국립 남경중의약대학 고급과정 수료증 수여(高級課程 進修 證明書)
■인 원 : 10명 선착순
■출 발 일 : 1997년 10월 21일(화)
■문 의 처 : 자매대학 삼화불교대학
■전 화 : (02)511/2026-8

홍화마을

홍화씨로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식품 의약품안전국(F.D.A)
품 질 공 인!!

홍화씨의 효능은
이제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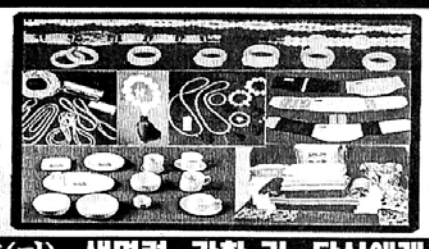


민속 홍 화 씨

작목반 박 래 환

TEL 053)943-9371
FAX 053)943-9371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 옥 목걸이 착용 10분후 찍은 손의 분광파장이 활발하다
연속 사용전 1.5mV 연속사용후 3.0mV로 체내전압 상승

옥복대, 베개, 반지 이렇게 하나씩 사용해 보세요 / 모든 병이 호전됩니다.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오십견, 두통, 불면증, 심장병, 치매방지, 신장염,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홧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듣습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91.3%, 어지러움증91.3%, 두통83.3%, 고혈압77.8%,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만을 꼭찝어서 사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옥산가 옥이 의약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의서 本草綱目에 진주은 백병을 다스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우권판매가)

난치병 치료

수백년 비전된 한방 의술로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고 있는고봉선생은 사암침술과 최고양질의 한약재로 만든 환약(알약)으로 치료합니다.

정신질환, B형간염(만성간염), 중풍(발병후 3년이내), 디스크(좌골신경통), 기관지천식, 신경성위장병, 심부전증, 관절염, 백혈병등 에 탁월한 효과

※ 당뇨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진료 : 매주 목요일, 일요일

▲ 주변에 병고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요?
▲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실패 한 분께 권해드립니다.

전화문의 : (053)628-9145
(053)655-3027

대구여래한방

법안정사 법회중단 '위기'

창건주와 운영권 마찰…주지스님등 사의 표명

지난 90년 효경스님이 목동 종교부지에 설립하여 도심포교의 모범적인 사찰이었던 법안정사가 창건주인 김법련화보살(부군 이병호변호사)측과의 마찰로 사찰운영이 공백위기에 처했다.

법안정사측은 최근 어린이, 청소년, 청년법회 교사와 간사들에게 '법회를 9월말까지 회향하라' 발표했다는 것. 이로써 창건이후 도심포교의 한 획을 그으며 일요신도법회, 부부법회, 청년법회, 청소년부법회, 어린이부법회등이 운영돼온 법안정사의 모든법회가 10월말 일순간에 사라지게 됐다.

현재 주지 효경스님이 대각회에 사표를 제출했는가 하면 다른 스님들도 이미 떠나시기 시작했다. 효경스님은 "창건주가 손을 떼야 끝나는 것 아니냐"며 "창건주가 시주를 가장 많이했다며 자기가 사찰을 운영하겠다고하니 어쩔 수 없지않느냐"고 말했다. 스님은 "사찰운영이 93년이후 창건주측과 마찰을 빚은 이후 파행을 거듭해왔다"며 "11월 19일 수능기도를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만큼 종무소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해 11월 19일 이후에 김법련화보살측이 사찰을 운영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했다.

법안정사 문제는 93년 창건주인 김법련화보살의 부군인 이병호씨(15대 대선후보. 변호사)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정사측에 따르면 이병호씨는 지난 14대 대선에서 참패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법안정사를 지목하고 주지스님이 도움을 주지않은 것은 물론 신도들조차도 자신을 찍지않았다며 불만을 표출했었다는 것. 그러다 최근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개종 한 것이 순복음신문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김법련화보살측은 사무장을 새로임명하고 효경스님등에게 조건없이 나가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

또 그동안 사찰수입도 제반경비를 제하고 5:5로 분할해왔다고 전했다. 법안정사는 4층 법당과 대지가 대각회 명의로 돼 있고, 지하1층에서 3층까지는 김법련화보살 명의로 돼 있다.

한편 현도스님(부주지및 포교원장)은 이번 10월 1천일 기도 회향후 절을 비워주면서 일산포교당 길상사를 개원하고 부부법회 합창단 교양대학 반쪽의 신도회등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찰운영권을 두고 창건주와 주지 신도대중의 이같은 갈등이 표출된 것은 법안정사가 처음으로 이를 계기로 종단차원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김원우 기자〉

"밝게 커가는 애들보면 뿌듯"

미혼모의 집 '보리수마을' 5년째 운영 **오정스님**



일반사회에서도 소외받기 쉬운 미혼모를 돌보는 스님이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오갈데 없는 미혼모와 아이를 5년째 돌봐주고 있는 주인공은 오정스님(동화사 재무국장·감천사주지).

스님은 93년 감천사(대구시 등구 진인동) 경내에 미혼모의 집인 보리수마을을 설립했다. 고아원과 장애아를 위한 시설은 있어도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거의 없다는데 착안한 것. 보리수마을은 대지 6백평, 연건평1백평의 2층 양옥 2동과 단층 1동으로 되어 있으며 대소의 방 15개가 마련되어 있다. 수용소 같은 답답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가정집처럼 안락하게 꾸몄다. 현재 18개월된 희주로부터 초등 2년생 효석이까지 9명의 아이와 3명의 미혼모가 입주해 있으며 4년여동안 40여명이 거쳐갔다. 요즘에는 소문을 듣고 매맞는 아내들도 찾아 오곤 한다.

보리수마을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월 4백만원선. 아이들 한명당 월 15만원, 미혼모들에게는 병원비를 포함 월 30만원이 소요된다.

보리수마을에는 총 75가구로 된 후원회가 조직돼 있다. 이들은 인등을 달고 월 3만원씩을 보시한다. 절에서는 대가로 생수를 배달해준다. 생수배달을 위해 새우물을 파고 정수기도 설치했다. 이렇게 해서 모인 보시금은 월 3백만원선이지만 아이들이 늘고 직원도 생겨 경비가 모자란다.

처음에는 스님이 직접 배달을 다녔다. 영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님이 물장사를 한다고 못마땅해 했고 일부 신도들은 절에서 애를 낳아 키운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가장 난감했던 일은 산모와 함께 산부인과를 찾을때. 스님은 미혼모와 장애아를 돌봐 줄 복지법인을 세우는게 꿈이다.

대구=이윤호 기자



이회창대표 종교편향대책위 구성

신한국당 이회창대표 특정종교편향 발언과 관련, 교계 17개단체는 신한국당이 6일 직접해명과 공식입장발표 요구시한을 넘김에 따라 '특정종교편향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 적극 대응키로 하고 조계사에 사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이어 불교대책위원회는 27일경 '특정종교편향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공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합동징수 동의"
당정, 관람료 간담회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 문제로 조계종과 정부가 대립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신한국당은 5일 조계종관계자가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기존대로의 합동징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재관람료 공원입장에 대해 조계종과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문체부 신한국당이 참석하는 5자합동회의를 10일경 갖기로 했으나 내무부와 관리공단의 입장조율이 되지 않아 추석연휴 이후로 연기됐다.

동산불교대 LA에 분교 개설

동산불교대학(이사장 김재일)은 19일 불교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LA관음사에 분교를 설치한다. 2년 4학기 과정에 50명 정원으로 개설되는 불교대학은 도안스님(LA관음사 주지)이 분교장을 맡는다.

김재일법사는 "분교설치는 한국불교가 기복적인 종교인 줄 잘못알고 있는 교민불자들에게 정법을 전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며 "박성배교수(동국대 철학과), 수운스님(하버드대 박사과정) 등 전문강사을 초빙해 알찬 교육과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일 법사는 개강을 기념 21~24일 LA 시카고 씨에틀에서 '한국불교와 재가불자들의 사명'이란 주제로 강연회도 갖는다.

신한국당 대선불교위 위원장에 서석재의원

신한국당은 11일 대선기획단 직능본부 산하에 51개 대책위원회와 8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서석재의원(국회정각의장)을 불교대책위원장에 불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하순봉(불교1) 김석원(불교2) 이상현(불교3)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이번 인선과 관련 서석재의원측은 12일 "5선의 중진의원을 일방적으로 대책위원장에 선임한 인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관스님 항소 기각 간첩죄는 무죄판결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의 항소가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국가기밀누설 등 간첩죄에 해당되는 일부 죄목에 대해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 김재진 부장판사는 "국내의 정치상황이나 종교계 소식 등 이미 공지된 사실은 기밀로서의 실질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다"며 "팩스를 이용, 캐나다 교포 강병연씨에게 문건 등을 전송한 것을 국가기밀누설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진관스님이 창작활동을 통해 북한을 고무찬양한 것, 국내 양심수 명단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실을 누설한 것 등은 국가보안법 4조1항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국회 농지법등 꼭 개정돼야"

조계종 적극 노력

조계종이 추진해 온 농지법과 자연공원법 개정이 10일 개회된 제185회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다루어 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일정이 100일에서 70일로 단축조정 됐으며 국정감사(10월 1일부터 18일)와 정치개혁법과 금융개혁관련법등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다루어 질 예정이다. 이에따라 98건에 달하는 법안에 대한 졸속심의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관련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농지법개정안은 농림수상해양위에 자연공원법은 내무위에 각각 계류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농지법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제184회 임시국회 이후에도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직접 여러차례 농림부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당정협의회와 국회정각회 소속의원들에 대한 접촉도 꾸준히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동징수의 법제화와 공원입장료에서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문화재 수리보존비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8월초부터 마찰을 빚고 있는 분리징수 문제와 관련 조계종이 최종시한으로 정한 10월 15일 이후 다시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 & 뉴스

대구공불협 23일 발대식

공명선거실천 대구지역 불교단체협의회(이하 공불협)가 23일 10여개 단체가 발대식을 갖고 부정선거운동 고발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053)426-7551

故장경호거사 22주기 추모

대한불교진흥원 설립자 故장경호 거사 22주기 추모법회가 7일 대원정사에서 열렸다.

법홍스님(원효종 종정)의 추모사로 진행된 이날 추모법회는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연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다.

총무원장 소송 고법기각

서울고법 제5부 민사부(부장판사 이흥웅)는 9일 황진경외 6인이 항소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김운성외 2인이 항소한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의없다고 기각했다.

'하느님' 호칭 찾아야

하느님 호칭 되찾기 범민족회의(공동의장 정근철)가 주최하고 부산불교자비원(원장 정각)이 주관한 '불교의 미륵신앙과 민족의 자각'이라는 주제의 대강연회가 7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교다이어리 무료배포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불기 2542(1998)년 포교사용 다이어리를 제작, 포교사들에게 무료배포키로 하고 제작에 들어갔다. 빠르면 10월중 열리는 하반기 포교사 연수회에서 배포될 다이어리는 19×26㎝ 2백50~3백쪽 분량에 포교법을 비롯한 포교사 관련 종법 및 규칙, 종무기관 안내, 각 지역별 신행단체 주소록 등이 수록된다.

목탁소리

어느 목사의 독선

김 중 근 〈취재1부 기자〉

종교란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얻고자 하는 정신문화이며 이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것은 성직자들의 몫이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성직자가 타종교에 대한 공공연한 파괴와 훼손을 일삼고 있어 경악을 넘어 자괴심마저 솟구친다.

대전 중앙성결교회 불교음해 전단배포 사건이 일례다. 이 교회는 故성철스님의 법문, 82년 봉축법어, 89년 신년법어 내용을 자의적으로 변조해 마치 자신의 종교만 종교이고 불교는 우상숭배, 도둑의 소굴 등으로 묘사, 비하하는 전단을 배포했다. 심지어는 승려복을 벗고 목사로 전향한 사람(?)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해인사와 통도사가 교회로 바뀌는 것이 꿈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이는 성직자로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몰지각한 처사다. 물론 '그까짓 전단 몇장 배포했다고 그렇게 난리냐'는 반론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이같은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는 것이다. 전도사들이 사찰을 방문 스님들에게 까지 전도행위를 일삼는가 하면 사찰에 불을 지르는 사태 등을 비롯 훼불사건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곤 한다. 문제는 이같은 사건이 모두 '불교타도'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비방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은 불자뿐 아니라 모든 종교인들 스스로가 피해자라는 점에서 매우 불행한 일임에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 불행한 것은 그 여파가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평안과 행복을 위해 종교간 머리를 맞대고 24시간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타종교 폄하와 타도에만 핏대를 곧추세우고 있는 저급한 이들. 바로 이들이 혼돈의 세기말에 나타나는 '갈 때까지 간 성직자'의 모습이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모름지기 종교는 배타적 독선의 교설을 버려야 한다. 종교다원주의에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은 종교의 기본 덕목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불교음해전단을 배포한 해당 교회는 참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서로의 종교관속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것이야 말로 진정 성직자의 자세일 것이다.

마음 자유인의 삶

인간답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다움의 삶, '모든 것을 오직 주처에서 하는구나!' 하고 멀고 가는 삶, 그것이 자유인의 삶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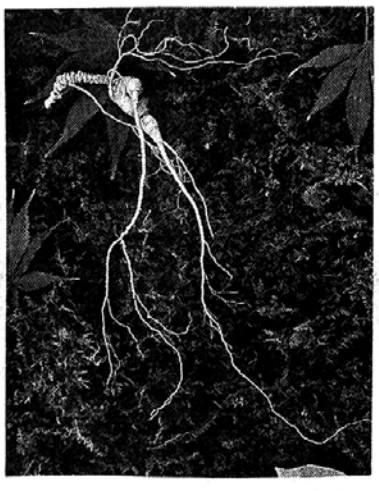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킬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奉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의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약용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아래에 불과하다고 기술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삼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한국생약보존(산삼)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불기 2542(무인년) 달력 보급 안내

동자승 (大·小)





산사의 향기 (大·小)





나한도 (小)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2년도 달력 **'산사의 향기**(大·小)-사진 안장헌', **'동자승**(大·小)', **'나한도**(小)'를 주문 받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바랍니다.
단체로 주문하실 경우에는 사찰명, 그리고 법회안내 및 주소, 전화번호를 인쇄하여 드립니다.

무인년 조견표가 들어 있습니다.

- 크기 : 小(26×26.5cm) 大(30×31cm)
- 매수 : 표지 포함 13매
- 특수고급제본

※ 견본이 필요하신 사찰은 전화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723-4306~7 FAX 738-8682
(야간) 011-265-0923

불교영화 3편 가을 제작

성철 성철스님 생애 · 구도기행 담아
동승 '엄마찾아 삼만리' 동자승 그려
인연 천년을 넘나드는 애정 코믹물

남만과 우수의 계절 가을을 맞은 영화가에 불교적인 주제와 소재를 바탕으로 한 불교영화 제작 바람이 불고 있다. 영상미와 예술성을 강조한 박철수필름의 '성철'(감독 박철수)과 스펙트럼필름 코리아의 '동승'(감독 주경중), 신선한 웃음을 선사할 율가필름의 '인연'(감독 이황림) 등의 영화가 크랭크 인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화 '성철'은 성철스님의 구도행을 그릴 영화로 갖은 산고 끝에 이달말 제작발표회를 갖는다. 박철수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은 해인사에서 3천배를 올린후 영화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철스님의 생가, 수행처 백련암 등을 주요배경으로 촬영할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박철수 감독은 단순한 성철스님 일대기에 급급하지 않고 스님의 생애와 구도행을 통한 진정한 불법 발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철스님의 청년시절을 연기한 연기자로는 현재 KBS-2TV 주말연속극 '파랑새는 있다'에 출연중인 병탈 이역의 이상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펙트럼필름 코리아의 '동승'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좇아 먼길을 떠나는 동자승 '도념'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원북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하는 '동승'은 주인공 도념 역에 백성현, 미망인 역에 이응경, 주지스님역에 권성덕, 젊은 스님 장심 역에 홍경인, 산사 촌부역에 최종원 등 캐스팅이 확정됐다. 동승은 24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순천 선암사 승주 송광사 안동 봉정사 등을 주 촬영지로 제작에 들어가 내년 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정적 불교영화 '동승'의 출연진들. 왼쪽부터 이응경, 백성현, 소경진, 홍경인.

박중훈과 김지호가 출연하는 로맨틱 SF 코미디 '인연'은 전생부터 인연의 실타래로 얽혀 있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코믹터치로 그린다. 노처녀 김양희와 남자친구 박지훈 두 주인공의 천년을 넘나드는 사랑을 유머로 풀어나가며 인연에 얽혀 있는 우리 삶을 묘사한다.

'성철' '동승' 등 불교영화들은 국내 개봉은 물론 해외진출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교영화의 한차원 높은 영상과 세련미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감지연 기자



세계적 희귀종 '가시연꽃'

세계적 희귀종 가시연꽃이 6일 광주 석문저수지에서 보라색 꽃을 피웠다. 7~8월에 개화하는 가시연꽃은 환경부가 보호식물로 지정한 꽃이다. 가시연꽃의 잎은 쪼글쪼글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져 잎의 직경이 2m가 넘는다.

한편 제43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경남과학고 공영식 · 백광석교사는 '멸종위기 가시蓮의 보호와 이용방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사진 · 선암스님〉

불교TV 가을개편

하루 18시간 5분 방송

'아침예불' '우리절…' 등 신설

불교TV가 22일부터 '아침예불', '영상 니르바나'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대대적인 가을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개편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은 매일 새벽 6시에 방송될 '아침예불'과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의 시간이 될 '영상 니르바나' 등이다. 도심지 포교당을 중심으로 불사이야기, 복지 신도교육 등 다채로운 이야기로 꾸며질 '우리절 우리스님'(PD 이인성)도 매주 토요일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 · 화요일 방송될 특선 다큐멘터리 '티베트 대탐사'에서는 티벳인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해발 6천여미터의 강립포체 성산을 비롯해 최초의 사원인 쌈예사, 최대의 탑 백거탑 등을 단날 수 있다.



어린이 만화영화 시간에는 '우주손오공'에 이어 지혜롭고 총명한 동자승 콩콩이 스승 지후이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담은 만화 '아기스님 콩콩'〈사진〉이 방송된다.

이번 가을개편에서는 평일 16시간35분이었던 방송시간을 18시간5분으로 확대, 주간 총 방송시간이 126시간55분으로 늘어났다.

자비의 법륜 ①

주부신행담

꿈속 검은그림자에 놀라 잠을 깨보니 집안에 '밤손님'이 들어와 있었다


그림 · 이준석

뚜벅뚜벅 검은 그림자가 언제부터인지 나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검은 그림자에 놀란 나의 가슴은 사정없이 방망이질 쳤고, 점점 무거워지는 다리는 더이상 한 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긴장돼 있었다. 살려달라고 매달릴 사람도 없이 골목은 고요하기만 했다. 나는 내 발자국 소리에 놀랐고, 내 뒤를 쫓는 그림자의 발자국 소리에 기분 나빴다. 그런데 집을 코 앞에 두고 골목길을 접어드는 순간 아~악.

"누구예요?"

가느다란 손전등 불빛에 놀라 나는 비몽사몽간에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누군가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급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꿈 속의 검은 그림자에 놀라 깨면서 집에 몰래 숨어 든 밤손님(?)을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남편도 없는 집에 도둑이라니 겁이 덜컥 났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심한 탓인지 어느 누구도 나와 보지 않았고, 나도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 집에는 나와 아이들만 있었다. 아이들은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도 아무 것도 모른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해 다행이었다.

한숨 돌리고 앉아 있자니 나를 놀라게 했던 도둑생각이 났다. 잠결에 국교생인 아들인가 착각을 했을 정도로 그는 왜소한 체격이었다. 그리고 도둑이 나가고 난 뒤에도 대문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 불을 켜고 뒷결으로 가 보았다.

뒷집에는 스무살 안팎의 남매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세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마치 딴 세상에 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두런두런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뿐.

하는 수없이 나는 방에 다시 들어와 없어진 게 없나 살폈다. 사실 집에는 환절기 감기에 걸려 병석에 계시는 친정어머니에게 한약이라도 지어드리려고 은행에서 찾아놓은 돈이 있었다. 핸드백을 뒤져 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아찔했다. 아, 이런게 도둑맞는다는 것이구나 싶었다.

내가 온집안을 돌아다니며 부산을 떠는데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있을 도둑을 생각하니 무서움이 엄습했다.

뜬 눈으로 밤을 밝히고, 대문 밖 공터에서 속이 텅빈 지갑을 찾았다. 주민등록증은 화장실 변기통 속에 있는 것을 큰아이가 발견했다. 도둑은 집안에 있다. 그렇지만 현장서 잡지 못했으니….

나는 뒷집에 가 어제 집에 도둑이 들었다면서 어젯밤 아무일 없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슬쩍 "도둑이 이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총각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나도 그가 도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그들이 도둑이라면 속을 끙끙 앓아가며 그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한지붕 밑에서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하니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해꼬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도둑은 부엌에 난 환풍기를 뜯고 들어와 바닥에 운동화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겨 놓았다. 단정지을 순 없지만 도둑을 버젓이 눈앞에 두고도 모른 채 참고 살기란 죽을 맛이었다.

도둑을 맞던 그날은 남편과 아침부터 싸운터라 하루종일 짜증스럽게 보냈다. 평소 집안일에는 신경도 안쓰던 남편이 그렇게 잘엘 자주 가면 애는 누가 보느냐며 신경질을 부렸던 것이다. 사실 난 매월 초하룻날만 절에 가다가 얼마 전부터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했다. 심지어 막내까지 과자 한봉지 들려 옆집에 맡겨놓고 가기도 했다.

김선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마음 밝히는 책들



혜원 엮음
신국판 288쪽
값 6000원

삶은 苦가 아니다 ····

삶의 혁명적 저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苦)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듯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여시아문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FAX : (02) 737-0696

"한국 불교 결집 21"

일시 1997. 9. 28. (일요일)
장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 불사를 위한 대행 스님 부산 대법회

삶은 고(苦)가 아니다

모든 과거의 결과들을 마음 안으로 놓아 나간다면
그것들은 모두 공(空)이 됩니다.
그것이 팔자, 업보, 운명을 넘어서는 방법인 것이며,
거기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창조적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순간 자기를 밝음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밑거름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 중에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불교부산방송,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공동 주관하여
"21세기 팔만대장경" 불사를 위한
대행 스님 부산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초석을 이룰
21세기 팔만대장경 불사가 원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하는 이번 법회에서
대행 스님의 "삶은 고가 아니다"는 주제 법어를 통해,
700여 년 전 고려 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하여
민족적 위난을 이겨 냈듯이,
오늘의 경제 위기 타개와 사회 혼란 극복을 위한
민족적 슬기를 모읍시다.



주관 :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부산방송
한마음선원 부산지원(051-403-7077)

후원 :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PSB 부산방송
tbn 부산불교 텔레비전,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 불교신도회, 부산광역시의회 경각회,
석림 동문회, 현대불교신문 외 불교계 각 언론사